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추석선물하세요!!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2월 5일 수요일(주간) 제407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나누는 기쁨… 따뜻한 설

1월 18일 서울 미아동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한 사람이 쌀 한가마니를 탁자에 올려놓자마자 자리를 뜬다. 자비의집 직원들이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 말이 없다. 2년째 매달 쌀을 놓고 가지만 불교용품점을 운영하는 불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도 누군지 모른다.

며칠 뒤. 이번엔 노보살 한 명이 꼬깃꼬깃 접은 지폐 5천원을 슬그머니 자비의 집 직원 손에 쥐어준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는 것이었다. 작지만 자비심 가득한 이런 정성은 올 설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돈 몇 푼 놓고 가는 게 대단한 일이냐"며 한사코 자신을 밝히길 꺼려한다.

설을 맞아 1월 28일 자비의 집은 오천원, 만원씩 모은 후원금과 1~2㎏씩 들어온 쌀로 100가구 150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노인들에게 쌀 일곱 가마니 분량의 떡을 나눠주었다. 모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것이다. 오랜만에 시름겨운 이웃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월남한 이후 혼자 몸으로 살아온 김명성 할머니는 자비의 집에서 보내준 떡국떡을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김 할머니는 "이번 설에는 떡국도 못 먹는다고 생각했어. 명절만 되면 고향에 두고 온 식구가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 있어 위로가 되는 것 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자비의집 신석훈 간사는 "자비의 집이 여러 어르신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 돌려주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한다"고 말한다.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불자들의 자비행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

강유신(취재1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총무원 운영 · 원장 권한 변화 예고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종하 · 법장스님 종책 기조

종무행정 각부장에 고유권한 부여

	종하 스님	법장 스님
총무원장 역할	대정부 관계 및 국제종교교류에 중점	분야별 전문집단과 역할 분담
총무원 운영방식	부장에게 전결권 부여 조직구조 개편	부장에게 권한 이양 말사주지 임명권 본사주지에 이양
인사 원칙	공정 · 투명 · 객관성	능력
달라이라마 방한	신중히 고려	찬성
남북 불교교류	창구 단일화(민추본, 평불협 중)	평불협이 주도, 총무원은 후원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반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종하, 법장 두 스님이 총무원 운영과 총무원장 권한의 변화를 예고했다.

두 스님은 1월28일 불교계 기자단과 가진 개별 인터뷰에서 총무원장의 권한을 총무원 각 부처에 이양하고 조직 및 인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종하스님은 해외교구 설치 및 해외 사찰 건립 등 국제교류에 비중을 둔 반면, 법장스님은 대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의 현안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견해를 보여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종책방향도 상당부분 달라질 전망이다.

☞관련 인터뷰 및 기사 3면

먼저 총무원 운영방식과 관련해 종하, 법장 두 스님은 한결같이 총무원 각 부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종하스님은 총무원 조직개편을, 법장스님은 말사 주지 임명권을 본사주지에게 이양하겠다고 언급했다.

총무원장의 역할에 대해 종하스님은 대정부 관계 및 세계 종교와의 교류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법장스님은 통일이나 환경문제를 전문가들이 맡도록 함으로써 전문분야에 직접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 문제에 있어 종하스님은 공정성 · 투명성 · 객관성을, 법장스님은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상대 후보 측의 인물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본산 성역화와 관련 두 후보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으며, 북한산 및 천성산 · 금정산 관통로에 대해서도 백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면에 대해서는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불교문화 및 정보화에 있어서는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남북한 불교현안 논의하자"

조불련, 10일 베이징서 대화 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남한 불교계에 2월 10~11일 베이징에서 만나 남북불교 현안을 논의하자고 1월 22일 제안했다. 조불련이 대화를 제의해 온 단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진각종,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 네 곳이다.

조불련은 중앙위원회 심상진 서기장 명의로 발송한 전문을 통해 "올해 남북불교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의 평양관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단협과 조계종, 진각종, 평불협 등 조불련의 접촉 제안을 받은 단체들은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 계획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ABCP 10차 총회 21세기 불교발전 모색

아시아불교평화회의(ABCP) 제10차 총회가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주제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아네에서 개최된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제9차 총회 이래 ABCP 본부 및 상임이사회의 사업과 회원국의 활동 보고, 평화와 화합 정의가 위협받았을 때 아시아 전역을 통해 더 많은 불자와 불자회가 평화구현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남한에서는 조계종 국제교류부위원장 진월스님이, 북한에서는 조불련 심상진 서기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2년에 결성된 ABCP는 몽고 울란바토루에 본부가 있으며 30여 개 회원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업둥이 돌보는 노스님 여덟 명의 업둥이를 기르고 있는 서울 불광동 수경사 청오스님(94)이 쌍둥이 형제 윤권이(왼쪽)와 윤수(오른쪽), 그리고 윤경이를 안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사진= 고영배 기자

'자원봉사 저축제' 큰 호응

봉사누적 일정점수 이상 땐 인센티브

연꽃마을 등 시행 … 복지단체 도입 늘듯

자원봉사자들의 성취감 고취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스님)는 지난 1999년부터 소속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에게 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자원봉사 저축제'를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 저축제'는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에 자원봉사 시간을 기록해 봉사자들이 봉사누적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불교사회복지회 소속 100여 단체의 1천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누적된 자원봉사 실적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08사찰순례단 등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유료 프로그램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이용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본인뿐 아니라 추천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어 효용가치가 더욱 크다.

현재 이러한 제도는 '연꽃마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교계 각 복지단체에서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박원구 기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현대불교신문와 함께 지역포교에 앞장설 참신한 지사장을 모십니다.

1. 모집 지역
   - 강원: 춘천, 철원, 원주, 동해, 삼척, 정선, 영월
   - 충청: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공주, 부여
   - 경상: 경주, 포항, 김해, 마산, 창원
   - 울산광역시 ▪제주 전역
2. 활동분야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3.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03년 2월 15일(토)
   - 제출방법: 우편(15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 제출처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전화: 02)737-8881 팩스:02)737-0697



사 설

'점'으로 행복 점칠 수 없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베다의 주문 법과 꿈을 해몽하는 일과 관상과 별점 등을 쳐서는 안 된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이다. 새삼스럽게 경전 문구를 인용한 것은 새해 들어 토정비결이나 신수점을 보기 위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세상사다 보니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점치고자 하는 것이다.

길흉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인간들의 소박한 심리를 탓할 수야 없겠지만 그런 것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 인간의 행복은 노력하는데 있다. 무엇이든 쉽고 편안하게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별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별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전생담>의 가르침은 그래서 소중하다.

부처님께서는 운명론자, 우연론자, 유신론자들을 비판한 바가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약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부단한 노력이 부와 행복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패배의식과 불신감이 팽배되어 있다.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로또 복권이 열풍을 일으키는 것 역시 한탕주의 내지 공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누군들 노력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겠는가? 점이나 보러 다닐 수밖에 없게도 한다. 그러나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할수록 불자들은 이 사회의 빛과 그늘이 되어야 한다. 미신에 현혹되어 마음의 안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불교 생협 활성화돼야 한다

이웃끼리 노동력을 나누던 품앗이나, 공동체의 일을 함께 처리하던 두레의 전통이 사라진지 오래다. 급속도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수많은 전통적 가치나 생활문화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일수록 오히려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거대한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날이 악화되는 환경 오염과 안심할 수 없는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각성된 개개인의 구체적 행동만이 해결책일 텐데, 그것의 결집된 형태가 바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생활공동체'라 할 '생협'이 불교계에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으로 시작된 불교 생협이 올해 초 서울 봉은사 등 7개 단체가 연합한 불교생협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만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실상사에서 인근 주민과 힘을 합쳐 20만평 규모의 유기농 단지를 조성하여 생협의 한 축인 생산기반을 갖췄다.

불교 생협은 단순히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확보 수단을 넘어 부처님의 생명사상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특히 사찰이라는 공간은 도시와 농촌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묶어주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전문포교사제도 시행한다

조계종 자격기준·선발절차등 세부계획 마련키로

일반포교사로 3년이상 활동자 대상
2년동안 시험운영…2005년 본격 실시

현장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일반포교사들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일반포교사 제도 시행 8년을 맞아 정착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신도법에 명시된 전문포교사 제도를 활용, 재가자들의 포교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8일 회의를 열고 제도 운용을 위한 포교원 내규 제정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초순경 자격기준과 선발절차, 교육 등 전문포교사 제도 운영 세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 조계사 불교대학원 등 관계자들의 실무 협의를 거쳐 2년 정도 시범적 운영을 한 다음 미비점 등을 보완해 일반포교사 제도 시행 10년째인 2005년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일반포교사로서 3년 이상 전문 포교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된 자 중 소정의 선발절차를 마친 신도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을 품수한다"는 신도법 조항에 부합되는 현장 포교활동 경력을 갖춘 일반포교사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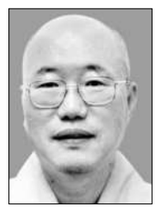
세부적인 선발기준으로는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포교사의 품성과 자질, 불교대학원 이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운영은 기존 포교사단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포교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포교사 심화교육, 신분 및 지위 보장, 일반포교사와 구분된 활동영역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포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포교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 윤승환 포교주임은 "일반포교사와 구분된 지위와 활동 보장은 단순히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포교사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며 "완벽한 시행계획과 점진적인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전문포교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 위원장 원택스님 선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월24일 종회사무처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원택스님(사진)을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정념스님이, 간사에는 의연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종립학교관리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승가대학령 개정

승가대학 수업일수, 휴·복학 조항 신설
만40세 초과자 행자교육원 입교 불허

조계종이 행자 및 승가대학 학인들의 전학, 편·입학 과정에 대한 체계를 세워 나간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28일 교육원회의를 열고 행자교육원령과 승가대학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2000년 전국 승가대학 학장회의에서 결의돼 시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미비한 종령을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승가대학령은 입학시기, 편입학, 재입학, 전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을 포함하고 있다. 4학년(대교반) 종강일은 음력 12월10일 이후로 한다는 수업일수 조항을 신설했고, 휴·복학 과정과 절차에 대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 휴학, 복학, 재입학, 전학의 경우 당해 승가대학장은 증빙서류와 사유를 기재해 조계종 교육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교육원령 개정안은 입교불허 기준 가운데 6개월 이하였던 기존의 이혼 경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한편, 만 40세 초과자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원에 수행 내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입교 불허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전형근 차장은 "조항을 추가 또는 보완함으로써 학인들의 전학 질서를 바로 잡고 나아가 올바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부산 불자들, 고속철 반대앞장

'이웃종교인과의 만남' 행사

100여 참석자들 '반전평화선언문' 채택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월 29일 서울 조계사 법당에서 종교간 화합을 위한 '이웃종교인과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불교와 이슬람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주화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사무차장이 참석해 이슬람 사상의 특징과 문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계사청년회 지도법사 원명스님,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불자들은 이라크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반전평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불자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투자되는 돈을 사회 복지와 평화를 위해 쓰자"고 결의했다. 강유신 기자

주2회 화엄사 산사체험
철도청·전라남도

철도청과 전라남도는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8일부터 매주 2차례 구례 화엄사 산사체험을 실시한다. 매 회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화엄사 산사체험은 새벽예불, 발우공양, 선체조, 참선, 암자순례, 스님과의 차담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불자는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화엄사 산사체험은 매주 수·토요일 오전 7시50분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062)223-4416

동국학원 이사회 성원미달로 못열어

2월19일 열기로

동국학원 190회 이사회가 1월27일 12명의 이사 중 6명이 참석,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불교병원 개원준비위 보고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다음 이사회는 19일 오전 11시 교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오신날 표어 모집
조계종 봉축위원회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표어를 모집한다. 표어는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나 불교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고, 어버이나 가정의 의미를 담은 것이면 된다. 글자수는 10자 이내이며, 접수는 이메일(nhk@buddhism.or.kr)로만 가능하다. 당선작에는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02)725-6641 한명우 기자

승가학원 정체성 확립키로

승가학원은 1월 28일 열린 62차 이사회에서 승가학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앙승가대 교육목표를 수정하고, 대학원에 사회복지과 개설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원우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2기생을 모집함

불교학과	근본불교·대승불교·화엄사상·인도불교·중국불교·한국불교·불교개론·불교미술·선종사상·밀교·포교방법론 등 18과목
한문학과	한문법(1)·한문법(2)·장자·주역·논어·금강경·법화경·화엄경·선가귀감
불교미술학과	① 불화1(단청), ② 선화(달마도) ③ 불화 2, ④ 불화 3(이론과 실기)
우리춤학과	우리춤, 승무, 북과장단 / 이애주(서울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 100명) (주간반 50명) (통신반 50명)	불교한문학과(5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불교우리춤과(30명)	불교를 적극 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2003년 2월 27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우리춤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불교미술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2003년 2월 8일(토요일)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조계사 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3-4184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불교한문학과 (3월 6일 개강)

과 목	· 한문법(1), 한문법(2) · 장자, 주역 · 선가귀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교수진	· 김형중교법사, 심재동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 교수(승가대), 무진장 스님, 김병조 교수

불교미술학과 (3월 5일 개강)

이론편	· 불교미술사(인도, 티벳, 돈황, 중국, 남방) · 고려불화, 조선불화, 현대불화 · 불화제작의 이론(단청, 화엄변상도, 만다라)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우리춤학과 (3월 5일 개강)

지도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제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③ 작법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놀림) ④ 북과 장단기본(북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2003 학년도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1)	박 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팔리원전)	숫타니파타 1	전재성	숫타니파타 아함경 팔천송반야경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2시	능엄경 보경소(2)	송찬우	능엄경(1)(2)(3) (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4시	근본불교 (수행론 37조도품)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 금강경 법화경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3년 2월 1일~ 2003년 2월 28일(금) [서류전형]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2003년 3월 3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3년 3월 6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 2003년 3월 4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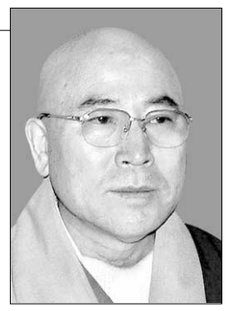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안정·화합 바탕 신뢰받는 종단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종하·법장스님에게 듣는다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종하, 법장 두 스님은 1월28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총무원 운영방식을 비롯해 수행풍토, 불교문화, 환경, 인사정책 등에 대한 기조를 밝혔다.

두 스님의 정책방향을 1. 출마배경 2. 총무원 운영 및 총무원장 역할 3. 인사 4. 수행체계 5. 환경 6. 불교문화 및 정보화 7. 사면 8. 총본산 성역화 9. 북한불교교류 10. 종교형평성으로 구분해 요약했다.



종하스님

총무원 직제 재검토·종무회의 기능 강화
북한산 금정산 관통도로 백지화 주력
한국불교 알릴 국제 불교교류 기구 창설

1. 총무원 총무부장, 부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등 행정과 입법부를 두루 섭렵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종단 안정과 화합을 이뤄내는데 이런 경험들이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총무원 직제에 대한 검토 등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종무회의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총무원장은 대정부 관계 및 세계 종교와의 교류에 전력하면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총무원의 각 부서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내부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성이 있는 인사를 하겠다.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고를 중시해 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인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4.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 재가수행단체들에 대해서는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

5. 환경은 수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환경수호는 물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불교신행공동체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북한산과 천성산·금정산 관통로 백지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6. 전통불교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전통과 현대의 조화도 슬기롭게 이뤄내야 한다. 문화재 유지 보수도 중요하다. 정보화 시대는 정각(正覺)의 시대다. 인터넷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불교정보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홈페이지나 네트워크, 인트라넷이 폭넓게 활용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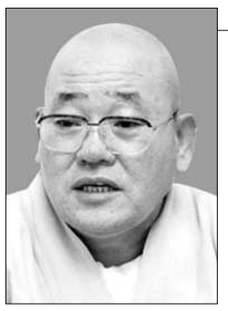
정보화는 곧 세계화다. 한국불교를 알리는 것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국제불교교류기구를 창설할 생각이다. 더불어 해외 교구를 설치하고 해외에 사찰을 건립해 해외포교를 활성화하겠다.

7. 종단 안팎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원칙을 갖고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다. 사면을 한다 해도 일괄적 사면이 아닌 선별적 사면이 좋다고 생각한다.

8. 한국불교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박물관 설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재검토 여론이 높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9. 종단차원에서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추본과 평불협이 북한불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한 종단에서 두 단체는 곤란하다.

10. 대통령이 종교색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조각시 대통령을 면담해 형평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법장스님

권한 대폭이양…주지 임명권 본사주지에
대정부대책위 구성 문화재보호법 등 처리
열린불교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강구

1. 사회는 변하는데 종단은 그렇지 못했다. 승가가 사회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화합과 안정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과 대사회적 활동 경험을 통해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고 싶다.

2. 통일문제나 환경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의 권한도 각 부서장에게 대폭 주어야 한다. 다만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총무원장이 되면 말사 주지 임명권도 본사주지에게 이양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이 활성화된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3. 조직은 능력이 최우선이다. 능력 위주로 조직이 강화될 때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 인사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지역과 계파를 배제하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할 것이다. 과거에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을 지냈던 원로들을 모시고 충분히 자문을 구할 생각이다.

4. 일반인도 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심하고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는 수행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신도와 스님, 선과 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와 만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렇게 돼야하지 않겠느냐는 노 당선자의 답변을 전해 들었다. 총무원장이 되면 대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6. 성보문화재는 정신적 물질적 문화를 겸비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또 종단은 물론 정부시책 차원에서 정보화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불교가 세계인류에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정보센터와 수행관을 만드는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7. 종정스님과 종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종도들의 뜻을 수렴해 화합속에 미래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공생과 상생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겠다.

8.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더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

9. 북한불교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총무원이 다 관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법타스님이 오래전부터 통일문제에 관여해 왔는데, 이 분이 주도하게 하고 총무원은 후원하는 방식으로 북한불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0. 문광부 장관은 최소한 무종교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강력히 주문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불화와 시비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계파·금권 등 구태 청산돼야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풀어야 할 과제

법규정 허술… 문중·계파입김 가능성
종책선거 공언 불구 세부안 마련 못해
총무원장 권한축소 제도적 장치 필요

24일 실시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역대 어느 총무원장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는 코앞에 놓인 과제를 푸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하다. 이번 선거의 과정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늠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0년을 내다보는 포석으로서의 진전이냐 아니면 퇴보냐 하는 갈림길에 선 것이다.

자기변신의 기회이자 21세기 불교의 바로미터가 될 이번 선거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공명선거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역대 총무원장 선거의 대부분은 문중과 계파간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타락과 부정선거의 구태를 벗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금권선거가 판을 쳤고, 결국엔 '문중'과 '돈'이 당락을 좌우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일단 현재까지는 별다른 잡음이 없다. 종하, 법장 두 후보가 공명선거를 약속했고, 또 문중이나 각 계파들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단 24개 교구에서 선출하는 24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과 절차가 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문중과 교구본사 주지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잠복돼 있다.

또한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법규정이 미비돼 있다는 점도 걱정스런 부분이다. 총무원장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명시된 5개 조항이 전부고, 게다가 선거일정이나 금품수수, 인신공격 등을 금지하는 원칙적인 사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선거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문중과 계파간의 줄서기가 본격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비방전과 금권선거가 난무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타락선거를 막을 수 없다.

●종책선거 왜 아직도 뒷전인가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종책 선거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때 종책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출마를 공식선언한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대략적인 기조 외에 구체적인 종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두 후보 측은 선거법상 후보등록 이전에 종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매체를 통한 광고 외에 종책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두 후보 측이 아직까지 종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애매한 선거법 탓도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종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책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수의 스님과 재가자들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 선거시스템 때문이다. 선거인단은 교구에서 선출된 240명과 종회의원 81명을 합해 모두 321명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후보들은 이들 선거인단과 선거인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표심'만 잡으면 된다. 대중적인 지지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책보다는 문중이나 계파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고, 종책선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차후에 종도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시스템이 마련돼야만 실질적인 종책선거가 가능하다.

●총무원장 막강 권력이 혼탁 부른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권력은 한마디로 무소불위나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산중총회에서 선출되고 총무원 내에서는 종무회의가 공의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총무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 종회도 견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막강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고 한다. 일리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총무원장은 사실상 종단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있다. 조계사 보문사 선본사 봉은사 도선사 등 직영 및 직할사찰의 경우 주지 임명권은 물론 예산승인권 및 예산조정권을 가진다. 말사의 주지 임명권도 총무원장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종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은 물론 종법안 제안권 등 적지 않은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총무원장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인 것도 바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해 '투자한 것보다 몇 배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명하고 축제 분위기의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 아울러 총무원장 본연의 임무인 종단 행정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열 린 마 당

이런 총무원장 바란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24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불교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를 갖게 한다. 새천년 들어 처음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승가와 재가단체 지도자, 평범한 한 불자를 통해 '어떤 총무원장이 나와야 할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현각 스님(조계종 전 종회의원)

도덕성·급변사회 지도력 갖춰야



조계종단은 한국불교 1600년의 전통과 정통성을 계승하고 대표하는 종단이다. 따라서 종단의 수장이 되는 총무원장은 도덕성과 신뢰성, 종단운영 능력을 함께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번 총무원장에 선출되는 분은 첫째 종교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품성과 수행을 겸비하여 국민과 종도들의 귀의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할 인물이 없다는 국민들의 자괴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1000만 불자와 12,000여 명 조계종 승려, 30000여 조계종 사찰의 대표로서 경영능력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의 요인에는 지도자의 능력과 철학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불교정신을 토대로 한 종책의 실천자이어야 한다. 불교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크고 작은 불사나 행사들이 불교정신을 외면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는 보살의 실천적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총무원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종도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간다면 국민과 종도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단이 될 것이다.

이번 총무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혁재(재가연대 집행위원장)

미래지향 종무·화합 이룰 인물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은 새 시대 불교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예부터 중 벼슬은 닭 벼슬보다도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날 권위주의정권과 손잡고 중 벼슬에 집착하던 권승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에 맞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었고, 마침내 개혁불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혁불사로 한국불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 올바른 개혁불사는 한국불교 전반에 수행의 기풍과 계율이 뿌리를 내리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개혁불사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게 겪었고, 개혁불사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불사를 마무리하고 불교가 불자들에게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개혁 과도기를 거쳤던 전임 총무원장의 소임이 흔들리는 종단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면 차기 총무원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종무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총무원장은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불교의 화합(조계종 내부의 화합, 종단끼리의 화합, 재가와 승가의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타종교와의 화합, 그리고 사회와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총무원장이었으면 좋겠다. 계율에 엄격하고 수행에 정진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조건이다.

남혜정(주부·서울 송파구)

사회적 존경 받는 지도자 돼야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변화'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구태의연한 생각과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후 변화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변화의 기운을 불교계라고 해서 내 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뽑히는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다종교사회라 해도 전통 문화의 뿌리는 불교에 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조계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다. 따라서 그 행정의 수장인 총무원장 역시 당연히 불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기는커녕 온갖 비리의 '중심'인 듯한 인상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새천년 처음 뽑히는 총무원장은 부끄럽지 않은, 참다운 종교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게 불자로서 한 바람이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장점은 수행 전통에 있다. 수행은 철저한 지계 정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총무원장에게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수행 전통을 굳건히 세웠으면 하는 것이다. 불교계의 변화는 스님들이 승가 본연에 충실할 때 가능하고, 그럴 때 불자들 역시 진정한 외호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주문



8일 53선지식 특별법문
월운 남양주 봉선사 조실은 8일 오전 11시 30분 영남불교대 3층 대법당에서 53선지식 특별법문을 한다.



녹야원 등 인도 성지순례
정무 안성 석남사 주지는 16일부터 3월1일까지 인도 부다가야, 녹야원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31)676-1444



설날 떡국 · 제사상 공양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1일 안양교도소 전 재소자에게 떡국 공양을 하고 모범 재소자에게 제사상을 차려줬다.



부처님 점안법회 참석
일오 대승종 총무원장은 1월 26일 군산 정효사(주지 정효)에서 열린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 법회에 참석했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 수료식
홍선 경기사원연합회장은 1월 27일 고양 광명사에서 제3기 천수천안자원봉사단 74명의 수료식을 열었다.



법륜스님 초청 설법회
덕진 울산 정토사 주지는 4일과 5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과 원명회 회주 묘허스님을 초청해 설법회를 열었다.



천주교 시노드에 참석
지거 조계종 사회국장은 1월2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개막된 천주교 시노드(교회쇄신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설날맞이 쌀 · 떡가래 지원
무이 백천사회복지관장은 1월28일부터 30일까지 경산시 와촌면의 저소득층 가정을 선정하여 설날 쌀 및 떡가래를 지원했다.



무애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서돈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은 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고등학생 ·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9회 장학금 수여식을 연다.



부산불교방송 개국 8주년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은 3일 사옥 11층에서 '작은 실천 좋은 인연…' 이라는 주제로 개국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교불련 동계수련회 개최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해인사에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동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농협 새회장 강명구 씨
강명구 농협중앙회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달 23일 중앙회 9층 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차문화 · 다법 연구생 모집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20일까지 차문화와 전통제다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연구생을 모집한다. 02)504-6162



신년법회 · 장학금 전달식
하정선 불교TV 염불공양모임 회장은 6일 오후 3시 부산 염불공양회 사무실에서 신년 법회 및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한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④

조인석 (춘강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훈련 · 일거리 주고 싶어"



"일반고용이 어려워 정신적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귀포 지역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재활 훈련과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장애자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춘강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조인석 원장이 장애인 포교에 팔을 걷어 부친 이유다. 하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다섯 살때부터 선천성 체중미달인 큰 아들 조성훈(21) 군이 초등학교 시절 1급 지체장애인으로 판정받으면서부터다. 장애아 특수학교인 영지학교에 조 군을 입학시켰지만 초 · 중등부를 졸업하면 고등부가 없기 때문에 막상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가서 공부할 곳이 없었다. 안타까운 현실에 조 원장은 장애인 대책협의회 대표직을 맡으면서 도 교육청을 상대로 영지학교내에 고등부를 개설해야 된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 그결과 98년에 고등부가 생겼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다.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게 되면 대학진학이 사실상 어려운 중증장애자들은 그때부터 생계를 위해 취직해야하는데 일터에서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재활교육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교육받는다면 사회적응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22명의 원생이 있는 어울림터에서 조 원장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양초공예다. 사찰에서 사용하다 폐기된 양초를 수거해 향(香)과 색깔을 집어넣어 특수양초를 만드는 일이다. 또 조 원장은 한라동물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장애인 1인 1마리 애완견 사육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부모들과 자원봉사들이 만든 토속된장의 브랜드화와 포교를 위한 월 1회 정도의 사찰 순례도 계획하고 있다.

"15년동안 불교언론에서 일하면서 도내의 여러 복지시설과 사찰을 두루 취재했던 경험들이 이번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장애인 포교를 제 인생의 마지막 회향사업으로 알고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며 떳떳한 사회인으로 새출발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특수양초 제조 · 애완견 사육사업 추진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동국대서 중국사상사 석학 나오길"

시마다 겐지 문고 개관식 참석 시마다 모토꼬 여사

"동국대에서 남편의 뒤를 이어 중국사상사 연구의 세계적 석학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27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시마다겐지 문고(島田虔次 文庫) 개관식에 참석한 故 시마다겐지 전 교토대 교수의 부인 시마다 모토코(島田 元子)여사(사진 오른쪽)와 두 딸은 송석구 총장에게 고인이 된 남편의 뜻을 전했다.

"이 서적들은 남편이 어려웠던 태평양전쟁 시절부터 배를 골며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영원히 보존될 수 있고, 활용가치가 큰 곳에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모토코 여사는 중국사상사 관련 4천여권이 넘는 귀중한 고서를 비롯하여 2만여권에 이르는 동양서와 5백여 권의 서양서, 6백 5십여 종 6천여 권의 정기 간행물이 보관된 시마다 문고와 남편의 사진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송석구 총장은 "세계적으로 귀중한 서적들을 본 대학에 기증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모토코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국대 시마다겐지 문고는 중국사상사 연구의 세계적 석학이며 교토대학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고 시마다겐지(島田虔次. 前 교토대학) 교수의 부인인 모토코 여사가 3만여권의 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해 마련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박문석 문광부차관 출판기념회

문화관광부 박문석 차관의 시집 <무우전(無憂殿)>과 문화정책론집 <황금거위를 잡아라> 출판기념회가 1월 28일 국립민속박물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 정관계, 문화 · 예술계 인사 3백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거제 불곡사 삼존불 점안

거제 불곡사(주지 혜연)는 1월 25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스님, 종회의장 연봉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혜연스님은 법회에서 "거제 불곡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과 종회의장 스님 등 여러 불자들의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통문화 체험하기 행사

서울 삼전복지관(관장 각우)은 1월 20일 인사동 거리에서 전통문화 체험하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 중 '사랑씨앗! 행복열매! 프로그램' 이란 행사에는 아동 13명이 동참했고, 복지관에서 배운 다도이론을 전통찻집에 찾아가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아동들은 화석전시장과 미술관을 둘러보며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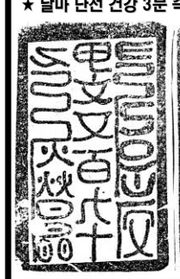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

제2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이 1월 26일 대구 영남불교대학 대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스님, 불교텔레비전 회장 성우 스님을 비롯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만화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640여 명이 1000여 편을 출품했으며 연꽃특별대상은 김용운 군이, 연꽃대상은 방정현 군이 수상했다.

경신도통이란 무엇인가? 心 대일여래의 근본 생명을 進退印으로 말과 형상과 문자와 재물과 장삼에 잊지않는 진성 참주인을 대용맹정진을 경신 수행으로 영과 혼을 관리한는 대일여래. 즉 동방만월세계 약사여래 칠불 창조주께서 경신일 좌시와 오시에 庚申일 천지인 생명의 문을 열고 전생. 금생. 내생 윤회의 문을 열고 삼라만상 일체를 심판하여 도깨비, 실개비, 헛개비, 망개비, 양개비 등 생명을 번식할 수 있는 태란 습화로 성현과 성현, 진인군자 와 도통군자, 선과 악을 진태인으로 천장지비로 광명천지의 도통을 기근에 따라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지구촌 모든종교와 종파와 인종을 초월하는 법도를 세우는 초능력 증표의 잣대를 받아 부처와 부처, 종교와 종교, 중생과 중생, 가벼이 전하지 않는 증법을 받는 날이 경신도통이며 각종 직업에 부적, 의통, 재물, 말문, 예술, 서예, 도예, 음악, 문화 만고백관이 머리를 숙이는 경신일이고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만인의 스승이 되는 신출괴물인 비법인 것이다.

● 달마가 될 수 있는 법도이므로 우리곁에 가까이 와있는 달마법도로 생명의 본체인 비만, 중풍, 치매, 당뇨, 암, 관절염, 신경통, 음양 관리등 만병을 이길 수 있는 달마단전건강 3분 즉시 기통법으로 만병을 관리하는 의통 능력자 되소서.

★ 달마 단전 건강 3분 즉시 기통법으로 배꼽을 움직이어 건강



여타에 물들지 않고 진정한 도를 구하여 천안통 능력으로 덕을 배물고 도인이 되고자 하시는 진인들의 평생연구회비 330만원. 일년 연구회비 100만원. 평일연구회비 10만원. 경신을 찾는 도인들에게 진태인 주운으로써 유성의 베일을 벗기고 즉시 서성영성 대광명도 통하는 것이다.

卍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心

자성삼보와 수행삼보로 계미년 생과사의 창생. 천안통 및 입춘 용맹정진대법회

제74회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계미년 2月 15日子시와 16日 오시(음1月 15, 16日)에 다시없는 해인도법 잣대로 루진통에 신비의 초능력을 얻어 지구촌의 이그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병 육신의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을 제도 하는 대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각종 중음신과 잡신(수마,인마,병마)에 병명도 없이 우환, 질병, 각종 병의 고통으로 겁살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를 단 한번으로도 말문과 영통비법을 통하여 초능력으로 만법을 다스릴 용맹정진도통에 도통하시어 천하의 비밀장으로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스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낙 당당의 비밀장과 **만병의 근원인 잡신에 병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얻어 인간에게는 주처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와 하늘에 의지하거늘 무엇때문에 종교를 믿고 도를 통하여 어디에 쓸려고 고행하십니까! 이번 법회에는 생명을 노리는 중풍, 치매, 혈압당뇨병, 관절염, 각종 병을 자기 스스로 이러한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오니 입문하시어 견성득도하여 무병장수 하소서.

● 입제 : 2월 15일 토요일(해시) ● 해제 : 16일 수요일(해시)
02) 821-6622 /821-7767~8 /016) 239-3110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 25, 94, 72-1, 105, 26, 303, 142, 26-3, 102번) 모자원고개 하차.

웅조달마 **진인 경신 도통 회장** 天龍眞人
불교 달마중 충 본산 교육원장 泰日합장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2004

인드라망 활동가 수련회

29일까지 경남 하동서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경남 하동 자연농업문화센터에서 활동가 수련회를 개최했다.

도법 · 정해숙 공동대표를 비롯 30여 임원 및 활동가가 참여한 수련회는 26일 만남의 날, 27일 이해의 날, 28일 협력의 날, 29일 전진의 날로 나눠 진행됐다. 수련회에서 정해숙 공동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내편이 아니면 또 내 주장과 다르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며 "이런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행과 삶이 하나 되는 부처님의 생명사상을 사회적 실천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회에서 인드라망은 2003년 조직 과제로 1000일 기도 회향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우리쌀 살리기 불교운동본부 설립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실상사 인근 대규모 유기농업단지

한생명 20만평 '실상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004년부터 유기농 쌀 연 3천가마 생산

남원 실상사 인근 20여만 평에 대단위 유기농업단지가 조성된다.

남원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생명(이사장 도법스님, 실상사 주지)에 따르면 "실상사가 위치한 남원 산내면 입석리 20여 만평에 대단위 유기농업단지인 '실상들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내면 입석리, 백일리, 대정리 등 3개 마을 60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지구는 2004년부터 농사를 짓게 된다. 여기에서는 연간 3000가마의 유기농 쌀과 여러 종류의 유기농산물이 생산될 전망이다.

한생명은 이를 위해 지난 해 11월 22일 지역주민과 기관장 등이 참여한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조성 산내면 추진위원회 및 실무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차례의 설명회 및 환경농업교육, 3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1월 27자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 농림부에 친환경농업지구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은 4년전부터 완전유기농업을 해오고 있는 실상사농장과 환경농업을 교육하는 남원환경농업교육장(실상사 귀농전문학교)이 담당한다.

실상들 친환경농업지구는 2004년 쌀 시장 개방 및 농산물수입자유화로 인한 농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주민이 상부상조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교육 · 문화 · 복지 · 생산을 지역내에서 해결하는 자립공동체 형성, 자연 · 생태계를 보전하는 생태마을 건설 등의 한생명 지역발전계획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됐다. 여기에 산내면이 특별한 주소득 작목이 부족해 농가소득이 낮은 점, 젊은 귀농인들의 유입이 많아 귀농인과 지역토착인의 지역 협동형 농업실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한생명 수지행 사무국장은 "실상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실상사의 지원 속에서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와 실상사 농장이 중심이 돼 벌여온 유기농업운동의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회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생명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산내면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듣고 있다.

복지시설 소쩍새마을에 우리은행, 후원금 전달

우리은행(은행장 이덕훈)이 불교계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쩍새마을에 후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2001년부터 수익금의 30%를 사회복지시설 후원에 사용하는 '참사랑신탁'이란 저축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참사랑신탁' 운영 결과 1억1천7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자 소쩍새마을 등 21개 복지시설을 선정, 후원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탁 운영 수익금 7000만 원을 소쩍새마을 모(母) 재단인 승가원 등 8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 복지시설을 연이어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불자회원들이 적극 추천함에 따라 소쩍새마을이 후원을 받게 됐다.

후원금 전달식은 29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강유신 기자

어르신 600여명 위안잔치 부천 덕유사회복지관

부천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최유호)은 1월 24일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모시고 경로 위안 잔치 '은빛 세계로의 초대'를 열었다. 동현웨딩홀부페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떡국 공양과 코미디언 백남봉 씨가 진행한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다. 행사는 9일 오전 6시 KBS 1 TV '언제나 청춘' <백남봉의 실버만세!>에 방영된다.

여수령 기자

전인구 불자장군 마라톤 전역식…36km 완주



◇마라톤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한 전인구(가운데)장군.

전인구 예비역 불자회 사무총장(예비역 준장)이 1월 27일 마라톤 전역식을 했다. 전 사무총장은 36년 군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한 육군사관학교에서 마지막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경기 포천 소재 6공병 여단까지 국방부 달리기 사랑모임 회원들과 36km를 완주하고, 장병들의 축하 속에 부대에 도착한 다음 전역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육군 6공병여단

서울 3·1절 행사에 조불련 참석

100여명 규모…조계사 참배할 듯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3 · 1절 기념행사에 조선불교도연맹이 참가하고 조계사 등을 참배할 전망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연합 관계자는 "3 · 1절 행사는 3박 4이나 4박 5일로 예정돼 있으며 북한에서 총 100여명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0여명 중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4대 종교 70여명이 참석하며 행사 중 종교음악회 개최, 각 종교단체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고 말해 조불련의 조계사 참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는 오는 3 · 1절 서울에서 남북한 및 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최한다고 1월25일 밝혔다. 범민련은 1월 24일 서울과 평양, 도쿄에서 동시에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열어 3 · 1절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비롯해 6 · 15 민족통일대회, 개천절 공동행사 등 2003년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범민련측은 1월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민간 실무접촉에서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북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삼국유사 3·4·5권 국보로 문화재청, 보물 10건 지정

보물로 지정돼 있던 '<삼국유사> 권3, 4, 5'(사진)가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보물 419호로 지정돼 있던 <삼국유사> 3~5권(개인 소장)을 국보 306호로 지정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주사 소조삼불좌상(1626년, 보물 1360호) 등 10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국보로 승격된 <삼국유사> 3~5권은 현존하는 <삼국유사> 가운데 가장 오래 된 목판본으로, 조선 초기인 14세기말 간행됐다. 현재 학계에서 널리 이용 중인 정덕본 <삼국유사>(1512년 간행)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361호)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1362호)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탱(1363호)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1364호)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1365호)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1366호)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후불탱 및 십육나한탱(1367호)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 및 팔상탱(1368호)

권형진 기자



인도·방글라데시 동사자 속출

한달 계속 한파로…대부분 어린이·노인

북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에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본지 김동훈 통신원에 따르면 지난 한달 여 간의 한파로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지역에 현재까지 17명의 동사자(현지언론은 북인도에서만 1000여명 추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 한파에 동사한 사람은 대부분 노인과 어린이다.

김 통신원은 둥게스와리 천민들의 경우 집에 불을 피울만한 시설이나 돈도 없다고 전했다. 인도 돈으로 100루피(한화 3천원)만 있으면 담요를 한 장 살수 있지만 쌀살 돈 외에는 특별한 여유가 없는 천민 극빈층에게는 3천원이 없어 밤사이 얼어 죽는다는 것이다.

인도 JTS가 현재 보유한 담요는 100장. 하지만 인도 JTS가 관리하는 마을 주민은 1만 명이어서 동사자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불자들의 자비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원문의 :02)587-8995, 후 원 계 좌 :국민)086-01-0339-254 남동우 기자

화림원 '금강경 결제' 회향

8일 화엄학림 강당서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재해석하여 한국불교 현주소를 모색하고자 했던 실상사 화림원(원갑 재연)의 '금강경 결제' 마지막 논강이 8일 오후 6시30분 화엄학림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회향법회는 1부 총평에 이어 2부 통광스님(쌍계사 강주) 법어, 대중 회향발원문 낭독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열려온 이번 '금강경 결제'는 각묵 스님 등 40여 명의 승려와 1천200여명의 재가불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원우기자

2003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30%
개 호 복 지 사 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5매	· 각종단 승려 ·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 교 학 과 (승 려 학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 교 사 과 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방대) 분교 체결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합격
2002. 11. 종립삼화불교대로 확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의대) 본과 입학 가능
·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범대학) 3년 편입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 376-1321,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종립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영문) ◇ 대학 졸업자 (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025-6798167 · 팩스 : 0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 전화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 업 연 한	모 집 과 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 화 학 원 삼 화 불 교 대

사회복지법인 설립 추진

태고종 전국교구 종무원장회의서 결의

중앙·제주·충북복지법인 네트워크화

서울·충북 등 보유자산으로 재원확보

태고종이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28일 총무원에서 전국 교구종무원장회의를 열고, 별도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충북교구산하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태고원을 연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 계획안을 확정했다.

복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결과, 기존의 재단법인 태고원을 모체로 한다면 연내 설립이 가능하고, 2년간의 자체 운영 없이도 정부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으면서 복지법인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사회복지법인 연내 설립을 목표로 이미 확보된 서울 정릉 천중사 부지와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소재 부지 6천평 외 동산, 부동산 자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태고종의 복지법인 설립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계기는 제주교구 종무원이 2월말까지 '(가칭)복지법인 제주태고원' 설립을 추진하는데서 비롯됐다. 제주 종무원은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1천여평 규모의 치매노인요양시설을 건립을 위해 37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중 국비와 지방비 15억원을 이미 확보, 3월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태고원은 1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주도내 75개 태고종 소속 사찰의 지원을 받아 치매노인요양시설 외에도 장애인, 어린이 복지시설까지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한다는 장기계획안도 마련했다.

충북교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도 가시화 되고 있다. 충북교구 종무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충북도청에 제출해 놓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자산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반야정사 부지 3백70평과 동산 1억원이 마련된 상태다. 충북교구 종무원은 향후 노인복지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어린이 복지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은 중앙복지법인과 제주교구, 충북교구 복지법인을 아우른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이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는 데 종교계의 역할이 절실한 가운데, 오랫동안 준비해 온 복지법인 설립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지방교구 사회복지법인과 중앙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활동을 연계해 종단의 사회복지 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신행단체 연대·재정자립 추진

진각종청년회, 임원진 구성·올사업 확정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류호선)는 1월 18일 신임 임원단을 구성하고 조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국청년회관에서 열린 217회 이사회에서 진각종 전국청년회는 최지호 수석부회장(신혜심인당), 이광종(재정전문위원 겸직, 보원심인당)·신향화(수련전문위원 겸직, 탑주심인당) 부회장, 김진남 전산전문위원장(보정심인당), 신정호 사무국장(탑주심인당) 등 신임 임원단을 선출했다. 지도위원장에는 박희택 씨, 김구용·김귀인 지도위원 등 17명의 지도위원도 선임했다.

전국청년회는 신행단체간 연대, 정보 네트워크 활용, 재정자립 기반 조성 등 3대 활동지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올 한해 조직 강화에 역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메일링 시스템 구축 △지역청년회 행사 지원 △진각종 총금강회 등과 연대 추진 △지역·심인당 청년회 지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서비스(CMS)를 이용, 100인 결사를 통한 재정 확보도 추진한다. CMS 이용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전국청년회는 역대 진각청년모임 회원들과 전국청년회원, 지도위원 등을 대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류호선 회장은 "회원들의 소속감을 늘리고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진각종 청년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천태어린이회 졸업식·법화꽃 기자 연수회

천태종은 1월 10~12일 부산 삼광사에서 천태 어린이회 졸업수련법회 및 제3회 법화꽃 기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서울 관문사, 대전 광수사 등 천태종 소속 전국 사찰에서 220여 어린이와 50여 지도교사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천태예술제와 삼광사 순례, 교리 퀴즈, 천태 골든벨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법화꽃 기자단에게는 선박을 견학, 취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회 졸업생 136명은 12일 회향식에서 학생회에 입회하는 선서를 통해 '천태종을 사랑하는 새싹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박봉영 기자

법왕종 제3대 종정 수선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법왕종은 1월26일 울산 태화호텔에서 제3대 종정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원각종 종정 이병철 스님, 미륵불교 교령 법열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송수선 스님이 제3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2대 종정 봉암스님의 개회사, 경과보고에 이어 중앙사정원장 석호(울산 백호사)스님이 감사장을 받았다.

수선스님은 법어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종단에 산적해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중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전국 246개 사찰의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법왕종과 불교 활성화를 위해 원력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포교국장에 진각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지난해 11월 이후 공석 중이던 포교국장에 1월 28일부로 진각스님을 임명했다. 진각스님은 86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이래 해인사 승가대학·율원 졸업, 행자교육원 습의사, 월간 해인 편집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구례 수미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24교구 선운사 산중총회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현)는 1월 28일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소집했다. 총회는 19일 오후 1~4시 선운사 향운전에서 열린다.

총회 구성원은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한 24교구 재적승과 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 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인 비구, 교구 관할 말사 주지 등이다. (063)561-1422

태고종

이중 승적 의법 조치

태고종 총무원은 태고종 승적 외 타종단 승적을 가진 승려와 타종단 법의를 착용하는 승려에 대해 총무원 규정부에 신고할 것을 1월 11일 공고했다. 태고종은 공고문을 통해 "이중 승적자, 타종단 가사 착용자 등을 색출하여 종헌 종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의 이번 공고는 승풍기강 확립과 수행풍토 조성, 종풍 쇄신 등을 위한 조치로 취해졌다.

동방대 불미과 졸업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 제9회 졸업전시회가 5~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삼정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졸업예정자들이 선보이게 될 이번 작품은 주혜순 씨의 '지장탱화'(불화), '석가여래'(조형), 이원 씨의 '보상화 반자'(단청), '연꽃좌대'(조형), 최경민 씨의 '수월관음'(불화), '사령병풍'(단청), 이정석씨의 '장구머리조'(단청) 등 11점이다.

정태혁 학장은 "불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활약할 후학들이 마련한 전시회에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5일 오후 4시 열리며, 전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02)722-9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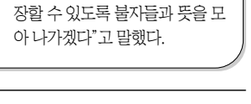
천태종

교무부 산하단체 워크숍

천태종 중앙청년회, 전국청년회, 학생회 등 총무원 교무부 산하단체 임원진 워크숍이 1월 25~26일 단양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중앙청년회 회장단, 고문, 지도위원, 운영위원을 비롯해 지역 청년회 회장단, 연리회, 학생회 지도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상견례, 신년하례,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일승종

일승불교대학 졸업식



대한불교일승종은 1월 27일 구리시 삼봉사에서 의식교육대학인 일승불교대학 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의식 전 과정을 수료한 정덕스님 등 6명의 졸업생들은 "바른 불교의식을 통해 바른 불교를 전하는 전법사가 될 것"을 서원했다. 일승불교대학은 올 해 4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원종

각원사 극락보전 낙성



마산시 진동면 소재 본원종 각원사(주지 광도)는 1월 15일 극락보전 낙성 및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대화스님, 중앙종회 의장 대운스님, 포교원장 대봉스님 등 본원종 중진스님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성지스님과 민요가수 한수옥 씨 등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주지 광도스님은 "마산지역을 대표하는 중심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자들과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시판

구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청소년 단체 운영을 담당할 계장급 경력사원을 구한다. 대상은 청소년복지 전공자. 마감은 8일. (02)723-6165

▲김해 초정리 원명사는 공양주 보살을 찾는다. 마감은 충원시까지. (055)335-6449

▲안성시 연꽃마을 감로당은 사회복지사(경력자)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을 찾는다. 마감은 충원시까지. (031)671-3677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는 8일까지 물리치료사 1명을 구한다. 30세 이하. (031)455-0551

▲원주 소쩍새마을은 40세 이하 고졸 이상 학력자로 생활재활교사를 모집한다. 충원시까지. (033)762-9870

▲서울 녹야원 순회재활센터는 15일까지 사회복지사 1명을 구한다. 분야는 재가장애인 전담요원. (02)922-2951

강좌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2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승만경, 법화경 강의를 연다. 강의는 연합회 사무실 내 연꽃법당에서 진행되며, 찬불가를 배우는 순서도 있다. (02)738-5568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은 24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3시 30분 'Yes, I can'이라는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838-1318

모집

▲서울 금천노인복지관은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보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804-4058

▲서울 능인불교대학은 제35기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개강은 3월 5일. 접수는 학기 중에도 가능하다. (02)580-7700

▲천태종립 금강불교대학은 7일까지 불교대학 수강생 접수를 받는다. 모집인원은 서울과 부산 불교학과, 중급과정, 교법사 과정 분야에 걸쳐 450명. (02)576-6401~3

▲은평구립도서관은 17~28일 도서관이 소장한 2001년 발간잡지와 일반도서를 1대 1로 교환할 사람을 찾고 있다. 1인당 5권. (02)385-1671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설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에서는 3월 11~5월27일 매주 화요일, 열리는 불교사회복지 지도자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02)734-0612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2003년도 1학기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생 모집

1. 수업시간 : 불기 2547년(2003년)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2. 강의요일 및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까지 (3시간 30분)
3. 모집인원 : 40명 4. 수 강 료 : 1인당 35만원
5. 접수기간 : 2547년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 전화접수 가능함
6.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마을버스 5분 간격 정문도착)
교학과 전화 : 02-760-4401,4003 / FAX : 02-760-4002

※ 2년 전과정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 1학기 과정 수료생에게는 사회교육원 원장 명의의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개설과목 -

교 육 내 용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교 수 진
컴퓨터 교육 · 문서작성 기초부터 문서작성과 인터넷 활용법까지 (컴퓨터 1인 1대 실기위주)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2:00까지는 종무행정 수강생 컴퓨터 자체 연습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교시 오후 1시 30분 ~ 3시 10분	1학기 15주 30시간	한완상 총장 이우범 원장 최용식 교수 황진수 교수 정진택 교수 이병은 교수 심익섭 교수 김옥권 강사 김원희 강사 이천복 강사
불교와 사회 · 성명학(작명법) · 명리학 사회와 불교와의 연관성 강의, 승려복지, 불교영어회화, 향기치료(아로마세라피), 성명학 · 명리학 등 사회계층관련 심층강의	매주 목요일 2교시 오후 3시 30분 ~ 5시	1학기 15주 15시간	
불교종무행정과 정보 · 재산관리 불교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부동산관련법 해설, 금융자산의 활용, 정보관리 등 심층강의	매주 목요일 2교시 오후 3시 30분 ~ 5시	1학기 15주 15시간	(※ 과정에 따라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가시오가피하면, 함박재



함박재를 꼭 확인하세요!
함박재농장에서 20년간 재배한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10만평의 대규모 직영 농장
▶충남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한국표준 협회 으뜸상품으로 선정
■ 국제 생약학계의 권위자 독일 바그너(H.Wagner)박사도 격찬한
"함박재 가시오가피"
(2002.7.24 함박재농장방문)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자료신청 : (02)2272-4900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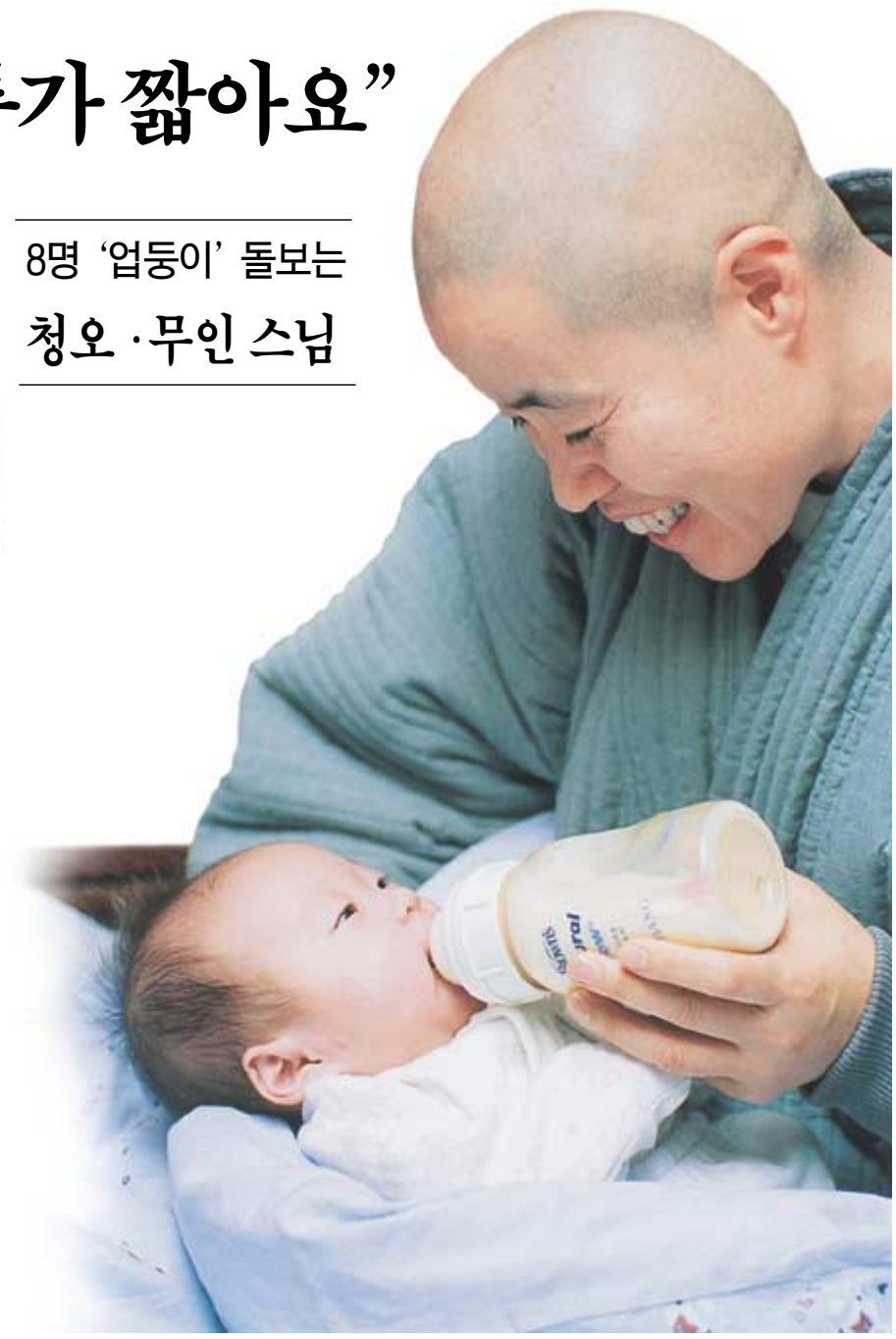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젖병소독·목욕·빨래…"하루가 짧아요"

8명 '업둥이' 돌보는 청오·무인 스님



◇윤경이가 활짝 웃는다. 스님도 따라 웃는다.



◇'윤점이의 눈물'. 부쩍 엄마소리가 늘었다.

94세 청오스님 탁발로 분유값 마련

3평 방안엔 기저귀등 애기용품 가득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수경사 앞에는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포대기는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무인 스님은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 아기지?"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은 없었다. 첫 번째 딸, 윤경이는 이렇게 수경사에 들어왔다.

일주문에 버려진 '포대기'들

식구가 늘었다. 두 살배기 아기와 열한 살짜리 소녀. 지난달 14일부터 수경사의 가족이 됐다. 이름도 새로 지었다. 윤점, 윤화. 윤점은 온 몸이 점투성이라서, 윤화는 미소가 꽃보다 예쁘다 해서. 가족이 여덟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25일에 들어온 윤경이를 비롯해 10월 6일 윤주, 10월 24일 사내 쌍둥이 윤권이와 윤수, 11월 24일 윤진이, 12월 19일 윤성이까지. 이제는 '여덟 남매'가 됐다.

"고양이 소린 줄 알고 혹시나 싶어 나가 봤더니 포대기에 둘둘 말린 윤성이가 있더군요. '누가 또 아이를 놓고 갔구나!' 일단 안고 들어와야 했지요." 무인 스님은 포대기에 얽힌 사연들을 담담히 풀어헤친다.

절로 보내진(?) 아이들은 하나 같이 작고 약했다. 병원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지만 어려운 절 살림에 꿈도 꾸지 못했다. 젖병을 무는 것조차 힘겨워 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인 스님은 우유 한 방울, 한 방울을 입가에 적셔 먹였다. 아흔의 노구인 청오 스님도 활처럼 굽은 허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는 아이들을 안아 어르며 키웠다.

"모두들 건강해 보이지요? 잘 크고 있는 애들이 고마워요. 아마도 버려진 만큼 생존 본능이 얘들을 더 악착같이 살게 했나 봐요. 끝끝내 놓지 않는 생명력에 경외감을 느끼게 됐지요. 힘든 세상에 보듬어야 할 인연들이 많아요. 버려야 할 만큼의 비정한 사람도 있지만, 끌어안아야 할 사람도 있어야지요" 노스님이 머쓱한 웃음을 내보인다.

'여덟 남매의 엄마' 무인 스님

목탁 대신 '젖병'을 든 청오(94) 스님과 무인(48) 스님. 두 스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13살 때 동진(童眞) 출가했다는 것이다. 청오 스님은 81년 전 강원 오대산 상원사에서 향봉 스님을 은사로, 무인 스님은 35년 전 의정부 대원사 하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두 스님의 인연은 무인 스님 6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오 스님이 도반이 있던 경북 청송포교당에서 처음 만났다. 스승과 제자이기보다는 부모자식 같다는 이들 스님이 '할아버지와 엄마'로 살기 시작한 것은 6개월 전부터다. 얼떨결에 하나 둘씩 거두다 보니, 3평 남짓한 청오 스님의 방은 이미 아기들 방이 되 버렸다. 염주와 목탁, 그리고 아기 용품이 뒤엉킨 스님의 방. 배냇저고리가 널린 빨래 건조대는 방 중앙에 들어서 있고, 기저귀 더미는 방 한쪽에 그득하다. 이것도 모자라, 아기 침대는 청오 스님의 잠자리까지 점령했다. 영락없는 아기 방이다.

스님들의 하루도 죄다 아기들 것이 됐다. 이른 새벽, 인근 약수터에서 약수를 길어다 우유 물 준비하는 것부터 수십 개의 젖병과 산더미 같은 세탁물까지, 스님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늦깎이로 입학, 삼선승가대 4학년이 되는 무인 스님이 오전에 학교에라도 가게 되면, 아기들은 더 울어댄다. 무인 스님 손에 익은 까닭이다. 윤화가 동생들을 어르고 안아보지만 별 소용이 없다. 그래도 청오 스님은 내버려 둔다. 무심할 정도다. "아기는 크게 울면서 커야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어"라는 말로 난감한 상황을 애써 평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역력하다. 그러면서도 청오 스님은 젖병 삶는 것부터 아이들의 목욕 물 데우기, 분유 타기, 빨래까지 아이들의 시봉(?) 만큼은 마다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을 뿐이다.

"잔정에 매달릴 수 없어요. 여덟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듬어 줄 수 없는데, 손까지 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고 어르면 어를수록 아이들을 보살피기가 더 힘들어져요."

반면, 무인 스님은 '극성 엄마'다. 적어도 청오 스님이 보기에는 그렇다. 윤경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쌍둥이 형제 윤권이와 윤수의 뺨에 뽀뽀세례를 퍼붓는다. 이뿐만 아니다. 새로 법당을 짓느라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 2만원이 넘는 고급 분유에 영양제까지 타서 먹인다. 그럴 때마다 청오 스님의 꾸중은 더해지지만, 엄마의 자식 사랑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얘들이 예쁜 짓을 해요. 먹물 옷을 입고 있어 세속적인 인연과 거리가 있겠지만 정이 가는 것은 사실이예요. 아마도 전생부터 모자의 인연이어서 이곳으로 왔나 봐요."

'아이를 두 번 버릴 수 없다'

무인 스님은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도 늘었다. 먹고 입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점이와 윤화를 받을 때, "여덟은 자신 없어요."라고 말했다가 청오 스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터였다.

청오 스님은 단호했다. "한번 버려진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두 번 버리라고요? 그러려면 얘들을 다 버리세요."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라고 이름도 새로 지어준 스님이었다. 분유가 떨어지면 아흔의 노구를 이끌고 추운 거리에서 탁발까지 했던 스님이었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 예요. 받을 것을 받고 있을 뿐인 거죠. 아이들이 울면서 우리에게 염불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절 앞에 버려졌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수행의 일부분이라는 두 스님. 이 아이들이 건강한 젊은이들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두 스님은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다.

■후원계좌:우리은행 019-054705-02-020(예금주 김진우) (02)359-5467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여덟 남매의 엄마', 무인스님. 젖병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엄마다.



◇노스님도 자고, 업둥이들도 잔다. 한바탕 아기들과 '목욕전쟁'을 치르고 나면 벌어지는 풍경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생활공동체로 생협 자리매김 시급

시작과 현재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데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생산자와 연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조합이라는 형태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문화와 교육의 영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기도 한다.

70년대 이후 가톨릭 농민운동을 이끌어온 박재일 씨를 중심으로 86년에 설립된 '한살림'을 비롯, 현재 국내 생협은 2002년 말기준 119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불교계 생협은 98년 외환 위기에 의한 경제 한파로 귀농이 사회적 대안으로 부각되자 첫 움직이 시작됐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생협이 귀농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연결된다고 판단, 9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 특판에 이어 서울 용화사에 최초의 매장을 개설했다.

99년 4월 불교도농공동체운동본부준비위원회 발족과 99년 9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으로 불교 생협은 경기도 시흥에 물류창고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됐다. 그리고 2003년 1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부천 석왕사 등 7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불교생협운동본부 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됨으로써 법인체로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모습을 갖췄다.

중요성

생협은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로 먹을거리 공동구매를 위한 지역모임 형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과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로 묶어준다. 또한 조합원들이 민주적 공동체라는 대화의 광장을 만들 수 있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문제점

불교생협본부는 30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99년부터 시흥 물류창고를 이용해 생협운동을 해왔지만 현재 한달 총 어려움이 따른다.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합원 수 증가가 필수다. 즉 조합원이 많아져야 대량 구입 및 소비가 가능해 배달에 따른 물류비용 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도 생협이 당면할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실상사유기농업작목반과 남원의 남농영농조합 등 전국의 귀농 회원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불교생활협동조합의 현주소



전 망

불교생협본부는 올해 매출 확대 사업으로 도심사찰이나 포교당을 중심으로 올해 2~3개 매장을 개장한다. 또 불교계 언론과 생협 운동에 대한 공동프로젝트를 선정해 생협 운동과 생명운동이 지향점을 밝히고, 사찰과 종단과의 연계를 이루는 기회로 삼을 생각이다.

월 1회 정기적 조합원 교육 실시, 연 1회 생협학교를 개최해 활동가 양성, 생산지 방문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히기 등의 교육활동도 준비 중이다. 월 1회 생협신문 발간, 7월에 시연 예정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개별회원 확충 보다는 매장형태로 운영되는 사찰별 생협준비위원회의 개별 법인화 유도를 통한 회원확대 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 근교의 토지를 임대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강원도 정선 지역에 있는 집을 활용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체험장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또 가칭 '우리쌀살리기 불교운동본부'를 조직해 유기농식 확산과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순환적 전국조직화'를 통해 지역간의 네트워킹을 이용한 조직강화도 구상 중에 있다.

한살림이 계획 중인 학교급식도 불교생협본부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유기농산물이 가격은 높지만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측면을 부각시켜 학부모들의 의식만 변화시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쌀라면이나 떡국 등 가공품 판매도 매출 신장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 것은 원료 생산자보다 가공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 생협 본래의 의

도심사찰·포교당 중심 매장 증설 계획
우리쌀 살리기 운동본부 조직연대 강화

인식 부족·아직은 비싼 가격 걸림돌
조합원 늘려 생산 – 소비자 연계해야

는 의료 등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및 단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을 비롯해 도토리방과후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발기인이 된 '마포두레생협'도 생협의 의미를 더한다. 즉 생협의 활동 범위가 생활재의 이용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공동육아와 지역내 작은도서관만들기, 무료법률상담 등 공동체적인 관계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생협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친환경적인 유기농산물을 다름으로써 불교의 생명사상을 담을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을 개발

매출액은 6천여만 원 정도. 순수익 8%(480만원)에서 상근 인원 3명의 인건비와 물류비용을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한살림(조합원 6만590명, 연 매출액 3백7십여 억원)과 비교할 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생협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도 생협운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불교생협본부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쌀의 경우 20kg에 7만8천원 선이다. 일반 쌀 20kg이 4~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3~4만원 정도 비싼 가격이다. 쌀 외에 다른 품목도 일반 농산물보다 20% 정도 비싸 도시 저소득층이 구매하기에는

을 소비하려면 약 1만 가구 가량의 소비자가 조직되어야 한다. 물론 불교생협본부를 통해 다 소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합원의 확대는 절실한 문제다. 개방농정이 심화돼 상당수의 농민들이 유기농생산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

이일형 불교생협본부 상무이사는 "불교계에서 생협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불자들의 인식 부족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를 희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윤형근 한살림 상임연구원은 불교생협본부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 "불교생협은 사찰과 신도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일반 생협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사찰을 거점으로 하는 사찰 단위별 생협과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연계하는 지역 단위별 생협 조직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순히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수준이 아니라 발우공양 정신 등 불교적 의미를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말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노귀남
불교포럼 실행위원장

아우에게

꺼져가는 북한어린이 돕기위해 우리 '간절한 희망'을 만들어 보자

그 해 겨울 기억나? 커서야 알았지만, 아버지가 내린 마지막 승부였지. 공장을 돌리기 위해 셋돈마저 빼고, 우리는 공장 옆에 달아내 지은 두 칸 집으로 이사를 갔지. 얼음이 광광 어는 부엌이 끔찍했지. 고무장갑도 없이 설거지하는 일이란…. 철없는 불평이었어.

방송에서 북한 어린이 400만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다 죽게 됐대. 그때 집이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야 추위와 싸운다는 게 실감나? 평양에는 아파트에 사는 집도 난방이 안 된대. 배관은 얼어터진 지 오래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형편이 좀 낫다는 게 침대에 비닐박막을 치고, 그 속에 온 식구가 불어서 체온으로 잠을 청한다는 구나.

지금 북한 핵문제로 온 세계가 시끄럽지. 북한에 공급하던 중유를 지난 연말에 중단했잖아. 화력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니?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며 군과 민을 동원해 곳곳에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지었다지만, 한강도 어는데 이 겨울에 발전이 되겠니? 변방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깡으로 냉방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 앞이 캄캄하구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장남수 교수는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율이 방글라데시보다 높다고 했어.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가 작성한 '2002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보고서'에서도 현재 5세 미만 어린이 1백만 명 중 2/3 이상이 급성호흡기 감염증, 20% 이상이 설사병으로 고생한다는군. 95년 이후, 설사병은 30%,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25% 정도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8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우야. 가물거리는 그들의 눈빛을 생각해 봐. 북미 관계의 정치적 실랑이는 그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구나. 지난해 9월 20일, 미국 부시 정권은 국가안보전략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선제공격을 정당화한 조치를 했다지. 말로는,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과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데, 북한이 믿으려 하겠어? 전쟁을 북한이 무서워하지. 그래서 북미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평화협정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또 남북의 휴전관계 청산은 왜 안 되는 거야. 복잡해. 53년 7월 휴전은 작전권을 가진 유엔사와 이뤄졌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은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 북미 평화협정이란 한반도의 군사적 역학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게 되지. 미국이 주도권을 포기하겠니?

아우야,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겠지? 고래와 명태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아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 가는데 구경만 할 수 없잖니?

아우야, 신문과 방송은 북한 아이들아사 위기란 말에 별로 움직이지 않구나. 그래서 전자 메일에 눈을 돌린다. 촛불시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 민족미래 북한아이들에게 열기와 빛을 보내는 거야. 인터넷 매체는 우리가 주인이야.

여유가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아버지 말씀 생각나? 이건 마음이야. 북한아이 돕자고 메일로 띄워. 릴레이 메일이 되도록 이웃과 친구들에게 말해 줘. 북한 돕기 사이트를 찾아 게시판에 올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얼마를 떼서 내어라. 눈물이 말라붙은 아이, 눈망울을 우리 아이들처럼 생각하며, 간절한 희망을 만들어 보자구. 너도 건강 조심하여라.

활인천역자(活人天役者)의 오행(五行) 능력을 단번에 고차원으로 인도하는 육임서(六壬書)안내
- 사주(四柱) 10년을 공부해도 육임(六壬)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값2,500,000원 부록·비디오 全12권
활인천역자의 필수서! 귀신·산소탈·부정빌미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그 해소 법이 구체적으로 체출되어 있는 비기서! 이 책은 3년간 정확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책은 공부않고 볼 수있고 시간만봐서 말하는 책입니다. 넉넉한 살림이 들어있습니다.

육임신수비결 값250,000원 全753페이지
아주 쉽게보아, 큰행사에나 참례하는 잠자는 많은 신도들을 1년내내 깨어있게 할 수 있는 정확한 비서! 정초에보아, 신도카드에 붙여두고 개개인의 월별 길흉에 따라 직분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서! 이 책에도 살림살이가 들어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값300,000원 全1163페이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각 주요도시에 설치한 「육임학당」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육임공부의 정통서! 쉽고, 체계적으로 되어있어 독학할 수 있도록 된 보고장서! 특히 「형이상법(形而上法)」 편이 백미입니다.

육임인비디오강의 값900,000원 全28개
「육임학당효사숙」 제1기 강의가 편집없이 그대로 수록된 육임 이정표! 「육임강의록」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희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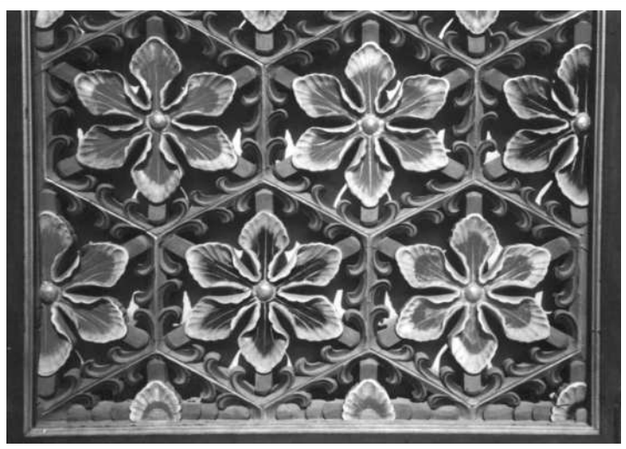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CD 값2,000,000원 全12개
온(전화) 시간만 툭 치면 수정보완본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순서 시간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효사육임인터넷강의 값1,500,000원 총112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육임 공부가 될수있게 하였습니다. 활인천역자의 가장 값진 투자가 될것입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강의안내
3개월 52시간 수강으로 육임비술을 자신있게 펼칠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효사육임강의록」 교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기적으로 강의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주문,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도서출판 복문

卍 동신전통목공



사찰문전문
대표 백영목합장
경북 김천시봉산면태화동 523번지(직지사검문소 위)
전 화:(054) 432-1312
공 장:(054) 432-8121
휴대폰:011-535-7000

주요 공사사찰
직지사.봉암사
각화사.대승사
해인사(구광루,선원)
출서사.윤필암김용사.법주사
운문사.봉녕사용문사.
서광사(캐나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찾아오시는길
↑추풍령I.C
동신전통목공
1Km
← 직지사
직지사 검문소
김천시내 ↓

직장직능단체 활동 자체 분석 · 평가

조직 효율화 · 새사업 자료로

선재마을의료회 **진료활동 계량화… 환자추이 파악**

세무사불자회 **상담 유형별 분석 효과 극대화**

광주불교산악회 **산행법회 체험을 여행정보로**

최근 들어 일부 직장 · 직능불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이들 자료를 조직 운영 효율성 극대화의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종 직능불자회의 경우, 연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활동 상황을 통계 수치로 계량화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근거자료로 삼고 있다.

직장 · 직능불자회가 이 같은 활동 평가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1회성 단발 사회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활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또 짜임새 있는 조직 운영으로 사업 목표의 합리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올해로 5년차 사업에 들어간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 이하 의료회)는 대표적인 사례다. 99년 창립부터 의료회는 일 주일 단위로 실시되는 서울 봉은사, 서울역 무료진료 활동상황을 통계 수치로 축적하고 있다. 소식지 발간과 자체 홈페이지(http://www.seonjae.com)를 통해 공개되는 활동 통계는 진료내용 분석, 진료과목 비율, 계절별 진료환자 추이 등 그동안의 흐름을 손쉽게 짚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신규회원의 가입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얻고 있다. 120여 명의 전체 회원 가운데 40%가 체계적인 평가제도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으며, 현재 의료회 무료진료 봉사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98년 8월에 창립한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경숙, 보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리회가 지난해 12월까지 '무료투약 7만 명 달성'을 기록한 사례는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리회는 매주 실시한 활동내역을 통계 수치로 축적, 탄탄한 조직 운영 노하우를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같은 활동평가는 2001년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단체로 선정돼 예산까지 지원을 받게 했다.

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는 무료 세무상담 내용을 불자회 홈페이지(www.buddhatax.com)에서 상담사례로 자체 분석해 상담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는 산행법회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자체 분석해 여행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 김광수 회장은 "활동 평가는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대외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평가활동은 다른 직장 · 직능불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조직 운영의 좋은 사례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선재마을의료회가 매주 일요일 서울 봉은사내 '작은병원'에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는 모습.

우리불자회는요

사법연수원 다르마 법우회

'붓다의 법'과 '세속 법', 이 두 개의 법(法)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다르마 법우회 회원들입니다. 세간사 인연들을 두 개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들만의 특혜라 할 수 있지요. 그 만큼 청년 불자로서 자부심도 크답니다. 우리는 사법연수원 제33기 다르마 법우회입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연수생들 간의 신행모임이지요.

창립은 올 4월에 했습니다. 식구들은 33명, 다들 독실한 불자죠. 사법연수원 33기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운해 하는 멋쟁이들이랍니다. 참 기수가 뭔지 잘 모르시겠군요? 사법연수원은, 기수별로 커리큘럼은 물론 학회에서 동아리 활동까지 모든 일이 이뤄진답니다. 우리 법우회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제33기 다르마 법우회'라고 불리지요.

조계사 · 노인복지센터서 무료법률상담

'연수원' 봉사기관에 불교회 포함 추진



◇지난해 12월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라를 찾아,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다르마법우회 회원들.

공부벌레들이 제대로 신행활동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닙니다. 한달에 두 번씩 일산 정혜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찬불가도 배운답니다. 이뿐인가요? 지난해 여름에는 송광사에서 여름수련회까지 갔다 왔답니다. 내친 김에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불교 성지순례도 떠났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보다 간절한 마음에서 알고 싶어 찾아갔었지요. 룸비니(탄생지), 부다가야(성도지) 등의 4대 성지, 발람푸르(기원정사가 있던 곳), 라지기르(영축산) 등 나머지 4대 성지까지. 현지 여행사 직원이 그러더군요. 우리처럼 짧은 기간에 8대 성지를 완벽하게 순례한 적이 없다면서 혀를 내둘리더군요.

우리 법우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사찰 무료법률상담 활동입니다. 상담활동의 출발은 이랬답니다. 그동안 연수생들의 상담활동은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서만 이뤄졌지요. 그런데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사찰에서는 왜 안 될까?' 우리는 곧바로 사찰도 포함시켜달라고 연수원측에 요구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지난해 8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나갔지요. 막상 법적인 자문을 하러 갔지만, 오히려 4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답니다. 상담내용은 다급했지만, 마음에서 묻어나는 불자님들의 넉넉함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우리 법우회는 서원했습니다. '법률지식만을 가진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가슴 따뜻한 불제자'가 되기를요.

우리 법우회는 올 가을에도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펼칩니다. 법우들이 뜻을 모았지요. 또 내년부터 불교관련 기관을 아예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상의 사회봉사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할 겁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제도화하는 것이지요. 엄청난 공부에 쫓기는 연수원 생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은 우리 법우회의 신행과 사회봉사활동에 지장이 많지요. 하지만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 새도 없다'고 하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불제자가 되기. 우리 법우회의 서원입니다.

■송진욱 총무

대구 서부경찰서 법우회 신년 포교전진대회 개최

"보살행 실천 경찰불자상 세우자"

◇'경찰불자들의 포교전진 다짐.' 지난달 25일 대구 서부경찰서 법우회(회장 김덕수)가 대구 대영 웨딩부페 3층에서 신년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경승실장 원각 스님, 서부경찰서 이재만 서장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대회에서 김덕수 회장은 "참다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경찰불자상 확립을 위해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구= 박원구 기자



우리 모임에선

광주불교산악회, 가야산 산행법회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는 9일 경상남도 합천 가야산에서 산행법회를 봉행한다. 4시간 여의 산행에 이어 가야산 정산에서 열릴 이번 법회에는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62)384-1008

세무사불자회, 현각 스님 초청 법회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는 20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법회에서 불자회는 신년 사업계획의 추진 일정을 논의한다.

광주시 서구청 불자회, '반야심경' 강좌

광주광역시 서구청 불자회(회장 이진우)는 6일 광주 무각사에서 담양 정토사 주지 혜광 스님 초청, <반야심경> 교리강좌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광주지방국세청,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회가 공동 주관한다.

단체장



장곡스님 초청 정기법회

곽무영 대전광역시청 불자회 회장은 6일 오후6시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갑사 주지 장곡 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안정사서 정기법회 봉행

이정환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 회장은 20일 오후 7시 서울 왕십리 안정사에서 총무 벽산 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서광사서 창립 2돌 법회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 회장은 1월 28일 춘천 소양로 서광사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신년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법회경 교리강좌 봉행

윤주화 한국은행 불교회 회장은 7일 본관 1층 시청각실에서 서울조계사 백남석 법사 초청, <법화경> 교리강좌를 봉행한다.

밝은 정성, 맑은 햇살로 빚은 금강경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 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주문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주1말 6kg 57,000원

●연락처 : H · P 011-203-6567,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 서울 02)742-0172 / 부산 054)514-3566 /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 대전 042)862-8638 / 창원 055)299-5419 /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 광주 062)681-3268 / 강릉 033)642-0987

佛紀 2547년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계미년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전화 055)342-6630, 6639
055)345-9900
팩스 055)346-2179

영가천도「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 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567-6822

학점은행제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3학년도봄학기불교교육과정수강생모집안내】

모집과정

과정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양불교	불교란 무엇인가?	Ⅰ	최종석	1학기	주 간
		Ⅱ	차차석	1학기	주 간
	참선수행	Ⅰ(참선법의 이해와 실제)	인환스님	1학기	주 간
		Ⅱ(참선공안의 참구와 실참)	인환스님	1학기	주 간
불교연구	경전연구	화엄경	권탄준	2학기	주 간
	불교한문	육조단경	심재동	2학기	주 간
	한문해석법	大學, 中庸	심재동	2학기	주 간
	논어강독		이종찬	2학기	주 간
불교전문	불교전문교육	선사상	인환스님	5학기	주 간
		정토사상	최종석		
		경전강독(Ⅱ)	류승주		
		화엄사상	권탄준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명대	2학기	주 간
문화 · 예술	불교정통꽃꽂이		정진희	2학기	주 간
	전통사경(寫經)		김경호	4학기	주 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불교전문교육과정은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에 한함)

원서교부
■ 기간 : 2003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 접수 : 사회교육원 교학과(학술관 1층)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1매
■ 불교전문교육과정 : 주민등록등본과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각 1부 추가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02) 2260 - 3728~9 / FAX : 02) 2260 - 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ac.kr/~soedu

조원창씨 박사학위 논문

"일본 최초의 절 비조사 백제 造寺工이 세웠다"



◇6세기 후반 부여 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사진 왼쪽)과 7세기 초반 일본 테이린지(定林寺) 출토 와당. 연판에 비해 자방이 현격히 작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부여 출토 원형·삼각돌기식 와당과 비슷
"금당 이중기단 방식 백제양식으로 봐야"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당시 야마토(大和) 정권의 실권자였던 소가(蘇我)씨의 요청으로 588년(백제 위덕왕 35)에 백제에서 조사공(造寺工, 건축기술자), 와박사(瓦博士, 기와 굽는 장인), 화사(畵師) 등의 장인이 건너갔고, 이들은 이듬해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데라(飛鳥寺)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백제에서 건너간 장인들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갔을까?

조원창(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책임연구원)씨의 최근 박사학위(상명대 사학과 한국미술사전공) 논문 '백제 건축기술의 대일전파(기단축조와 제와술을 중심으로)'는 단편적인 존재만 알려졌던 조사공과 와박사의 실체를 고고미술사적인 접근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스카데라에서 주로 출토되는 원형돌기식과 삼각돌기식 와당은 588년 백제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와박사들에 의해 제작됐으며 이들은 백제 도읍인 부여지역에서 활동하던 장인들이었다.

아스카데라 출토 와당은 원형돌기식과 삼각돌기식 와당의 구분 없이 연판에 비해 가운데 자방을 현저히 작게 표현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는 6세기 후반 부여지역에서 유행하던 와당 문양으로 같은 시기 공주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스카데라의 와당은 이후 창건된 일본의 여러 사찰에 영향을 미쳐 원형돌기식 와당의 전통은 호류지(法隆寺) 테이린지(定林寺) 등에서, 삼각돌기식 와당은 사까다지(坂田寺)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스카데라의 와당이 백제의 와박사에 의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판의 수나 자방의 연자 수 등 세부 문양은 판이하게 다르다. 조 씨는 "이는 결과적으로 백제 와박사들이 와범(瓦范)을 가져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당시 백제의 와박사를 기존 제와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무리와 새로운 제와술을 도안하려는 무리로 양분했을 때 일본에 파견된 와박사들은 기존의 보수적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안하기 위해 떠난 선구자들로 생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 씨는 기단을 이층으로 쌓는 이중기단 방식이 고구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아스카데라 금당 양식을 고구려로 봤지만 백제 양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스카데라가 창건될 당시 고구려에서의 조사공 파견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않는 반면 백제의 조사공 파견은 <일본서기> 등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아스카데라 발굴 당시에는 없었으나 최근 백제의 이중기단이 부여 능산리 절터 등 옛 사비지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이중기단은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파되었고, 이를 발전시킨 백제의 조사공들에 의해 일본에 전파됨으로써 아스카데라 동·서 금당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후 창건된 호류지(法隆寺), 타이호우지(大鳳寺) 등의 주요 건축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선실록 불교사료집 완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9년간 작업

12일 기념학술세미나

1893권에 이르는 <조선왕조실록> 중 불교 관련 기록들만 모은 <조선왕조실록 불교사료집>(전 24권)이 곧 완간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 스님)은 지난 97년 태조에서 중종 초까지의 기록을 13권으로 묶어 발간한 데 이어 철종 때까지의 나머지 기록을 정리한 11권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배불정책 등 방대한 양의 불교관계 사료를 수록하고 있어 조선불교 연구의 기초 자료. 하지만 실록 가운데 흩어져 있어 실제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9년여 작업 끝에 사료집을 완간한 불교문화원장 법산 스님은 "정확한 우리말 번역과 주석을 곁들인 순한글 역주본이다"며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은 조선불교 연구의 이정표를 세우는 새로운 자료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연구원은 사료집 발간의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와 출판기념회를 12일 오후 2~5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가 '조선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 이봉춘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왕조실록을 통해 본 왕실불교'를, 김승호 교수(동국대 국어교육과)가 '불교 사료의 국문학적 의의와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권형진 기자

대중문화속에 드러난 미국인 불교인식 '무지'

이종권씨 지적

최근 문제가 됐던 할리우드 영화 '007 어나더 데이'의 마지막, 불상 앞에서의 정사 장면은 의도적인 한국불교 비하인가, 무지의 소치인가?

미국 캔자스대 한국어 강사인 이종권씨는 격월간 대중 불교문화지 <불교와 문화> 1·2월호에 기고한 '007 어나더 데이와 미국의 불교'에서 "대중문화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인의 불교 인식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지'이다"며 "이번 '007'은 그 무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잡지 <트라이시클>(1998년)에 수록된 '미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상식'을 보면, 불교에 대한 무지가 생각보다 넓다. 'Buddha'를 'Buddah'라고 표기하는가 하면 "모든 불자들은 대머리"이며 "사원에서 생활한다"고 알 정도다. 미시간 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는 도날드 로페즈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이 씨는 "불교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음은 여러 가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미국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진실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미국 종교학회 '한국불교분과' 개설

11월 정기학술회의, 해주스님 등 주제 발표

회원 수만 8천 명이 넘는 매머드급 학술단체인 미국종교학회(AAR)에 '한국 불교' 분과가 개설됐다. 불교학연구회장 해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1월 27일 "올 11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국종교학회 정기학술회의에 '한국불교' 분과가 개설돼 국내 학자 4명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중국, 일본에 비해 덜 알려진 한국불교와 사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자격으로 발표하거나 국제원효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학자들의 제안으로 '원효학 분과' 등이 개설된 적은 있으나 국내학회의 제안으로, 한국 불교의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서 기대를 부풀게 한다. 비교적 잘 알려진 원효와 지눌을 제외한 것도 그 같은 이유다.

해주 스님이 '신라 의상의 화엄법계관'을,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한국 민중불교운동의 의의와 반성'을, 김복순 교수(동국대)가 '서학승이 신라불교에 끼친 영향과 특징'을, 윤원철 교수(서울대)가 성철 스님 관련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불교공예(7)

화려한 꽃물결

몇 년 전, KBS TV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일본의 유명한 요정인 메구로가조엔(目黑雅敍園)에 보관 중이던 칠기 장식이 낡아 부산에 살고 있는 전용복이라는 나전장에게 의뢰하여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 칠기 장식은 조선 나전장이 만든 우리의 문화재였다. 나전칠기 하면 고려가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였는데,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나전기술로 외국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나무에 옻칠을 하여 만든 악기는 이미 원삼국시대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그런데 칠기에 조개조각을 다듬어 붙이는 나전칠기는 통일신라시대에 와서야 가능해진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청동나전단화금수문경(국보 140호, 호암미술관소장)이 이러한 역사를 실증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나전칠기가 화려하게 꽃피운 때는 역시 고려시대이다.



◇나전국당초문경함(13세기, 일본 교토 개인소장). 고려시대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조개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함이다.

나전국당초문경함(螺鈿菊唐草文經函, 일본 교토 개인소장)은 고려시대 나전칠기를 대표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함은 세로 25㎝, 가로 47.3㎝, 높이 25㎝의 아담한 크기이다. 조선시대 함과 비교해 보면 뚜껑의 모서리를 경사지게 마무리한 점이 독특한데, 이는 고려시대의 함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이다. 양쪽 옆구리에는 손잡이 장식이 달려있고 앞에는 자물쇠를 채우는 장치까지 보인다.

나전칠기의 묘미는 조개껍질의 작은 조각을 조합하여 빛나는 큰 형상을 이루어 내는 데 있다. 그런데 이 함의 옆면을 보면 어떤 흐름이 연속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9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국화꽃이 위아래가 어긋난 모양으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고사리 모양의 잎이 빽빽하게 난 S자 모양의 넝쿨이 여울을 이루고 있다. 꽃잎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꽃물결이 함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13, 14세기 고려문화가 화려한 장식의 극치를 이룬다고 하지만 이처럼 섬세하게 장식된 나전의 무늬를 바라보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어떻게 조개껍질의 조각을 끊고 다듬은 솜씨가 붓으로 그린 것보다 더 정교할 있을까? 이 함은 나전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송나라의 사신 서긍(徐兢)은 12세기에 고려에 와서 당시의 풍속을 기술한 <고려도경>에서 나전칠기를 '세밀하고 귀하다'라고 표현하였는데, 만일 이보다 더 정교한 13, 14세기 나전칠기를 보았다면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해진다.

나전국당초문경함 고려 대표적 칠기
조개 다듬은 솜씨 붓그림보다 더 정교

이처럼 화려하게 장식한 함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일까? 이 의문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나전국화문경함(12세기, 일본 중요문화재)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이 함은 앞의 나전국당초문경함과 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데, 뚜껑 윗면에 나전으로 새겨진 직사각형의 제첨에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바로 불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나전으로 이처럼 섬세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함을 만든 것이다. 이 함만 보더라도 고려인이 대장경에 대하여 얼마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대장경 간행도 세계적인 위업이지만, 그것을 담은 함 역시 세계적인 예술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2년 합본집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불교시사정보, 불교상식과 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행케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또한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내 용 : 2002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1년치 (350호~401호)
◆ 판 형 : 신문 실제 판형 그대로 (40cm×55cm)
◆ 구입방법 : 전화 주문 / 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가 격 : 60,000원 (정기독자 발송비 무료)
◆ 입금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245-25-0001-461
우 리 082-03951-01-201
농 협 053-01-236053
우체국 010041-01-010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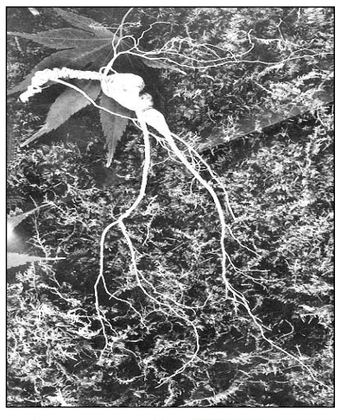
■ 구입 및 문의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에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경북

불기 2547년 경북불교대학 18기
서기 2003년 경북불교대학원 14기

신입생 모집

경북불교대학에서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불자들의 불교적 교양향상과 전법도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신적 개발을 취지로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새 시대를 여는 지혜 밝은 불자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03년도 대학 18기, 대학원 14기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 불교대학 - 1년과정 250명, 불교대학원 - 2년과정 50명
2. **입학자격** : 대 학 - 남녀 학력, 연령 제한없음
   대학원 - 본 대학1년 수료자 또는 동등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3.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사진 2매(소명함판이나 증명사진)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 원서교부 : 2002년 11월 20일 ~ 2003년 2월 20일(90일간)
   (2) 원서접수 : 2002년 11월 25일 ~ 2003년 2월 25일(90일간)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1) 본 대학 교학처(054-632-8226)
   (2) 천보당 한약방(흥천동 번개시장내)(054-631-4623)
   (3) 안양원(상망동 영주여고 옆)(054-636-8877)
   (4) 평화지업사(기독병원 건너편)(054-638-0860)
6. **합격자발표 및 입학식**
   (1) 2003년 2월 25일까지 개별통지함.
   (2) 입학식 : **2003년 3월 8일(토요일) 2시 정각**
   (3) 장 소 : 경북불교대학 강당
   (4) 입학금 : **30,000원(원서제출시 납부해야 함)**
7.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1) 시간 : 매주(대 학) - **금요일 저녁7시~9시까지(2시간)**
   (대학원) - **수요일 저녁7시~9시까지(2시간)**
   (2) 강의내용(교과) : 불교기초이론
   (경전 5교외, 불교기본적 교양상식)
8. **수료 후 받을수 있는 혜택**
   (1) 대 학 : 포교사자격증, 학위자격증
   (2) 대학원 : 포교사자격증, 대덕원효 학위증
   (3) 상의자격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부여 - 법사 등

경북 영주시 영주2동 로얄상사 5층
Tel. 054)632-8226 Fax. 054)634-6675

경기 남양주

제 9기 봉선사 불교대학 및 제 26기 봉선사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모집

교종본찰 봉선사에서는 2003년도 제9기 봉선사 불교대학 및 제26기 봉선사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고 함께 공부할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제9기>불교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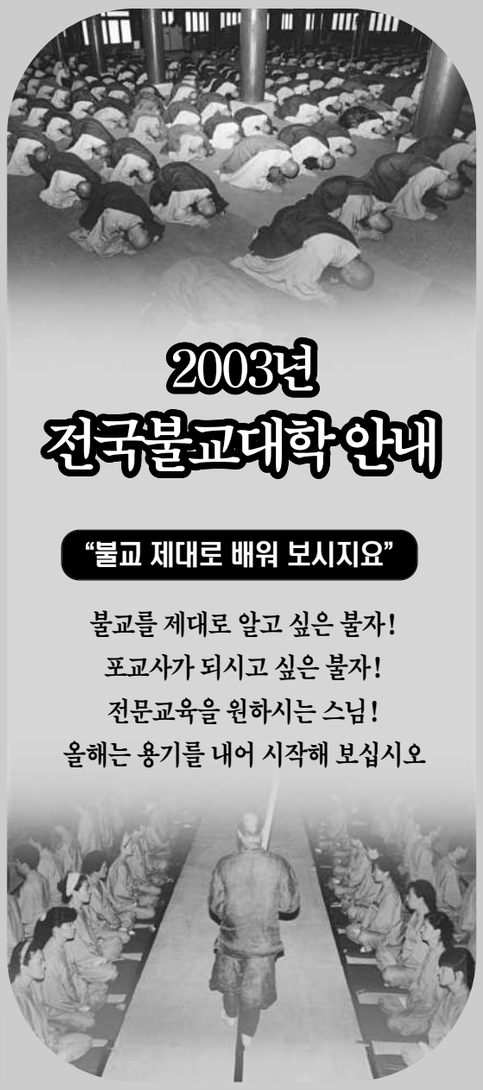
1. **입학자격** : 봉선사 불교교양대학을 수료했거나 타사찰에서 불교신도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성인남녀 불자님
2. **입 학** : 2003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3. **교육기간** : 2003년 3월 5일~12월 17일(약10개월)
4. **수 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 **교 과 목** :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천수경, 관음경, 선가귀감, 반야심경, 특강
6.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 3만원(교재 별도 구입)
   - 수업료 : 매월 ₩15,000(일만오천원)

<제26기>불교교양대학

1. **입학자격** : 불교에 관심있는 분이나 불자로써 기본교육을 원하는 성인남녀
2. **입 학** : 2003년 3월 4일(화) 오전 10시
3. **교육기간** : 2003년 3월 4일~7월 22일(약5개월)
4.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120분)
5. **교육내용** : 불자의 예법 및 사찰의 이해, 부처님 생애, 불교 기본 교리, 불교역사, 불자의 수행, 불교의 신행생활 등
6.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 3만원(교재 별도 구입)
   - 수업료 : 매월 ₩10,000(일만원)

※ **문의 및 접수처**
- 봉선사 사무실 : 031)527-1951~3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무실 비치(증명사진 첨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불교대학 · 불교교양 대학장 황일면**



2003년 전국불교대학 안내

"불교 제대로 배워 보시지요"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은 불자!
포교사가 되시고 싶은 불자!
전문교육을 원하시는 스님!
올해는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십시오

경기 고양

일산 원각사 불교대학

원각사 불교대학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과 정**
불교대학 – 초심자를 위한 교육
경전반 – 불교대학 졸업자를 위한 교육

■ **개 강**
매년 3월 첫째주 (1학기),
9월 첫째주 (2학기)

■ **교육기간** : 6개월

■ **강 사** : 정각스님
(동국대 강사, 원각사 주지)

■ **문의** : 홈페이지 www.wongaksa.or.kr
전 화 031-913-774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SBS방송국 옆

원각사 주 지 정각 합장

경기 고양

흥국사 불교대학 제2기 수강생 모집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흥국사 불교대학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분이거나 불교를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불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불자여러분들을 보다 행복한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모집기간**
불기2547(2003)년 1월~3월 1일

▣ **개강일시**
불기2547(2003)년 3월 2일(화) 오전 11시40분

▣ **강의시간** (4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40분 ~ 오후 1시

▣ **강 사**
흥국사 주지(대오스님), 동국대 차차석 교수

▣ **수 강 료**
40,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 및 접수**
흥국사 종무소 02)381-7970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도량 구파발 흥국사 주지 대오 합장

서울

제12기 (출강 · 통신)

법사 신입생 모집

12년의 역사와 전통은 한국불교법사대학의 긍지이며 최강의 교수진과 체계화된 법사교육은 신뢰와 품격으로 돋보입니다.
또한 법사의 정체성과 위상정립은 공인적격으로 인증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대법사과정 2년
2. **모집학반** : 출강반, 통신반
3.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부산 학습도량
4. **접수마감** :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Tel. 02)720-1836, 733-1959
http://pubsa.buddhism.org

경기 안양

안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부처님 정법을 배워 기도와 참회로써 올바른 생활과 양질의 삶을 위하여 대덕 큰스님과 훌륭하신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기초교리, 기도, 참선 수행법을 지도합니다.

강의일정표

- 원서마감 : 2003년 3월 10일
- 입학식 : 2003년 3월 13일
- 강의내용(8개월 과정) :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천수경, 금강경, 참선수행법
- 강의시간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4시
- 강의료 : 10만원

교 수 진

- 전 해인사 주지, 동국대학총장, 조계종 원로위원, 현 가산 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큰스님**
- 지장선원 회주, 해인사 주지 **세민 큰스님**
- 동국대학 교수 정각원장 **법산 큰스님**
- 동국대학 교수 **현각 큰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태원 큰스님**
- 동국대학 사회교육원장 **권기종 교수**
- 불자 탤런트 겸 가수 **최영준**

※ **접수처 : 대학 사무실**
Tel. 031)444-5935~6
Fax. 031)444-5655

※ **동참하실 분은 미리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불교대학장 지장선원 주지 현 호 합장

인천

인천 마하연 금강불교대학

금강불교대학에서는 불교 기초교리 및 예절과 경전 강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겠습니다.

♠개 강
2003년 3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강의내용

과 목	담 당 교 수	강의시간
선가귀감	보각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전 소쩍새마을 원장)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기초교리 및 불교예절	일 지 스 님 (마하연 포교원 주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강의시간 : 3개월

♠수 강 료 : 6만원 (교재비 포함)

♠수강신청 : 2003년 3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42-69

마하연 포교원

032)523-9910, 9911

인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가호

작법무 강좌안내

(바라춤 · 나비춤 · 법고춤 · 타주춤)

■ **교육목표** : 불교의 전통무용인 작법무 가운데 바라춤 · 나비춤 · 법고춤 · 타주춤의 교육 수련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불교무용의 아름다운 예술세계를 접하여 견고한 신심과 바른 생활인으로 거듭 태어나 인천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 의 실** : 인천 예총회관 3층(무용실) <수봉공원 내>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담당교수** : 김능화(종형)

■ **강 사** : 임산조(인산), 김대호(방추), 이준연(보문), 박미정(보현)

■ **년학습비** : 100,000원

■ **교 재 명** : 한국불교무용 총서 무보집

※ **특 전** : 수료후 성적우수자 전수생 지정, 무보 · 음악제공

※ **수강희망자는 연령과 종교 제한없음, 수시 접수함**

※ **후원회원 모집** :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후원회원을 모십니다.
후원회원님께는 전승공연시 VIP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세금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국민은행 : 208-01-0504-542 (예금주 : 한국불교 구양사)

※ **연락처** : 011)346-3389(교수스님), 032)884-8904 (구양사)
[산사음악회, 각종공연행사 문의]
http://www.buddhistdancing.or.kr
e-mail : kuyangsa@korea.com
위)402-014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4동 7-4 인천예총문화회관 (수봉공원 내) 3층

인천불교문화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가호 보존회

인천

지 선 사 불교교양대학

지선사 불교교양대학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불교 기초교리, 포교론, 영상포교, 찬불가, 경전강의 (천수경)

● **개강일자** : 매년 3월, 10월 (첫째주)

● **교육기간** : 6개월

● **강 사 진**
덕환 스님(지선사 주지)
김응철 교수님
(중앙승가대학 포교사회학과 교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2동 산 48-7
Tel. 032)545-7835
Fax. 032)543-2890

서울

선 택! 대원불교대학

"왜 대원불교대학인가?"

- 30년 전통(불교계 최초설립)
- 전임교수진의 책임교육
- 지도교수제 도입으로 책임교육
- 동국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교과과정 (연간 24과목 : 240강의)
- 철저한 학사관리
- 저렴한 교육비
- 신심깊은 도반과의 만남
- 불교 전통의식 실습

어렵게 발심한 불교공부 따져 보고 해야 합니다.
어려운 불교를 알기쉽게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는 특별한 기회 !

▣ **모집과정**
법사과정, 정규과정, 교양과정, 통신과정, 인터넷사이버 과정

입학상담 : Tel 02)754-1613, 773-9171
홈페이지 주소 : www.idaewon.or.kr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특수학교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요강

본 학교는 어산작법(범패 · 무용)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작법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한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1) 어산과(불전의식) : 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
2) 재가포교사반 : 독경의식, 정근의식, 예불의식, 수계의식, 법회의식, 평생의례

※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자

※ 본 학교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졸업장과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짐

■ **응시자격**
어산과 : 종헌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 **접수일자**
2003년 1월 ~ 2003년 2월 28일까지 (우편접수도 가능)

■ **면접일시**
2003년 3월 4일 (화) 오후1시

■ **문 의 처**
- 교학처 02)921-3425 교무국장 011)261-6809
- 재가포교사반 02)737-7588

■ **원서교부 및 접수처**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7번지 보타사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전북 익산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 전문교육기관 인가

2003학년도 이리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 불교학과 1년 과정
2. **교 과 목** :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수행과 실천, 비교종교론, 불교상담개론, 불교와 사회복지, 경전의 이해, 불교사상사
3. **모집방법**
   ◇ 지원자격 :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증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모집기간 : 2003년 2월 25일까지
   ◇ 입 학 금 : 25만원
   ◇ 수업시간 :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7~9시**
4. **입학일시** : **2003년 3월 5일(수요일) 오후 7시**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교무처 (Tel. 063-853-1578)

※ 특전 : 상기 과정 졸업한 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고시 자격** 취득함

우)570-030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
Tel. 063)853-1578, 854-1578

이 리 불 교 대 학

서울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 모집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체계를 세워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 학생을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란다 삼장불학원에서는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스님과 출가 희망자들을 위하여 학인을 모집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2003년 3월 3일
모집인원	무제한	무제한	30명
수업년한	2년(4학기)	경 · 율 · 논 · 선학부 각 1년	사미·사집·사교·대교 각 과정별 6개월
수업방법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 2회 출석 : 합숙교육)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 2회 출석 : 합숙교육)	매주 1일 출석수업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행하는 분	불교통신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 소지자	출가수행 및 사암 · 포교원을 운영하실 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원서교부	수 시	수 시	2003년 2월 28일까지
전형방법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포교활동을 지원 · 사찰운영 행정지원	· 법사 · 포교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을 지원 · 사암 ·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2003년 8월 국제수계 참가 자격 부여 · 출가수행, 사암 ·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기숙사입사 희망자(10명) 집중수련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김호암 스님, 남진각 스님, 혜인 스님, 김진하 스님, 김진궐 교수님, 이지행 교수님, 김익순 교수님, 서무선 박사님		

한국불교 통신대학 · 대학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 장 활 안(한정섭) 대학원장 호 암(김정수) 합장
문의처 (02)969-2410, 4918 / 팩 스 (02)964-2433

불자정보

강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실어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안내

•위치: 부산	•위치:부산	•위치:충북
•법당: 24평	•법당: 40평	•법당: 20평
•요사: 50평	•요사: 80평	•요사: 50평
•부지: 300평	•부지: 350평	•부지: 1,200평
•가액: 3억2천	•가액: 7억	•가액: 2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祖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운명철학 · 건강상담

신경통, 중풍, 심장이 약하신 분, 고혈압, 당뇨, 몸이 매우 불편하신 분을 위해 악사여래 부처님 가피력으로 약손건강 비법 봉사해드립니다.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지원빌딩 202호
02)723-0384
016)246-0384
매월 18일 악사재일. 장애자, 불우이웃 대중 공양 손수합니다. 동참하실 분

『신비의 경옥고』

▶ 수락산 암자에 정진중인 승려입니다.
스승께서 전수해 주신 경옥고를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경옥고의 효능 ※
★원기회복 ★수족저림완화 ★비염에 효능
★심한변비 효능 ★중풍예방 ★수명익수
● 중량 : ☞ 석달 분(옹기포함 7.5kg) ● 가격 : ☞ 500,000만원
● H·P : ☞ 011-669-5708 / ☎ : ☞ 0331)874-5700

포교당 안내

●위치 : 경기도 광주시내	●위치 : 서울시내(지하철역 200m)
●법당 : 50평	●법당 : 26평
●요사채 : 방2개	●요사채 : 방 1개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보증금 8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시설비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절에서 평생 사실분 모십니다

● 시주금 오천만원(부부)
● 개인은 삼천만원
● 사망시 장사, 49제, 납골봉안
● 연중 제사(4번)등 일체 무료 봉행
031)989-7515
011)795-8576

철학 수강생 모집

수강비 없음,
숙식제공 무료
(명리학, 관상학 등)
011)9769-6699
031)726-17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60평, 4층건물에 2층
● 도심속에 최고시설 완비
대량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700(월세가능)
● 시설비 : 1억 3천 중 4천만원만 받고 모든 집기류 일체 제공
인연있는 스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9315-1200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심야전기 온돌

▶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안내(토굴)

● 위치 : 자인산청화동
● 부지 : 3300평 ● 토굴 : 30평
● 가액 : 6억 6천만원
● 특징 : 건입로포장공사가 완료된상태이며 가용면적이 자인산내에서는가장넓은지역으로 남골당 살버타운으로적지입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소재
● 법당 : 30평(2층당)
● 가액 : 보증금5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 특징 : 스님개인사정으로인해 저렴한가액으로양도코져 합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105번 종점(바닷가)
● 대지 507평
● 요사채 36평
● 대웅전 28평
● 가액 : 2억 8천
011)795-1420
011)609-1106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
● 법당 20평
● 요사 20평
● 대지 120평
● 가액 5300만원
054)534-7866

천하명당사찰부지안내

● 위치: 가평 율길리 임야
● 만평, 평당 3만원
● 37번국도변 100미터
● 폭4미터이상 도로확보
011)320-4060
018)275-8801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472번지
● 대지 : 530평, 건평 : 22평 (건물형태 : 슬라브, 법당1 방 2, 후원, 산신각)
● 특징 : 풍곡계곡입구에 위치하여 경관수려함
● 가액 : 1억 7천만원(협의조정 가능)
설 · 도 포교원 033)573-2083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한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공고

● 매도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산 72-2 김 응 규
● 매수인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51-2번지 주식회사 대국 녹야원 대표이사 손원규
위 당사자간 2002년 7월 29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7번지의 7필지(22,254㎡)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및 계약불이행으로 이 부동산 계약은 해지되었음을 공고하며 이일로 인한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매수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첨언공고합니다.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춘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 시설 : 삼존불 (용신, 산신, 독성불)
● 부대시설(현장방문)
● 가액 : 5천만원
011)541-998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시청 정문 앞 4층
● 법당 : 총 42평(방2,주방,다용도실)
● 청동,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인등단 모셔져 있음)
● 가액 :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349-1586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부근
● 2층건문 45평, 법당20평, 방2개, 거실, 주방, 샤워실
● 화장실은 별도로 있음
● 도로변 근접한 최적지
● 가액 : 전세 5000만원 시설비2000만원
032)517-3001
011)9020-6037

사찰안내

● 대지 470평
● 대웅전 42평(목조기와)
● 칠성각 20평(목조기와)
● 산신각15평(목조기와)
● 요사채(슬라브) 25평 큰방 3개(거실) 주방
● 가액 3억 5천(절충가능)
※ 여수시내로 2차선 도로 절입구까지 연결
● 전남 여수시 동산동 553-1 보광사
011)254-3037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하동읍 근교 지리산 정기를 받아 물 전망 및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260평 건평 32평
● 가액 : 1억 5천 (절충가능)
011)9535-4811

포교당(급)안내

● 전남 광주시내 중심가로서 교통편리하고 덕림산 중턱에 있는 공기맑고 조용한 최고의 포교지로 적합합
● 평수 320평
1층 유치원, 2층 법당, 합 120평
● 요사채 (1, 2층 50평),별채 30평
● 가액 : 5억5천(가격절충, 전세도 가능)
011)603-84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군위면 효령면 소재지 부근
● 부지 : 570평, 법당 : 25평 요사채 : 25평
● 특징 : 국도에서 도보 15분거리 대구서 차로 40분거리
● 가액 : 1억원(답사 후 절충가능) 토지나 주택 부동산과 교환가능
011)9370-4969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부항면 마을종점
● 대지 : 370평 목조 인법당
● 건물 : 2동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우정동 3층 30평(4층건물 중)
● 방2개,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 천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월 30만원
011)9534-2848

사찰 안내

● 전철역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대지 : 38평
● 특징 : 주택가이면서 주변녹지가 있고 전원주택 같은 외관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만원
016)481-6909
019)276-2388

역학 수강생모집

수강과목 1. 역 학 : 사주, 신수, 궁합, 택일, 건강
2. 성명학 : (작명, 성명감정)
◆ 기 간 : 수시모집
◆ 강 사 : D대학 교수가 직접 친절하게지도 합니다.
◆ 교통편 : 서울 영등포로타리(지하철 1,5호선 3분거리)
성일철학 02-2637-6483 / 02-2637-5266
연구학회 011-9093-5206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 법당 : 10평
● 요사 : 20평
● 특징 : 마을뒤에 위치한 도량. 포교당으로 적합 교통, 주차편리
● 가액 : 1억
011)879-479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육호광장 옆 큰대로변 상가 2층 1층엔 슈퍼 영업 중
● 방1개, 옥상사용가능
● 예전의 포교원자리
● 가액 : 1천 500만원,월 20만원
016)9655-0144
032)233-014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중심가 (주엽대로 70m)
● 건물 : 3층 건물 중 3층(25평) 앞뒤로 아파트 단지로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7백만원(시설 A급)
031)919-0306
011)9701-060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마산에서 통영중간 지점
● 부지 : 600평, 법당 : 30평 삼포 목재 단청된 30년 전통사찰 산신, 용왕각
● 부대시설 : 요사채 50평
● 특징 : 노송이 어울려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 인접하며, 절 뒤에서 보면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2억 3천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011)9384-7893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구시에서 30분거리
● 평수 : 법당 30평 요사채 : 40평, 방 2개
● 특징 :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개울물이있고 조용하고 아늑한 곳 주차, 마당 넓음
● 가액 : 전세 1300만원, 월세없음
054)933-7737
019)802-9321

사찰토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IC에서 5분거리)
● 용도 : 준농림 5000평, 도로확보
● 가격 : 평당 100,000원
● 산세좋고 계곡이 흐르는 곳으로 사찰이나 연수원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누구든지 보면 환희심이 나는 곳임
011)9007-3173

사찰 안내

● 위 치 : 김포	● 위 치 : 논산
● 부 지 : 150평	● 법 당 : 2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36평
● 요 사 : 20평	● 부 지 : 300평
● 가 액 : 1억 5천	● 가 액 : 1억 1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관절 · 통풍 대나무시트가 효과

책의 내용
◆ 대나무의 마디가 사람의 마디(관절)를 살린다.
◆ 체내와 관절부위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시키는 대나무시트의 불가사의한 작용
◆ 관절통증부위는 폐수에 담겨있는 것과 같다.
◆ 혈액 속의 노산을 배출시킨다는 대나무의 힘
◆ 죽초액이 목초액보다 살균, 소독, 소염 효과가 약 28배~40배 높다(일본 교또대학 노무라다가야 박사)
◆ 왜 관절에는 대나무가 좋은가(동양의학의 동종요법)
◆ 많은 체험자의 뛰어난 효과 증언
3판인쇄 "수액시트 효과의 신비"
한국예술사 간행 ₩6,000 (02)925-4096

대나무 시트 전문 총판

구입자 전원에게
대나무마디 숯가루 무료증정
(체험연구자료증정)
일본 직수입 시트 100매 박스 ₩120,000
조흥은행 359-03-004847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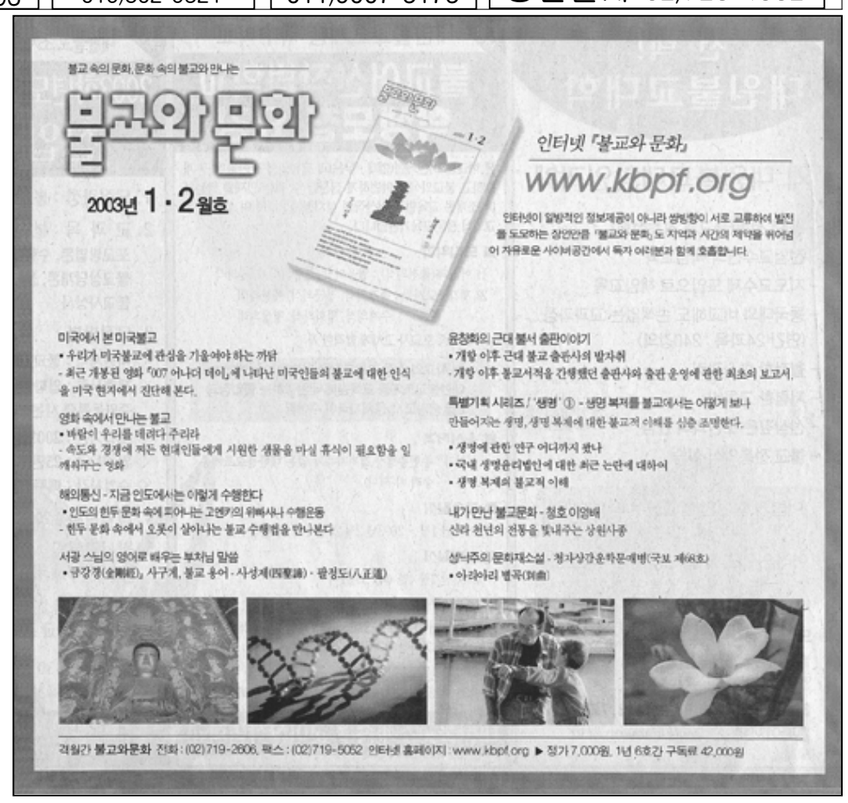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한 사병의 신춘문예 등단 사연

군 복무중 등단한 한 사병이 큰아버지인 향봉 스님 밑에서 습작을,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에게서 글쓰기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원도 홍천군 육군 화랑부대 보수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안빈(23) 일병. 이 일병은 대한매일 신문사가 개최한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당선, 시조작가로 등단했다. 이 일병은 99년 '시와 창작'에서 실시한 작품공모에서 시 부분에 당선되기도 했다.

창문두드리

방황하는 불자 미혼모 못 안는 불교계

임신 7개월째인 미혼모 김○○씨. 불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계 미혼모 시설을 찾고 있지만 그녀를 받아들일 곳은 없었다. 돌아오는 대답도 다른 종교단체의 시설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톨릭과 기독교의 미혼모 시설에서는 개종을 해야만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불교계 미혼모 시설은 대구 '자비의 쉼터' 하나뿐이다.

웜 바이러스 하나에 IT 최강국을 자부하던 나라의 인터넷망이 마비되었다. 2003년 1월 25일은 IT 최강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여실히 드러낸 날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정보화 사회의 맹점에 대해 곰곰 생각하게 한 날이다.

인터넷 대란을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 예전에 추운 겨울 날 가장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이불을 빠는 일이었다. 함지박에 담그고 하루 종일 밟아도 구정물은 계속 나왔고 짜는 일도 말리는 일도 보통은 아니어서, 빨랫줄의 이불은 볕이 계속 좋으면 사나흘, 그렇지 않으면 족히 대엿새는 걸려서야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 이불 하나 빠는 일만도 이리 어려운 일인데 세탁기와 캐시미론 이불은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일손만 덜어준 것이 아니다. 세탁기로 빨래를 돌리는 일은 남자도 할 수 있으니 가사를 공동 부담하면서 가정의 평등이 이루어진다.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여성들이 사회로 속속 진출하니 여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였던 가부장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실현을 이룬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킨 구세주였다. 반면에 세탁기는 소음을 낸다. 중성세제는 강물을 오염시킨다. 여가시간이 엄청 늘었는데도 세탁기 탈수조처럼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다. 양심과 도덕과 정의는 달리기 선수의 발목에 매달린 모래주머니에 지나지 않는다. 기계로 대체된 노동은 빨래를 하며 오순도순 나누었던 모자간의 대화를, 이불을 밟고 짜면서 부딪혔던 그 살의 부드러움을 허기진 그리움으로 바꾸어 버렸다.

인터넷이란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로 양날의 칼이다. 과학기술에 대해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성찰이 없어서일까? 우리 나라처럼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은 은폐되고 꿈같은 허상들만 난무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텔레데모크라시를 실현하여 대중의 정치참여를 고양하고 다양한 의사와 견해를 수렴할 수 있다. 반면에 몇몇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한다면 이 사회는 산업사회보다 훨씬 더 억압이 내재화한 전체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기술로도 빌 게이츠든 부시든 컴퓨터에 칩 하나를 내장시켜 전 세계의 네티즌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컴퓨터 안의 정보는 물론 우리의 비밀스런 잠자리까지도 빅 브라더가 들여다보고 그의 뜻에 어긋날 경우 'O양의 비디오'처럼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라. 텔레데모크라시는 꿈일 뿐,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마저도 철저히 감시되고 통제되는 파놉티콘의 사회로 가고 있다.

빛의 속도로 거래한다는 것은 빛의 속도로 착취할 수 있음을 뜻한다. 헤지펀드는 우리나라가 IMF사태 때 당하였듯 하루 만에 수백 억 달러를 빼내가 한 나라를 언제든 국가 부도의 위기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자동화가 지금의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만이 노동을 하고 80%가 실업의 소외와 좌절감에서 나날을 연명할 '2대 8의 사회'를 형성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정보화사회는 아주 사소한 실수로도 핵전쟁과 같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기의 사회이다.

소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다. 1월 25일은 정보화사회의 미래를 위해선 오히려 전화위복의 날이다. 국가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것도 미봉책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제라도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때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이도흠 교수
한양대 국어국문과, 계간<문학과 경계>주간

정보사회 역기능 성찰할 때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일람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법회안내
첨야정진 : 매주토요일 밤 9시 ~ 새벽 4시까지
자장재일 : 매월(월)18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 매월 첫째일요일 오전 10시
인생상담 : 조금이나마 밝고 윤택한 삶에 보탬을 가져보자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2)981-8418
02)907-1643

동두천 흥륜사 법회안내
(오전10시30분)
매월 음력 초하루 초삼일까지 신중기도
매월 음력 16일 산신기도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
매월 음력 24일 관음 인등기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번지
031)862-8229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구담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등첨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구인 구직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절에서 평생 사실분 모십니다
연령 60-70세 사이
건강하신분을 모십니다.
02)577-0007
011-9864-1095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원경사
031)641-6311
www.wonkyungsa.com

무료소개
· 비구 · 비구니 부전스님
· 40~50대의 공양주 보살
· 남 · 여 출가 희망자 행자확습
02)537-9933
011)354-8484

관음기도 도량에서
기도공부하며 한평생
가족처럼 지내실 20~30대
女행자님을 모십니다
인연이 되면 도량을
물려줄수 있음
주지. 비구스님
016)9393-9617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실
어려운 비구스님
모십니다
019-522-84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꼭 하실 분 50세이상
011)459-3282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구합니다
011-459-3282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45세 이상
011-517-6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상계동 불암산 정암사
011-254-3037

행자모집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6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무릉산 일도사
054)733-8786
054)733-4731
homepage www.ILDOSA.COM
연락바랍니다

초하루 관음재일
천도재 · 염불스님
필요한 사찰을
연락주십시요
054)433-6315

평생 함께 사실
비구 스님을 모십니다
행자도 모십니다.
▷천안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부전스님 모십니다
불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52-79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미만, 월 80만원
054)533-2133
016-9245-1155

경기도 가평에 있는
산사입니다.
포교와 기도를 전담할
스님을 구합니다
보시금은 능력에 따라 지급함
011-722-3418

건강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80만원
보너스 별도
054)744-1689
011-763-16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태화선원
041)734-1447
041)735-03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미만
041)856-7170
041)857-0621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신심돈독하고 오래 계실분
▷50세 이후
011-483-5639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용 암 사
▷서울 은평구 진과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바닷가근교
011-860-4322

스님 모십니다.
수행과 사찰을 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지역 : 충남 아산온천지역
011-701-0140

부전스님 모십니다
055)286-1779
기본 보시는 월80만원
능력에 따라 급여가 오를 수 있음.
1년 동안 부전으로 서로 뜻이 맞으면
사찰운영권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하, 사찰규모가 큼. 창원오봉사

가족처럼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사무겸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서울 성북동 여래사
011-732-6933

한가족 같이 생활하며
기도하실노보살님
모십니다
▷ 충주 무량사
043)851-4879
017-766-8513

행자모심
고졸이상, 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진학 보장
타종단 스님도 환영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분당
031)719-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011-576-2737

이전 강좌
알림 정보

부처님 삼존불 계십니다
인연있는 스님께 시주드립니다
055)973-7388

스님과 함께 하는 동양사상 2기생 모집
주역을 통한 한방역학 및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학대비 사상체질, 오행침법, 식이요법
(뜸, 부항, 침술, 민의학 강의)
길 없는 길의 비밀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 상승법"을 통해 열어 드립니다.
문의 031-256-5605 / 016-433-5605
심우선원 선불장

군 포교 불사 후원
호국 법해사
지도법사 송정스님
파주시 문산읍 문산1리 10-33
031)445-0573
011-748-6452

우울증
치료가능
031)765-0584
011-445-9126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일심사 甲寅山神大祭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납이 백두대간을 다스리는 서른세분 산신님을 봉안하고 癸未年 正月十日甲寅月甲寅日맞이 산신대제를 봉행하오니 산신님과 인연불자는 일심사 甲寅산신제에 동참하시어 새해에는 국운발전, 업장소멸, 만사형통 하시고 소원성취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2월 10일 (음 正月十日) 오전 10시
● 장소 :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1구 일심사 산신각
● 동참금 10만원을 입금하시고 016)289-1187로 연락주시면 기도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466802-04-007694 / 예금주 : 정문식)
일심사 주지 설호 합장 Tel. 041)356-1187

탈종공고
· 사찰주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678
· 사찰명 : 나원사 · 창건주 : 허일금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1월 27일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주소 : 경북 포항수 남구 대도동 14-21번지
· 사찰명 : 정토암 · 주지 : 박정혜
위 승려는 귀 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1월 30일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승복가게 인수할 분
찾습니다
부산시내 최고요지
▷전세권리비품삼5000만원
051)818-8063

탈종공고
· 사찰주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 소속 : 칠보정사 승려 · 법명 : 보 덕(박종한)
위 승려는 귀 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1월 24일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법하

생활장터

산소법당에서 기도하세요
도심법당
산소피아가
山寺의 법당을 만들어 드립니다.
JM GLOBAL 홍보이사 김광현
02-771-1095 / 011-704-5195



◇부산시 생태계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금정산 범어사 일대.

"금정산 범어사 일대 부산시 생태계의 핵"

부산발전연, 자연환경조사 중간보고

용궁사 · 태종사 일원 자연보존 가치 높아
고속철 반대 이유 입증 … 건교부 태도 주목

경부고속철 관통 공사로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부산의 금정산 범어사 일대가 부산시 생태계의 핵이라는 조사보고가 나왔다. 이와 함께 자연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용궁사 일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금정산, 백양산, 황령산, 장산, 봉래산, 승학산, 엄광산, 대천천, 춘천 및 해안지역 등 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부산자연환경조사 및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진행해온 부산발전연구원이 1월 2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중간보고회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식생의 자연성이 가장 우수한 곳은 금정산 범어사 일대로 부산시 생태계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도심생태계의 녹지배분, 연결성 등 생태적 고려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또 "해안의 자연경관도 사찰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그 보존정도가 뛰어나다. 용궁사가 있는 기장과 태종사가 있는 태종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부산시의 발표는 금정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온천수 고갈, 진동 소음 등의 주제별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지며 노선변경 운동을 벌여온 시민종교대책위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민종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범어사 도관스님은 "부산시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심내 생태계 유지 관리 복원을 위한 관리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도 부산 생태계의 핵인 금정산 파괴를 묵인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부고속철 금정산 노선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상북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계획

불교계 수탁방안 강구 시급

경상북도가 최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복지 시설 증대에 나서기로 밝힌 가운데 교세에 비해 사회복지 참여 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 불교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상북도는 올해와 내년 각각 김천과 경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곧 복지관의 운영주체를 정하는 수탁기관 선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상북도는 또, 올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2백 43억여원 중 11억 6천만원을 투입해 현재 10개소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개 더 늘려 12개소로 확충하고 5억 6천만원을 들여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을 영주 ,안동 , 청도 등지에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참여를 위한 지역불교계의 다양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각종 대구교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지역의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쏟으려 대구지역 장애인복지관 수탁에 응했으나 타종교단체의 방해로 여의치 않았다"며 "내년 경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수탁을 위해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꼭 수탁에 성공해 지역불교계가 사회복지 참여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천 노인복지관 수탁에 실패한 김천 직지사도 "이번 김천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는 꼭 수탁에 성공해 직지사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오대산 상원사 동종 재현
안동 도호부 관아터 설치

경북 안동시는 최근 안동역사를 조명하는 차원에서 시민성금을 모아 국보 제36호 오대산 상원사 동종을 재현하여 주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연내 3억 7천여만원을 들여 조선시대 안동문루(門樓)에 걸려 있었던 상원사 동종을 재현한 지름 1.6m, 높이 1.6m, 무게 2톤의 규모의 '웅부동종'을 안동 동부동 옛 안동 도호부 관아터에 설치할 예정이다.

상원사 동종은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조성되어 조선 태종 때까지 경북 안동의 안동문루에 걸려있다 조선 예종 원년(1469)에 현재의 상원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원구 기자



◇부산 삼광사가 1월28일 어려운 가족 100세대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설날맞이 온정의 손길

삼광사, 100세대에 성금 전달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은 1월 28일 부산시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0세대에게 성금 1,000만원을 보시하고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 동안 삼광사는 추석이나 설날, 부처님 오신날, 동지 등 명절 때마다 부산시 거주 소년소녀가장, 무연고 노인,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들을 선정, 연간 420세대에 4천3백 여 만원을 후원해 왔다. 또한 22일에는 부산교도소를 방문, 재소자에게 내의 100벌을 교화용으로 선물했다.

이 밖에도 삼광사의 봉사단체인 부일회, 관음회, 화엄합창단, 전통요리연구회, 금강불교대학 봉사회 등이 설날을 앞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시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천미희 기자

인용사지 · 염불사지 발굴조사

경주문화재연, 3월~연말까지 3억 투입

정확한 사역과 성격 규명이 되지 않은 경주지역 신라시대 많은 절터를 대상으로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사지 발굴계획을 발표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3월초부터 연말까지 3억원의 발굴비를 투입, 경주시 인왕동의 인용사지와 경주 남산동의 염불사지를 발굴조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1990년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240호로 지정된 인용사지는 674년, 당나라에 인질로 잡힌 문무왕의 친동생 김인문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였다고 삼국유사에 전한다. 반월성(半月城)의 남쪽인 인왕동의 서쪽 들판에 있는 절터는 대부분 훼손되어 건물터의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 탑지와 주춧돌 등이 남아 있어 전형적인 석탑 2기가 있었던 쌍탑식 가람 배치임을 알 수 있다.

또 염불사지는 정확한 창건시기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절터의 위치는 양피사지(남산동 동서삼층석탑)에서 약 800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두개의 탑중 서탑은 제자리를 지키며 무너져 있고, 동탑은 1963년에 불국사역 앞으로 이전 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박원구 기자

재가노인복지 본격추진
용호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개소

부산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본격화된다.

노인들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게 될 용호복지관 부설 용호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가 1월 29일 개소식을 갖고 2월 1일부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본격화 했다. 이로써 용호동 관내의 80여 세대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봉사원들에게서 빨래, 청소, 밑반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년의 외로움을 달랠 말동무도 갖게 됐다.

용호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가정봉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봉사원을 모집하고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간병서비스 등과 요보호 대상에 대한 관리 및 상담을 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원, 반찬지원, 김장지원, 명절 제수용품 보내기, 쌀나누기, 방문간호, 약품제공, 생신상차리기, 경로관광, 서비스, 생일 카드 발송 등의 결연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아들, 딸 노릇을 대신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환경을 생각하는 부산 불자연대' 창립

천성산 고속철통과 반대 1000인 서명 회향

금정산 · 천성산을 지키려는 불교계의 활동이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 창립,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1000인 서명 회향' 등의 결실을 맺고 있다.

금정산 ·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지율)는 1월28일 오후 4시 부산대 효원홀에서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1000인 서명 운동' 회향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맑고 푸른 시민연대 상임의장 정여스님, 윤희동 신부 등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시민대책위는 선언문을 통해 "고속철 관통 반대운동은 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29일에는 부산불교회관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가칭)' 발대식을 갖고 환경문제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천미희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 발전기금 마련
시명스님 독창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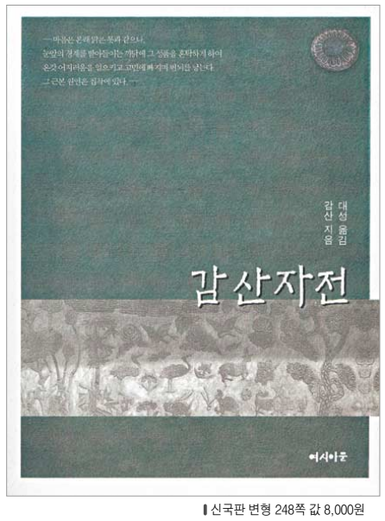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시명스님의 제5회 독창회가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명스님은 2000년 낸 첫 음반 '청산에 드는 마음'에 수록된 '부처님 마음일세' 등의 찬불가와 '내 맘의 강물' 등 우리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16곡을 불러 관중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김무한씨와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가 찬조 출연했다.

특히 노숙자 쉼터 부산보현의 집 주최로 열린 이날 공연 수익금 전액은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 지부의 봉사활동 활성화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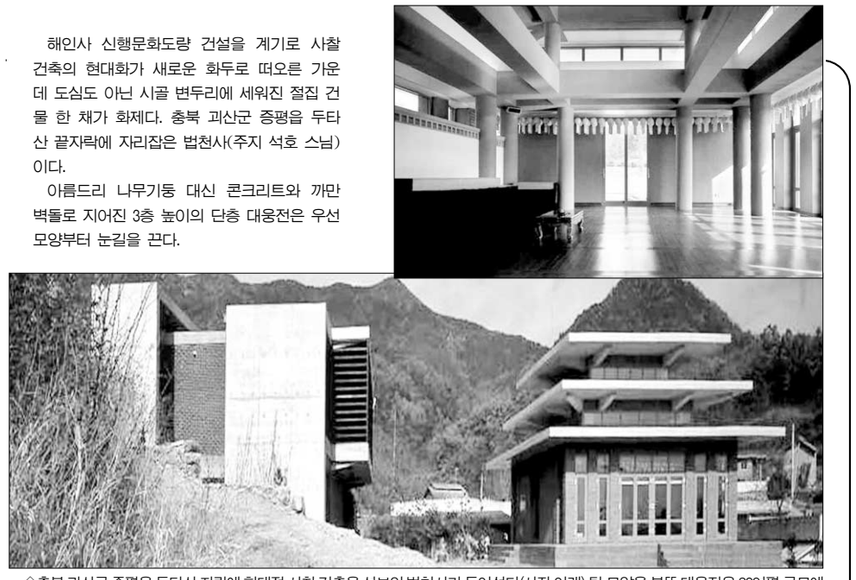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짤라 총서'(탑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충북 괴산군 증평읍 두타산 자락에 현대적 사찰 건축을 선보인 법천사가 들어섰다(사진 아래).탑 모양을 본뜬 대웅전은 30여평 규모에도 창을 열면 주위 자연까지 끌어들인 내부 설계가 특징이다(사진 위쪽).

눈길끄는 현대식 사찰 법천사

콘크리트·벽돌로 석탑형태 대웅전

화려한 문양·단청 없이도 절집 분위기

처마밑 창 통해 햇빛…자연 속에 있는 느낌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설을 계기로 사찰 건축의 현대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도심도 아닌 시골 변두리에 세워진 절집 건물 한 채가 화제다. 충북 괴산군 증평읍 두타산 끝자락에 자리잡은 법천사(주지 석호 스님)이다.

아름드리 나무기둥 대신 콘크리트와 까만 벽돌로 지어진 3층 높이의 단층 대웅전은 우선 모양부터 눈길을 끈다.

외양을 석탑에서 따온 대웅전은 화려한 문양이나 단청 없이도 절집 분위기를 훌륭하게 살려내고 있다. 후불탱화도 불상 뒤편 창문을 통해 보이는 두타산 능선이 대신한다. 불상 정면의 창을 통해선 연꽃을 닮은 앞산 자락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 김개천(이도건축 대표) 씨는 "법당 내부 규모는 30평밖에 안 되지만 앞뒤 좌우 창문을 열면 주변 경관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한정없는 크기'를 느끼게 설계했다"며 "처는 법당에 낯설어 하던 마을 사람들도 탑 형태 때문인지 이내 친숙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법천사는 지금도 법당에 모실 삼존불 조성 불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지을 산신각과 종각, 해우소도 새로운 형태로 짓겠다는 석호 스님은 "불교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나 비불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사찰 건축도 단순히 옛날 것을 모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043)838-3562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행궁+숙박시설 '院' 결합 특이형태 사찰

혜음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파주시, 사유지 매입…2007년까지 발굴

지난해 2차 발굴조사에서 임시 궁궐인 행궁과 숙박시설인 원(院)이 결합한 특이한 형태의 사찰로 밝혀진 경기도 파주 혜음사지(惠陰寺址)의 국가사적 지정이 추진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경기도기념물 181호로 지정된 혜음사지에 대해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 및 유적 정비사업을 벌인 뒤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아 보존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혜음원지는 전체 9천여 평 가운데 1천2백여 평만 발굴 조사를 한 상태. 시는 유적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한편 3월경 3차 발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부식의 <혜음사신창기>에는 고려 예종 15년(1120)~17년(1122) 개경과 남경 사이를 왕래하는 행인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찰과 숙박시설을 겸한 혜음사를 창건했으며, 국왕의 행차에 대비해 별원(別院)인 행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권형진 기자

대전 첫 불교문화재

11일 시민회관에서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불교문화제가 열린다.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과 백제불교문화대학(학장 사재동)은 11일 오후 6시30분 대전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불교문화의 연화세계'라는 주제로 불교문화제를 연다.

이날 불교문화제는 1부 법회, 2부 사재동 학장의 '불교문화학의 방향과 방법과 방법론' 서남교씨의 포교방법론 발표를 비롯 사찰순례의미 소개와 시낭송 등으로 이뤄지는 학술 및 문학발표회가 열린다. 또 3부 문화예술공연은 다라니 독송 , 불교가곡 발표, 불교무술시범, 승무, 관음향무와 도살풀이, 불교민요, 불교강창, 농악 공연 등이 펼쳐진다.

장곡스님은 "전법도량지정 이후 그 결실을 총정리하여 지역사회에 회향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불교문화창달을 위해 불교문화제를 연례행사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티베트식 수미광명탑

대원사, 낙성법회 봉행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15일 오후 1시 15m 높이의 수미광명탑(사진) 낙성법회를 개최한다.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티베트 양식으로 세워진 수미광명탑에는 2001년 티베트박물관 개관 당시 티베트 틉덴 린포체 스님이 보내준 가섭불 사리 1과와 네팔 슈얌부 사원에서 보내준 사리 3과 등이 봉안된다.

수미광명탑은 상륜부 첨탑과 천수관음보살을 모신 감실, 법당으로 구성돼 있다.

탑 내부에 설치된 법당에는 약사여래삼존불을 봉안했으며, 천장과 사방 벽면에 칼라챠크라 만다라와 영산회상도, 아미타불극락정토도등 벽화가 각각 조성됐다.

박봉영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겸손·하심…드러나지 않는 신행

해인불교경전대학 이정순 학생회장

새벽 5시, 새벽예불로 이정순(50.서상화) 보살의 하루일과는 시작된다. 집에 따로 마련된 기도방에서 벌써 10년째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새벽예불은 이 보살 나름의 정진 방편이다. 반복되는 일상처럼 변함없는 예불이지만 어떤 날은 눈물겹도록 간절할 때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 안에서 평안하길' 기원하는 이 보살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른다. 처음 100일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듯 이 보살의 신행은 소리죽여 흐르는 깊은 강을 닮았다.

참다운 불법을 알게 해준 전 해인사 강주이자 해인정사 주지인 수진스님과의 인연으로 해인정사 해인불교경전대학 학생회장을 맡은 지도 5년째.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경전공부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맡게 된 직책일 뿐, 회장이라고 특별할 것도 드러낼 일도 없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과 안내장 발송 등 작업에 바쁜 이 회장은 있는 듯 없는 듯 회장의 직분은 다한다. 매년 3월부터 3-4개월 동안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원전을 읽고 배우며 지내온 4년 동안, 이 회장의 활동은 달빛처럼 은은해서 아직도 회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다. 별도의 신도회도 없고 관음예불회도 회원뿐이니 사실상의 신도회장 역할을 해야 하는 이 회장. 한창 진행중인 1천여 평이 넘는 불교회관, 대웅전, 관음전 등의 대작불사와 사찰 대소사, 봉사활동 등을 알뜰하게 챙겨왔지만 항상 스님과 신도들 덕분이라는 겸손과 하심을 잊지 않는다.

"우리 절 신도들은 복이 많아요. 주지 스님께 경전을 배우며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안을 향해 있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않기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이다. 벌써 십 수년째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은 스스로의 정진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었고, 이제 둘로 없는 도반이 되었다. 이 회장은 새벽예불을, 남편은 사시예불, 딸은 저녁예불을 올리며 신심을 다져왔을 정도.

이 회장은 "영아원을 열어 버려진 아이들을 부처님 품안에서 키워보고 싶다"는 발원을 하며 경전 공부로 물러섬이 없는 신심을 키우고 있다.

천미희기자

있는 듯 없는 듯 사찰 대소사 처리

"영아원 열어 버려진 아이 돕고 싶어"



◇3월 개강을 앞둔 해인불교경전대학 신입생 모집을 위해 이정순 회장(맨오른쪽)이 신도들과 안내장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추천의 말

수진스님 해인정사

함없이 도리 다하는 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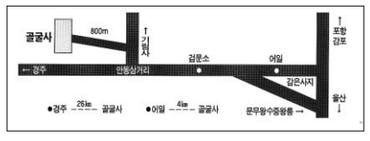
32년 출가 생활 중에 신행과 정진이 여일하면서도 결코 드러내지 않는 이 회장 같은 분을 만난 것은 큰 기쁨입니다. 일을 하고도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다 해야 할 일은 틀림없이 하는 책임감이 투철한 신도입니다. 그만큼 상을 내지 않고 일을 하므로 3500여명을 대표하는 회장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승가가 배우는 내용을 불자들에게 그대로 가리키는 해인불교경전대학 학생회장직을 맡아 신도들의 경전 공부 뒷바라지를 열성으로 하고 있으며 사찰에서 행하는 독거노인 후원, 각종 봉사활동 등에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열린 사찰을 지향하는 해인정사를 만드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방생 성지순례는 경주 골굴사로 오세요





골굴사는 1천5백년전 신라시대에 마애아미타불(보물제581호)과 12처 석굴이 조성되었으며 인도의 아잔타나 중국 돈황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석굴사원 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천오백년 미소가 중생들의 삼세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거리에 지장기도로 유명한 기림사와 오어사, 동해의 문무대왕 수중릉과 감은사지, 석굴암 등은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내에 있는 선무도 대학과 수련모습을 견학 할수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보문 관광단지를 지나 동해안의 감포 방향으로 약 26KM 지점에 골굴사와 기림사의 진입로인 안동3거리가있다. 이정표를 따라 좌회전을 하면 500M 전방 좌측에 골굴사 표시판과 일주문이 서있다. 일주문을 통과해서 700M 거리에 한국 최고의 석굴사원 골굴사와 천년의 미소를 머금은 마애아미타불이 중생들을 맞이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선기공 지도자 과정 원생을 모집합니다.
2년 수학후 총장명의 수료증과 본 협회의 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교학과 [서울]02-2260-3782 [경주]054-770-2554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강이 가능합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 받습니다. (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본 협회 산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삽시다. 프로에서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 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흥덕사지

성보(聖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전국에 산재한 국보급 불교문화유적을 살피다보면 대부분 성보의 주인공으로 고승들의 화려한 명성을 쉽게 접하게 되지만, 정작 그 성보를 만든 이름 없는 도공이나 석공의 수고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가게 마련이다. 성보의 문화재적 가치가 그 유적이 담아내고자 한 단순한 시대적 동기에 있다기보다, 유물 그 자체에 아로새겨진 기술과 공력의 가치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평가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읽는 성보의 올바른 독도법(讀圖法). 씨줄뿐만 아니라 날줄의 위치에서도 국보 유적의 겉과 속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진정한 폐사지 탐험의 안목이다.



◇흥덕사지에 새로 세워진 금당과 석탑.





세계최초 금속활자 直指의 고향

'興德寺' 명문 청동쇠북 · 佛鉢발굴
'直指' 간행한 흥덕사지로 밝혀져

5년간 복원…불교성지보다 인쇄문화에 초점

지난 천년간 인류문화사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금속활자'가 손꼽힌다. 금속활자를 통한 인쇄술의 발명은 정보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인류 문화 발달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언어의 사용을 인류 정보화의 1차적 혁명이라면 문자의 창안은 경험과 지식을 정리, 체계화시킨 정보화의 2차 혁명이었고, 금속활자의 탄생은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인류 문화를 급속도로 발전시킨 정보화의 제3차 혁명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통한 초고속 IT산업의 시대로 정보화의 세기가 만개한 제4차 정보화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가 탄생한 흥덕사지(사적 제315호)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에 마땅하고 '직지'를 탄생시킨 주인공들도 이 땅의 선지식들이고 흥덕사지 또한 그들이 머물던 절집이었다는 점에서 불자와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1377년(고려 우왕 3년) 여름 밤 청주 땅 양병산 동남쪽 기슭에 위치한 흥덕사에는 백운화상(白雲和尙 1299~1374)의 문도들인 제자 석찬과 달담 등이 모여 선사의 안목이 집약된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목판이 아닌 주조본(鑄造本)으로 뜨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활자를 만들기 위한 밀납, 만고에 빛날 경책을 인쇄할 종이 값을 마련한 사람은 비구니 묘덕이었다. 쇳물을 만들기 위해 장작더미에 풀무질을 하고, 창호지를 뜨기 위해 닥나무 껍질을 벗기는 그들의 가슴은 달아오른 쇳물보다도 뜨거웠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스승의 얼이 깃든 '직지심체'를 한자 한자 조판하는 무릎에는 기울어 가는 고려의 국운도 놓여 있었을 것이다.

'직지'의 고향인 흥덕사지가 발견된 것은 1894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운천지구토지개발'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민묘(民墓) 몇기가 야산 언덕 길을 막고 있어 함부로 파헤쳐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세계적 문화유산의 숨결이 어린 흥덕사지를 보호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이다. 1985년 청주대학 박물관에서 이 이름 모를 폐사지에 대한 발굴작업을 시작한 결과 "흥덕사(興德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쇠북과 청동 불발(佛鉢) 등이 발견되어 <불조직지심체요절>하권 말미에 기록된 '청주목외 흥덕사주자인시(興德寺鑄字印施)'라는 문구와 일치, '직지'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흥덕사지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흔히 '직지심경'이라 불리는 '직지'는 단편으로 기록된 불교의 경전이 아니라 백운 화상이 찬술한 <선문염송집>등 선가의 요체를 초록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직지심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수신오도의 명귀에서 채록한 것으로 강원의 대교과를 마치고 수의과(隨意科)에서 학승들이 공부하는 참선의 대표적인 학습서이다.

'직지'를 찬술한 백운화상은 백운이 그 호이며, 법명은 경한(景閑)이다. 고려 충렬왕 24년에 전라도 고부에서 출생하여 중국에 건너가 양주 회암사에 자취를 남긴 인도 출신의 고승 지공(指空)화상으로부터 불법을 전수 받았다.

백운화상이 75세의 노안을 무릅쓰고 선도(禪徒)들에게 올바른 선풍을 전등(傳燈)하여 법맥을 전수케 하고자 찬술한 '직지심체'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원본은 술한 수소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행방이 묘연하다. 다만 상 · 하 2권 중 하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애꿎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지'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금속활자본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00년대 초, 이미 고려 왕실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어 사용한 기록(이규보,<동국이상국집>)이 있었을 만큼 발전된 금속인쇄술을 갖고 있었다. 독일은 우리보다 78년 늦은 1455년에 구텐베르그가 '42행성서'를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이 처음이고, 중국은 1490년 명조 대에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둠의 한 켠에 서서 역사를 풀무질하고 불심을 담금질하여 먹물 묻힌 사문의 손으로 만든 '직지'는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흥덕사지는 사지 발견 후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비 29억과 지방비 14억 등 총 43억을 들여 금당과 석탑을 복원하고 고인쇄박물관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흥덕사지의 복원은 복원이 아닌 단순한 건축물의 껍데기를 축조한 것으로 잘못된 복원의 표상으로 그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직지'의 고향이라는 용어가 무색한 훼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흥덕사지가 불교적 성지로 복원된 것이 아니라 인쇄문화의 상징적인 의미로 복원되었다는 정치적 논리를 감안하라도 흥덕사지는 사지(寺址)가 아니라 사지(死地)가 되어 버렸다. 종교의 성지를 문화재의 가치로만 보는 것은 그 안에 깃든 정신과 의미를 간과한 껍데기 사랑에 불과하다. 흥덕사지가 명실상부한 직지의 탄생지로 그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훼불의 관점에서 흥덕사지의 잘못된 복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또 다른 폐사지 복원에 있어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충주 주덕 숭선사지





◇흥덕사지 발굴 유물 중 "흥덕사" 명문이 새겨진 청동불발(사진 위), 청동쇠북(아래)의 유물들에 의해 '직지'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흥덕사지임이 밝혀졌다.
유물사진=국립청주박물관 제공

흥덕사지 가는길

흥덕사지를 찾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 청주 IC→ 8㎞,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5㎞를 직진하여 청주 예술의 전당 앞 운천동으로 직진하면 된다. 청주 시내에서 시내버스는 691, 692, 693번이 있어 운천동 흥덕사지 앞에서 내리면 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720, 728, 731번을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흥덕사지 앞에서 하차하면 된다.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주신 소중한 분들은 주식회사 금강염주 고문 조은전국 대리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세계최고급 名品 흑단무늬목바루

베트남 국민영웅 공예가 NGUYEN BACH KHOI 작품



세계적인 名品 흑단 무늬목 바루

존경하는 스님께 최고의 보시는 바루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나무에서 氣와 원적외선이 상온에서(현재온도) 발산되는 나무가 흑단 무늬목이다. 名品만을 고집하는 금강염주사에서 베트남의 국민영웅 공예가 연위엔 박 코이(65세)작품으로 200set가 제작되어 인연과 연분으로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불자님을 기다린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건강과 행운을 안겨주는 나무로 부처님께서도 사용하신것으로 전래된다. 흑단 무늬목 바루는 氣와 원적외선이 발산되어 음식을 담아 놓아도 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흑단무늬목은 일곱번을 삶아 그늘에서 건조시킨 다음 바루를 만들어 다시 한번 삶은 다음 정조 작업을 한 후 바루에 일곱번의 옻칠을 해야 만이 흑단무늬목 바루가 탄생된다. 1set가격은 95만원으로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인연의 불자를 기다리고 있다.

흑단무늬목 바루문의(02)722-0880

※ 베트남에서 직수입한 흑단목 108염주를 불자님들께 보시할 흑단목 108염주를 사찰에계신 스님께주문예약 받습니다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70-12-056037 정애영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할머니들 왔다, 할머니들 왔어!"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1월 22일 치악산 밑 원주시 금대리 계곡.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같이 마중 나왔다. 함박눈보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제천 문수회 노보살들. 보살들이 다녀가면 다음날부터 맛있는 반찬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반가운 표정이다. 자기 할머니에게 응석 부리듯 소쩍새 식구들이 문수회 노보살들에게 매달리며 좋아서 어쩔줄을 모른다.



◇"몸 아픈 세간의 부처님들을 섬기며 여생을 회향해야지."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며 밑반찬용 콩을 고르는 문수회 노보살들의 표정이 밝기만 하다.

8년째 소쩍새마을 돕는

문수회 노보살들

"봉사위해 어디든 간다" 즐거운 황혼!

청소 빨래는 물론 김장·농사까지

박법보화(78), 박선의화(68), 임정공심(63), 김정덕화(76) 등 문수회 회원 40여 명은 하나같이 60대 후반부터 70대까지의 노(老)보살들이다. 남편,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보낸, '고왔던 젊은 시절'이 있었던가 기억조차 희미한 할머니들.

청소년기에는 일제 치하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결혼한 이후에는 주린 배를 움켜쥐며 6·25전쟁후 어려운 시기에 집안을 일으켜 세운 기둥이었다. 한창 중년의 나이에는 어떻게든 자식 공부 시키고, 결혼시키고자 애쓰다 보니 다른곳에 신경쓸 겨를조차 없었다. 남편 잘되고 자식 잘 되는 것이 오로지 전부였던 할머니들.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 세대들이다.

비록 풍족한 생활의 노후설계는 못했지만 문수회 회원들은 여느 할머니들하고 다르다. 얼마 남지 않는 삶, 부처님 가르침 따라 아름답게 회향하고 싶다는 원력 하에 노년의 하루하루를 온통 봉사활동으로 채우고 있다.

8년째 이들은 소쩍새마을 등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보살행을 펴고 있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더욱 어렵기에, 이생을 마치기 전 수많은 세간의 아픈 부처님을 섬겨 선근을 심고 싶을 뿐라고 입을 모은다.

행상하며 장학금 모아

문수회가 생긴 것은 지금부터 8년 전. 일을 하다 보니 회장 감투라는 것도 써본다는 선의화 보살은 그 때를 다음과 같이 떠올린다. "임정공심, 김정덕화 보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거동이 어려운 이웃집을 찾아가 빨래와 목욕을 해주고 밥을 먹여주자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게 시작이예요. 문수회의 활동은 평소 친한 불자끼리 친목을 도모하자는 정도에서 시작했지 남들처럼 번듯하거나 뜻이 큰 봉사는 아닙니다" 못내 겸손해 했다.

그 무렵 문수회 회원들은 신문을 통해 스님이 소쩍새마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부터 이들은 매달 음력 20일 차비 5천원과 도시락을 들고 소쩍새마을을 찾았다. 굳이 음력 20일에 맞춘 것도 사찰 가는 날을 피하기 위해서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닌 노인들이기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했다. 봄이면 밭에 나가 고추며 파를 심어주고, 가을이면 김장을 담가주었다. 쌀 가마가 들어오면 몸으로 져 나르고, 청소와 빨래는 물론, 밑반찬을 만드는 주방일까지 내 집일처럼 했다.

"2, 3년 지나자 우리 일이 조금씩 제천불교어머니회 회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회원이 조금씩 늘어나자 회비도 걷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돈 나올 곳이 없는 노보살이기에 1만원씩 내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집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솔찮았다. 이 때문에 5년 전부터 법보화, 청량심, 선의화 보살은 행상 일을 시작했다. 70이 넘은 노인들이 전라도까지 버스를 타고 가 미역과 멸치를 떼오고 국수, 세제 등 팔 수 있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사다 손수레 뒤에 싣고 다녔다. 밖에서 만나면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갖는 모임도 법보화 보살 집에서 법보화 보살이 마련한 밥과 국을 먹으며 이것 저것 의논했다.

"사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뜻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박법보화 보살의 공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회원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는 박보살은 행상을 시작할 당시, 아들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평생 일군 과수원과 집까지 빼앗길 지경에 처하게 됐다. 남들 같으면 홧병으로 쓰러질 판이건만 박 보살은 부처님 일은 꼭 해야 하는 거라며 억척스럽게 장사를 계속했다. 오히려 계돈을 부어 모은 오백만원을 장학회 종자돈으로 쓰라고 선뜻 내놓았다.

수재민에 쌀·부식 제공도

법보화 보살은 "내가 없이 살면서 남을 돕는 거지,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 돕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이같은 법보화 보살의 모범은 제천 불교 어머니의 정신적 힘이 되었다. 이렇게 노보살들이 알뜰히 모은 돈과 행상을 하며 모은 돈이 4천만원이나 됐다.

문수회 회원들은 소쩍새마을을 돕는 이외에도 매주 금요일 제천장애인복지관에 나가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식사 준비를 해 주고, 하소리복지관에서는 한 달에 2번 노인 150명을 위한 밑반찬 제공,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가 수해를 당했을 때는 된장과 고추장, 고춧가루, 국수 100 박스, 쌀 40가마를 수해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 문수회의 목표는 장학금 1억원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뛰어야 겠지?"

고령들이라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여생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원력으로 그저 열심히 뛰겠다고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격려의 미소를 짓는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지만 그렇게 고울 수 없다. (043)646-6321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ypark@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上〉



박주천
(주)삼현 회장

필자는 군대를 제대한 후 부산 서면로터리에서 꽃집을 경영하다 5·16혁명 후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 동부경찰서와 경찰국(현재 경찰청)에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1976년 10월 12일 어머니(당시 67세)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어머님께 너무나 불효한 것 같아 신정 휴가때 어머님이 다니시던 경주 단석산 백석암을 찾아가 노스님을 친견하였다. 그때 노스님은 "자네도 불교와 인연이 있네. 그러니 관음전에 이름을 올려놓고 가게"라고 하시면서 〈불자 독송집〉(예불문)을 주셨다. 당시 교회에 다니던 필자는 아내와 같이 법당에 들어가 난생 처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어머님께서 자식들 잘 되라고 이 부처님께 얼마나 많이 빌고 절을 하였을까 생각하니 눈

참회후 봉사하는 사람 되겠다 다짐
100만배 원 세워 16년째 수행

물이 앞을 가렸다. 그 옛날, 부처님은 거짓말쟁이, 우리 형님을 군에서 전사하게 했다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미워한 것을 참회하면서 부처님을 쳐다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빙그레 웃으시며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를 다시 부처님께 돌아오게 하신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불교를 열심히 배우고 닦아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불자 독송집〉을 읽어보았으나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내와 같이 부산불교교양대학에 입학, 불교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불교대학에서 경험도 없으면서 총무 소임을 맡아 고려예식장과 부산불교신도회, 불교연합회 강당을 전전하면서 매주 수요일 법회를 열었다. 당시는 법사 모시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었는데, 91년 3월 해동중학교 교법사를 지낸 제6대 이하우 학장을 모시면서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조계종 포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부산불교교육대학이라 명칭을 바꾸고 전문 교육자가 불교대학을 운영하자, 전국에서 포교사고시에 가장 많이 합격하는 명문 불교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하우 학장님이 부임한 이후 필자는 부학장이란 직분으로 학장을 보좌하며 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평소 '하면 된다'는 일체유심조의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처음 유조선 한 척으로 시작한 사업이 5척으로 늘어나 중견 해운회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필자는 평소 불교는 학문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行, 실천)을 닦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86년부터 아침마다 예불과 칠정례, 관음정근, 108배를 하며 100만배의 원을 세우고 16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불교교양대학을 다니던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매월 성지순례와 음력 그믐날 철야기도를 한번도 건너뛴 적이 없다. 93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8년 동안은 회사에서도 반야심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매일 사경하며 초발심을 다지곤 했다.(계속)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화계사 선우회 '이 뭣고'

번뇌·집착 여의고 마음 밝혀



◇1월25일 저녁 9시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선우회 회원들이 방선시간에 포행하고 있다.

좌선시 호흡조절 통한 화두들어야
매주말 철야정진으로 본래면목 찾아

1월 25일 깊어가는 주말 밤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 국제선원.

노 보살님, 노 거사님, 청신남, 청신녀 등 30여 화계사 선우회 회원들이 벽을 보고 돌아 앉아 화두일념에 들었다. 배꼽 세 치 아래 단전(丹田)에 마음을 모은 채 수식관을 곁들여 '이 뭣고' 화두를 챙긴다.

코로 숨을 들이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안 '이 뭣고', 숨을 멈춘 하나 둘 셋 동안 '이 뭣고', 숨을 내쉬는 '하나 둘~여섯 일곱'에 '이 뭣고'.

저녁 9시, 회원들은 예불을 모시고 외국인 스님들이 정진하는 국제선원 선방의 4면 벽을 향해 좌복 위에 앉는다. 입승 소임을 보는 권유리심(75) 회장이 죽비 소리로 입정을 알리자 갑자기 시간과 공간은 정적으로 멎고,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남는다. 목으로 넘어가는 침소리조차 너무나 크게 들리는 50분이 지나가면 10분의 방선 시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여 선방의 가장자리를 따라 도는 포행이 시작된다.

포행은 다리가 저리고 졸음이 와서 좌선을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가볍게 걷는 행선(行禪).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조용하고 위엄 있게 걸어가면서 선정을 닦는 것이다. 시선은 앞으로 가볍게 떨군 채, 한번의 호흡에 서너 발자국씩 걸으며 보폭도 평소의 반쯤 짧게 천천히 10분 동안 걷는다.

포행을 마치는 죽비가 울리자 보통 걸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합장하고 좌선방석을 정돈한다.

그후 두 번의 50분 참선 후 11시 50분에 죽비소리에 맞춰 108배를 한다. 108배후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죽을 먹으며 회원들끼리 법담을 나눈 뒤 새벽 3시까지 정진을 계속한다.

휴식시간에 한 청년이 처음 선방에 왔다며, 화두드는 법을 회장인 권유리심 보살에게 묻는다.

"좌선할 때의 숨은 모두 코로 들여 마시고 내쉬도록 하세요. 의식을 배꼽아래 단전이 집중한 채 깊은 숨을 천천히 가늘고 길게 들이 마시고 내쉬세요. 호흡의 길이는 들이쉴 때 다섯을 세고, 멈출 때는 셋, 내 쉴때는 일곱을 세면서 '이 뭣고'를 드세요. 허파로 호흡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전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청년은 그동안 내쉬고(呼) 들어마시는 숨(吸), 즉 호흡법을 잘 모른 채 화두들 들어왔다며 권 회장에게 거듭 감사의 합장을 한다. 〈좌선의(坐禪儀)〉에서는 좌선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조식(調息)'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처럼 단전호흡법을 모른 채 화두만 들도록 가르치는 잘못된 간화선 교육의 병폐가 여기저기서 지적되어 온 터였다. 호흡을 조절하며 화두를 드는 것은 번뇌나 망상, 주위의 경계나 사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마음을 조절(調心)해 자신의 본래면목(이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선우회가 이처럼 수식관을 곁들인 화두드는 법을 잘 이어온 것은 화계사(www.hwagyesa.org) 조실 숭산 스님의 자상한 지도 덕분이었다. 26년 전 권유리심 보살과 조카인 강보덕공(68) 보살을 중심으로 숭산 스님을 모시고 화계사 대중방에서 정진하던 당시에는 매일 생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대중방에 모여 참선을 했다. 숭산 스님은 1주일에 한번씩 모든 회원들에게 직접 공안 점검을 해주며 공부를 독려해 왔다.

10년전부터 주말 철야정진을 해온 이보리심(75) 보살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이뭣고'를 들면 망상을 조복받고 마음자리가 밝아져 어떤 일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근심도 없어진다"면서 젊은이들의 동참을 간곡히 당부했다. (02)902-2663

김재경 기자



선우회 회장 권유리심 보살

"'오직 행할뿐'으로 정진해요"

"걸거나 서 있을 때, 앉거나 누워 있을 때, 얘기하거나 움직일 때, 침묵할 때 등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끊임 없는(無間斷) '이것은 무엇인가'를 참구하는 게 참선이예요."

26년간 한번도 쉼없이 주말 철야정진을 이끌어 온 선우회 회장 권유리심(75) 보살은 "한 순간이 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이라는 생각으로 호흡 지간에 '이 뭣고'를 드는 것이 간화선"이라며 좌선만을 참선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숭산 큰스님께서는 생사 해탈하려는 목표가 분명하면 생활이 밝아진다고 하셨어요. 찰나 찰나 '오직 행할 뿐'인 한마음으로 날마다 정진해서 365 공안을 성취하고 크게 깨달아,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표입니다."

권 회장은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 버릴 때 자신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마음이 하늘처럼 깨끗해서 거울처럼 밝게 된다며, 깨달은 모든 것을 온전히 실천하면 우리의 평상심(平常心)은 올바른 삶이 된다고 강조했다.

수행 캘린더

■**1주일 수련회**=영평사 행복수련원(www.youngpyungsa.org)은 2월 8일부터 매주 7일간, 법문과 좌선, 포행을 병행하는 수련회를 연다. 수련원장 광원 스님과 지도법사 현관, 연관 스님이 일대일로 직접 지도한다. 직장인들은 매주 토요일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주말수련에 참석할 수 있다. (041)858-2231

■**대전구도회 2월 법회**=대전 구도회는 2월 4일 성담 스님(효심사)의 금강경 강의, 18일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의 승만경 강의, 25일 이평래 충남대 철학과 교수의 '신묘장구대다라니와 관음사상' 강연을 연다. (042) 527-0559

■**3333배 철야정진**=양평 법왕정사 소리산참선캠프(http://cafe.daum.net/sorisan)는 2월 22일 3333배 철야정진을 갖는다. 법왕정사는 매주 토요일 8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금강경 봉독, 염불, 도인체조, 108배 ,촉원기도, 절 하기 교육 등을 실시한다. (03) 771-7745

■**능엄경, 법화경 강의**=대한불교보림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신안빌딩 3층 강의실에서 회장인 성상현 법사의 강의로 능엄경 및 법화경 강좌를 연다. 능엄경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45분부터 1시간 30분, 법화경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씩 강의한다. 서울 연신내 금강법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능엄경을 강의한다. (011)305-0294

■**아나파나사티 수행**=연방죽선원(cafe.daum.net/lotuspond)은 매주 월~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아나파나사티(출입식념) 수행을 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불교와 수행'에 대한 법문,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정진도 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는 초보자 상담시간. (02)334-1763

■**'일승보살의 길'**=서울 현정선원(fuoyee.or.kr)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둘·넷째 토요일 오후 4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선원에서 '일승보살(一乘菩薩)의 길'에 대해 설법한다. 법사는 선원장 대우 거사. (02)582-9371

■**토요 참선법회**=범어사 토요참선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7~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참선법회를 연다. (051)508-3636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2263-0551 서울시 중구 쌍림동 146-2 국제빌딩 3F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미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발걸음 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시지 못한 일들과 자녀의
행복한 사랑의 결실이
보람찬 한해로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신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288-2944

그들이 있어 또 가고 싶은 성보박물관



◇송이 · 기호 가족에게 팔상성도를 설명중인 김혜진 보살.

"저 관세음보살님은 손이 왜 저렇게 많아요?"

1월 25일 방학을 맞아 부모님의 손을 잡고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찾은 기호(포항 양학초등 5)와 송이(포항 양학초등 3) 오누이는 불교회화실에 전시된 불화들을 둘러보며 궁금한 게 많다. 아버지 김규만(43)씨가 아이들의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불교회화실 안내 봉사를 맡은 김혜진 보살은 아이들을 향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한다.

"관세음보살님은 손과 눈이 천개란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나 고통을 해결해주는 분이라서 송이가 잘 지내나 항상 지켜봐야 하고, 또 송이가 슬플 땐, 송이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니까 많은 손과 눈이 필요하단다."

송이의 눈은 빛나기 시작한다. 어린이법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설명은 처음이다. 옆에 있던 기호가 부처님 일대기 그림을 가리키며 질문하자 김보살의 대답이 이어지고 가족들의 박물관 관람은 부처님의 일생, 불화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오랜 시간 이어졌다.

"너무 감사해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덕분에 아이들도 저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김규만씨는 자원봉사자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에 거듭 감사를 전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www.tongdosamuseum.or.kr)은 입구의 신발 정리부터 안내, 전시실 유물 보호 및 유물 설명 등의 봉사를 실천하는 1080여명의 문화자원봉사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로 나눠진 6개 부서에 모두 27개조가 있는데 매일 한 개조의 10~15명의 봉사자가 박물관의 하루를 책임진다. 오전 9시면 부산, 울산, 양산 등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예불을 시작으로 관람객을 맞을 마음의 채비를 마친다.

이날 봉사를 맡은 조는 인욕부의 10조. 박물관 입구의 신발 정리를 맡은 서강순(52 · 양산), 이귀출(62) 보살, 기획전시실의 하정희 보살, 기증유물실의 김혜순 보살을 비롯 10여명의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박물관 개관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문화자원봉사회는 6개월간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지만 활동이 계속될 수록 스스로의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을 절감하게 돼 많은 봉사자들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운영하는 1년 과정의 박물관대학에 등록,

바라밀현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1080 회원 6개 부서로 나눠 하루책임
불교유물 이해 부족 절감, 안내가 곧 공부

공부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는다.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되는 박물관 대학 수업을 3년째 계속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을 만큼 문화자원봉사회 회원들의 열기는 대단하다.

'아는 것만큼 보고, 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에게 하나라도 더 전하겠다는 포교사로서의 자긍심이 이들을 끊이지 않는 배움과 정진으로 이끌고 있었다. (055)382-1001

통도사=천미희 기자



김혜진 봉사회 10조 총무

"배우는게 더 많아요"

"불교를 사랑하고 불교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가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정성을 다하면서 하심하는 마음을 키우고, 또 보다나은 설명을 위해 불교문화를 배우니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문화자원봉사회 1기 김혜진(52 · 부산 연산동) 10조 총무는 봉사회의 활동을 봉사가 아닌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정진이라고 표현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데, 모르고 있던 불교문화의 가치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김 총무는 봉사회 활동이 행복하기만 하다.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찬탄하는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기 때문이다. 김 총무를 비롯한 천여명을 훌쩍 넘긴 회원들은 오랜 세월을 이어온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예술작품을 보존하고 현대에 계승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으로 봉사와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케마 스님 (上)

비구니계 단합시킨 사키야디타 창시자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몸과 온마음일 뿐입니다."

비구니계를 최초로 단합시키고 국제불교여성협회 즉 사키야디타(Sakyadhita; 붓다의 딸들)를 창시한 케마 스님(Ayya Khema; '아야'는 스님이란 뜻). 남들이 은퇴하여 안락한 삶을 누리며 손자 볼 생각을 할 5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던 케마 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 말을 되풀이 하며 일러주었다.

1999년 입적할 때까지 남방불교의 수행전통을 세계에 전한 스님은 자신이 설립한 독일의 붓다 하우스에서 입적하기 전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을 놓아 버리는'(放下着) 과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아울러 드라마틱한 당신의 삶 굽이굽이에서 맞닥뜨린 난제들은 바 원인 '메타 비하라'를 잇달아 창건했다. 스님은 또 87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국제대회를 개최해 '사키야디타'를 창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같은 해 파라푸두와(Parappuduwa) 여성 수도원 섬을 설립해 서구 여성들이 머물며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이 수도원 섬을 설립할 때 비구 스님들과 거사들은 '해적들이 습격해 강도와 강간을 일삼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케마 스님은 너털웃음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 있는 서양 여성들은 토박이 해적들보다 체구가 두 배는 큰걸요."

늘 쉽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법문을 설한 케마 스님은 "법(Dhamma)은 모국어로 설하되 명확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 과

'붓다 하우스' 등 서구 여성 수행 터전 마련
쉬운 법문으로 투병중에도 열정적 전법 펴



◇케마스님

로 자신을 가르친 자애로운 스승이었다는 회고도 곁들였다.

1923년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나 1979년 스리랑카의 나라다 마하테라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은 스님은 1978년부터 호주 시드니의 '붓다 담마 사원'을 시작으로 스리랑카 콜롬비아의 국제불교여성센터, 89년 독일의 붓다 하우스, 97년 독일 최초의 산림 승정에서 진리의 정수가 흐려져서는 안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전법자가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려 하고 사회적인 공인을 얻고자 할 때 해탈로 이끄는 법은 빛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사회적인 욕구에 영합한 희석된 불교는 부분적인 진리만을 담을 수 밖에 없는,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극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명상을 가르치면서도 진리의 본뜻을 더욱 환하게 드러내었던 스님의 영어 및 독일어 저술은 25종에 이르고, 이중 일부분은 7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스님의 주옥같은 문체는 87년 출간된 책 <비움(Being Nobody, Going Nowhere)>으로 '크리스마스 험프리상'을 받을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스리랑카와 독일, 미국 등을 오가며 전법여행을 펼치던 케마 스님은 노년에 딸이 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자주 방문해 명상을 가르쳤다. 친구인 루스 데니슨(Ruth Denison) 법사가 머물며 위빠싸나와 상좌부 불교를 가르치던 '사막의 불교센터'에서 스님은 유머를 곁들인 힘찬 설법으로 위빠싸나를 지도해 수행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계속)

김재경 기자

心 마음비추기

몸·마음에서 벗어난 깨달음

요즘 들어 기공이나 단을 연마하는 단체와 수련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수련을 하면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정신 안정과 체력 향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불교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문구들이 종종 들어온다.

얼마 전 한 사이트를 접속해보니 불교는 성(性)만 닦고 명(命)을 닦는 방법은 없으니 반쪽공부이고, 선도(仙道)는 성과 명을 함께 닦으니 완전한 공부법이라는 글이 띄워져 있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이란 마음을 가리키고 '명'은 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공부만 할 뿐, 몸을 길러 죽지 않게 하는 공부는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 완성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이다.

선도에도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대개 정(精), 기(氣), 신(神)을 기본으로 정을 길러 기를 이루고 기를 길러 신을 이룬 다음, 신을 허(虛)로 돌려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도와 합치되는 수행법이다. 이들이 성명을 닦는다고 할 때 성은 신을 허로 돌리는 것에 해당되고, 명은 정과 기를 기르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몸과 더불어 마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법은 어리석은 길로서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참된 도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버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무생무멸'을 이를 때에 얻어지는 것인데, 저러한 수행법은 죽음을 버리고 따로이 영생을 얻으려는 '유생무멸'을 통해 도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태어난 자가 죽지 않으려는 것은 누구나가 지닌 본능이므로 누구나 오래 살기 위해서 갖가지 몸부림을 친다. 기독교의 구원이나 선도에서 말하는 신선도 결국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해서 만든 집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생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법을 몸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삶과 죽음을 몸에 두고 붙들려 있는 그 마음을 버려서 몸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 집착이 없음으로 인해 나고 죽어야 할 몸을 다시는 받지 않는 것으로써 '성명쌍수'의 완성을 이룬다.

완전한 성명쌍수는 자기라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깨달음에 있지 몸을 오래도록 세상에 붙잡아 두는 도에 있지 않다. 단학이나 선도를 건강의 차원에서 닦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적연(유마선원장)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
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 주차장 100m 전방
감나무식당 아래 (선화정사)
053)614-7935, 011-808-888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DWS2000 램프용 • DWS1000 LED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32) 582-6235~6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누비,적삼,바지]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누비,동방,바지]

3. 누 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 비 (혼방)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누비,두루막]

5. 법 복 (회색, 밤색) 조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7. 승복 (골덴) 적삼, 바지, 조끼 ₩200,000 동방, 바지 ₩19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 전화로도 가사 주문 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성문·연각 불보살 세계를 알 수 없다

입법계품의 첫머리 부분에는 특별히 주목되는 내용이 있다. 세존께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서 나타내 보인 여래의 신통력 · 훌륭한 모습 · 묘한 행 · 청정한 세계와 여러 가지로 부사의한 보살의 경계를 서다림에 있던 모든 성문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그 성문들 가운데에는 사리불 · 대목건련 · 마하가섭 · 수보리 · 아나율 · 가전연 · 부루나와 같은 여러 훌륭한 성문들도 있었다. 그들조차도 마치 귀머거리와 장님 같아서 여래와 보살들의 여러 가지 훌륭한 신통변화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근이 같지 않고, 부처님을 뵈올 수 있는 자재한 선근을 익히지 않았으며, 부처님들의 공덕과 갖가지 신통과 변화를 본래 칭찬하지 않은 때문이다. 또한 생사에 헤매면서도 보리심을 내지 않고, 다른 이를 보리심에 머물게 하지도 못했으며, 중생들을 거두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살의 바라밀을 권해서 닦게 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부터 온갖 지혜를 내는 선근을 닦지 않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신통과 지혜를 얻지 못했으며,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을 내지 않은 때문 등이다.

입법계품에서는 이러한 것은 모두 두루 널리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보현보살의 지혜로운 안목의 경계이기 때문에 모든 성문과 연각들의 경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큰 성문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문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났으므로 성문의 도를 성취하고 성문의 행을 만족하고 성문의 과보에만 머무르려 한다 .그리고 유위법이나 무위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혜를 얻어서, 언제나 진실한 경계에 고요히 머무르며, 중생을 크게 가엾이 여김이 없이 중생을 버리고 자기의 일에만 머무른다. 또한 지혜는 원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닦아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부사의하고 자재한 신통변화를 볼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입법계품에서 이처럼 대성문들조차도 불보살의 경계를 볼 수 없다고 되풀이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문과 연각의 소승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를 선양하려는 입장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소승의 입장이 무량한 지혜를 구하거나 닦음이 없이 단지 유무(有無)에 관한 지혜를 터득, 청정하고 고요한 경계만을 즐기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없이 이기주의로 살아가려는 것임에 반하여, 대승의 입장은 그것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불교라는 것을 강조하는 면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佛 사자빈신삼매 경계 성문은 보지 못해
'대승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 설해

바로 이러한 입장 때문에 화엄경의 교설을 '특별히 초월적인 일승을 설하는 가르침[一乘別敎] '이라고 하는 칭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보살만을 위한 독선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다. 그렇지만 입법계품이 부처님의 최저한 자비정신을 본질로 한 대승불교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문과 연각의 입장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기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수보살이 보살들과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나려 할 때 사리불 등 육천 명의 비구들이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자 그들에게 설하는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육천 명의 비구는 사리불이 문수보살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을 듣고 대승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 문수보살은 그들에게 '선남자 선여인이 열 가지의 대승으로 나아가는 법을 성취하면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며, 모든 보살의 소원을 갖추며, 모든 여래의 공덕을 배우며, 모든 보살의 행을 닦으며, 여래의 힘을 얻어 여러 마귀의 경계와 외도들을 굴복시키며, 모든 번뇌를 멸하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여래의 자리에 가까워진다' 고 설하고 있다. .

그러자 이것을 들은 비구들이 '걸림없는 눈으로 부처의 경계를 봄' 이라는 삼매를 얻고, 큰 지혜를 얻으며, 보살의 마음에 확고하게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권하여 보현행(普賢行)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소승의 성문불교를 새로운 대승불교로 포섭하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불교의 성문 연각의 길이 대승 보살의 길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은 결코 단순히 이승(二乘)을 부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승의 입장을 비판 부정하고, 대승이야말로 진정한 불교라는 것을 천명하면서도, 그 대승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①

연재를 시작하며

불교 수행론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지는 삶의 의미나 고통을 불교 수행을 통해서 해결해보려는 시대적 반영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보니 수행론들 사이에 기본 개념에 대한 대립된 관점이 대두되면서, 서로를 비교하여 논의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전통적인 간화선은 물론이고, 초기불교 수행론과 더불어 제삼 수행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행에 관한 이런 논의는 종파적이고 세속화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불교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그동안 불교계 일부에서는 실천성이 강한 불교의 본래적인 성격은 탈색되어 오히려 고원한 경지의 선정에 머물거나 아니면 교학의 관념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관점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불교는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서 시대의 아픔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행론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연구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응용하는 작업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 설 때 '과거는 현재에서 반복된다'는 경구가 분명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만약 과거의 문헌적 연구에만 머물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원이 결여된 게으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저작으로 알려진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은 한국 최초의 간화선에 관한 논서로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제목을 직역하면 '간화'(看話)와 '결의'(決疑)에 관한 논의, 혹은 '간화에 의한 의심의 결단에 관한 논의'란 의미를 가진다. 간화는 말 그대로 화話를 자세하게 본다(看)로 화두 참구를 의미한다. 결의는 화두를 참구하는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의심을 결심하고 해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간화가 간화선이 성립되는 선문답의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결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축한다

간화에서 화(話)란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의 존재를 전제해야 된다. 이야기가 없다면 전하는 메시지도 없다. 또한 이점이 간화선이 바로 당 송대의 선문답에서 비롯되었다는 단초를 제시한다. 모든 선문답은 스승과 제자 혹은 도반들 사이에 활기찬 대론으로서 다름 아닌 진리를 향한 모험, 그 삶의 이야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찾아 나선 선각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더불어서 발생한 고난과 좌절, 극적으로 찾아온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다.

탐색, 의심, 의미발견은 자신의 몫

그런데 모든 선문답에는 그 자체적인 모순과 갈등, 혹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과 긴장감이 가로 놓여 있다. 이것에 대한 의심이 바로 결의다. 의심은 선문답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독자(수행자)의 권한이고 몫이다. 어떤 선문답에서 어떻게 탐색해 의심하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는 순전히 각자 자신의 삶의 무게고, 그 자신의 실존적 결단이 걸린 사안이다. 결의(決疑)란 얼었던 얼음이 풀리듯이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의 현실에 대한 얼음만큼이나 차가운 자신의 내적인 단호한 결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화결의란 선문답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적 상징에 실제로 참여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을 연재하는 인경스님(사진)은 송광사로 출가, 송광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선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보조사상연구원 설장과 선상담연구원 원장을 맡고있다. 저술로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선사상연구〉 역서로 〈위빠사나 수행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등이 있다.



임신 중 태교 중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의 삼합(三合)의 원리와 12 연기의 법칙에 의하여 임신 중 태아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마음을 가진 뱃속의 태아를 위하여 태교(胎敎)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태교를 하면 태아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다음 내용은 외국의 초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스페인의 바렌치아 대학 심리학과에서 행한 연구에 의하면, 임산부 101명을 대상으로 임신 28주부터 허리띠에 녹음세트를 차고 갸벼운 바이올린 음악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복잡한 음악을 듣게 했다. 하루 90분을 테이프를 듣게 하고 이때 산모로 하여금 태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무의식적인 태아와의 대화를 하도록 하였다. 출생 후 6개월에 신생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결과, 태교를 한 그룹의 아기는 태교를 하지 않은 그룹의 아기에 비하여 운동 능력, 지각 능력, 언어 발달 및 인지 능력 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모스코바 소아 재활의학 센터의 라자레프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에 걸친 태교에 관한 연구를 했다. 태교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미국의 심리학자 브렌트 로간이 개발한 '베이비플러스' 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두 번째 그룹은 태교 음악을 실시한 그룹이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이었다. 태교의 내용은 임신 5~6개월부터 시작하여 매일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씩 태교를 실시해 임신 기간 중 태교를 실시한 기간은 합하여 15주였다. 출생 6개월 후 아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결과, 아기의 이완 정도 및 아기의 응시력 등이 베이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태교한 그룹에서 눈에 띄게 좋았다. 그 후 7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처음으로 말하기, 처음으로 걷기, 처음으로 소리에 반응하기 등이 베이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태교한 그룹에서 더 빨랐으며, 7세 때 초등학교 학업 성적도 베이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태교한 그룹에서 더욱 좋았다고 한다.

베네젤라의 심리학자 만리크 여사가 행한 태교의 결과에 의하면, 만리크 여사는 68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교를 실시한 연구군과 태교를 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생후 6년까지 추적하면서 관찰하였다. 태교는 임신기간 중 주당 2시간씩 모두 13주 동안 태아와 같이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음악을 들려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출생 직후, 1달 후, 18개월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그리고 6년 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기를 측정하였는데 태교를 받은 그룹의 아기는 청력, 시력, 언어 능력, 운동 능력, 기억력 등이 태교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지능지수(IQ)는 대조군의 어린이보다 태교를 받은 그룹의 아이가 14점이 더 높았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온순하고, 잘 웃고, 활동적 · 긍정적이며, 협동적이었다.

태교한 신생아 지각, 언어 등 향상
생후 6년 관찰 IQ높고 정서 안정

따라서 임신 중 태교는 태아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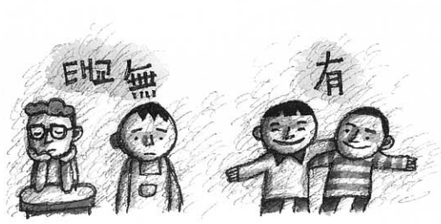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영험 도량

퇴마승 해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천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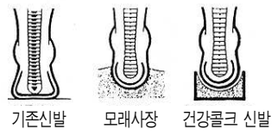
031-336-3734 · 3735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귄行"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귄行 신제품

건강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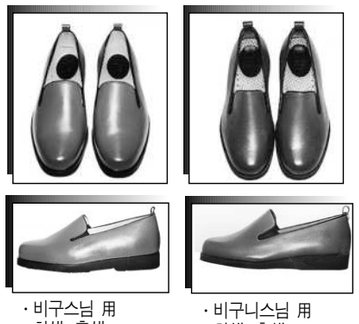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귄行 만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건강신발 귄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안창은천연코르크로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인한 평발예방, 관절과디스크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1)742-0296.742-0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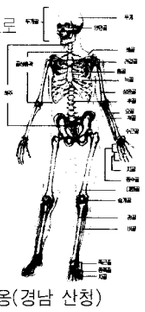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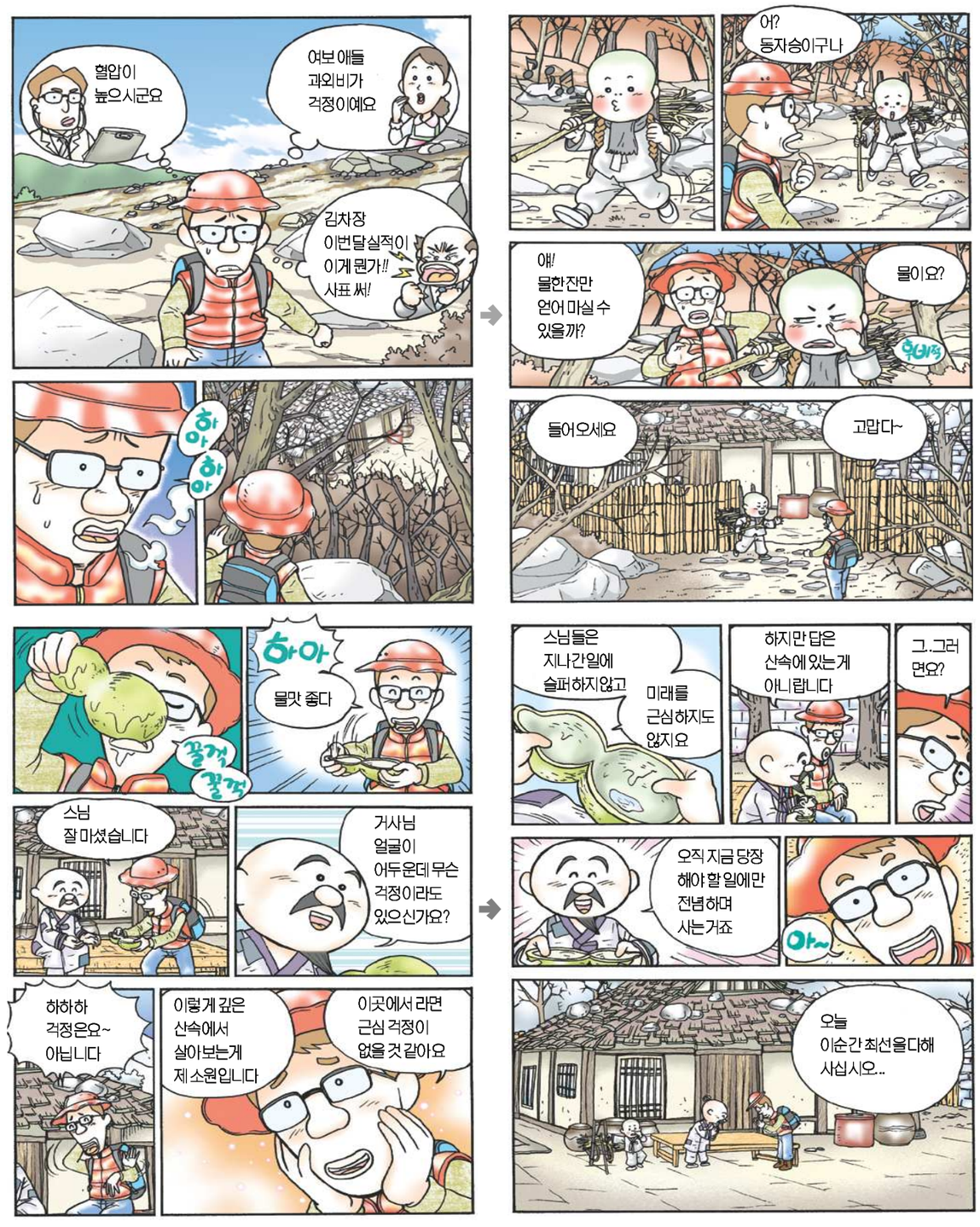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화)

"근심걱정으로 얼굴이 어둡다"

〈출전 : 삼무따 니까야 Ⅰ-4〉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명절의 부부

서로 힘 되어주는 인·연 이어야

명절이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도 명절 전후만 되면 다투는 부부들을 선재는 흔히 본다. 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명절이란 남편들만의 잔치이고 아내들은 그저 잔치 뒷바라지에 등골이 휜다는 것이다. 그나마 세상이 변해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번 설에도 이러한 명절 후유증으로 다투는 부부가 제법 많으리라. 선재가 보기에 이것은 '자기 자리'만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 같다. 유독 명절 때면 두드러지는 '남자의 자리'와 '여자의 자리'. 하지만 자리라는 것이 어디 고정된 것이겠는가?

부부는 인연이라고들 한다. 화엄에서는 세상의 인과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설명하면서 '인(因)'에 결과를 만들어낼 힘이 있느냐, 없느냐 등에 따라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인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인에 힘이 있고 '연(緣)'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 인에 힘이 있지만 연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인에 힘이 없어서 연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로 설명하는 것이다. 인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세계의 사람 관계를 탁월하게 설명했다고 선재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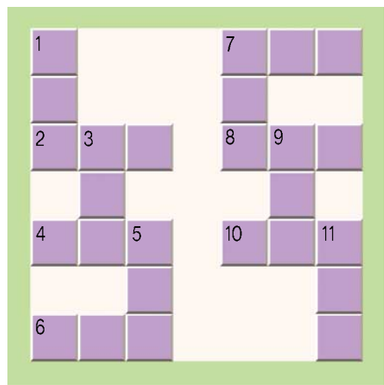
사실 말로는 인이니 연이니 구별하지만 인과 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이 되고 연이 된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연의 도움을 받아 결과를 만들어낸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쪽으로 나의 힘을 밀어준다. 인과 연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긴밀한 인연 관계, 어쩌 부부 사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과연 명절에 남편들은 어떤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일까.

한쪽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바닥에 등 대고 누워있는 것은 '지아비'의 특권이라기보다는 '검은 머리 파 뿌리' 약속을 순식간에 날려 버리며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과 다를 것이 없다.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야 수고했다며 몸져누운 아내의 팔 다리를 주무르기 보다는 미리미리 힘을 보태주어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인연으로 만난 부부의 할 일이 아닐까?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2. 연각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탈 물건.
4. 해탈문. 천왕문을 지나 불이의 경지를 상징하는 전각.
6. 오계가운데 '살생을 하지말라'는 계.
7. 새벽예불전에 목탁을 치며 행하는 의식
8. 경북 안동산 포.
10. 산업, 문화 등 기타 방면에 있어서 뒤떨어진 상태에서 벗어난 진보된 상태로 되게 함.

〈406호「교리퍼즐」정답〉



세로

1. 부처님 십대제자중 논의제일.
3. '장타령 꾼'을 낮게 부르는 말.
5. 문하에서 배우는 제자.
7. 유식학파에서 아뢰야식을 지칭하는 말.
9. 조계종 종립대학. 서울 남산 중턱에 위치하고 2006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11. 시주물을 얻어 절의 양식을 대는 스님.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 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보관상태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사전에 스케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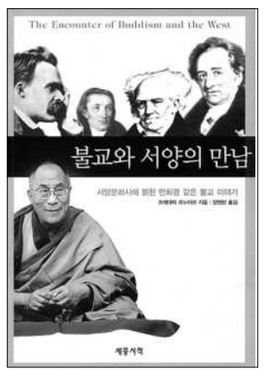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서양문화에 비친 불교의 다양한 모습



'불교와 서양의 만남'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 양영란 옮김

세종서적 / 1만2천원

"새로운 유럽 불교의 가능성…극도의 위험성." 프리드리히 니체
"불교는 현대 과학과 양립 가능한 유일한 종교이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붓다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철학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칼 구스타브 융
"붓다는 기독교와 대적할 만한 마지막 종교적 정신의 구현이다."
로마노 과르디니
"불교와 서양의 만남은 20세기의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아놀드 토인비

'19세기의 염세주의=불교' 이해 잘못 지적
'인간 내면 성찰 종교' 인식되며 각광받아

서양에서의 불교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그 불교를 발견한 서양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심사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다르다 해서 퇴폐적인 기독교 사상, 절망적인 허무주의, 합리주의, 무신론적 신비주의, 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삶의 지혜, 현대적 인문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학문적인 연구 덕분에 불교가 훨씬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밟아온 종교 편력, 지식수준, 정치적 신념 등에 비추어 불교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불교와 서양의 만남>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에 얽힌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불교와 서양의 만남이 지니는 의미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프랑스의 사회학 박사인 프레데릭 르누아르가 지은 것으로, 저자는 현재 프랑스 사회과학대학 소속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4% 가량의 유럽인이 명상, 업과 윤회를 믿고 실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1992년 "왜 서구 사회가 갑작스럽게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불교 중에서도 특히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일까? 이는 단순한 유행인가 아니면 불교가 서양에 진정으로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가?"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불교와 서양의 만남을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피타고라스 원리로부터 그리스인들의 윤회설에 대한 믿음, 로마제국의 다신 숭배,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학파 등 그리스·로마 종교와 학문에서 발견되는 인도의 흔적을 통해 불교가 동방의 그리스 문화에 끼친 영향력의 정도를 지적한다. 또 헬레니즘 시대에 중앙아시아 지역인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 문명과 동양의 불교문화 사이의 융합을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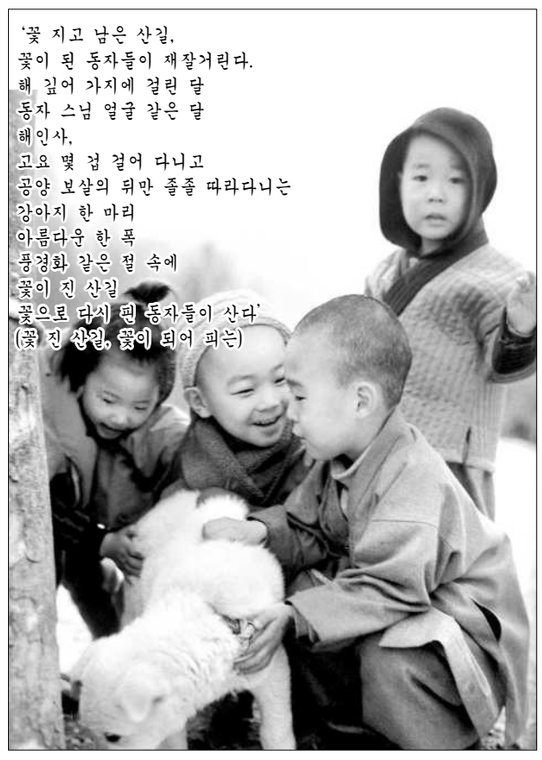
또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잘못 이해된 불교에 대해서도 짚고 있다. 불교 사상과 매우 유사한 사상을 전개한 쇼펜하우어의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1818년)로 인해 19세기 초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유럽 지식인들은 쇼펜하우어의 극단적인 염세주의와 불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한다.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붓다의 낭만적인 삶과 티베트의 신화에 이끌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불교 열기가 일어난다. 당시 지배적이던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비교주의의 물결을 타고 불교는 서서히 서양인들의 집단 상상체계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서양인들에게 인식된 불교는 티베트 불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불교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주의, 실용주의, 상업주의 등 당시의 지배적인 경향에 반기를 든 소위 반문화 움직임의 여세를 타고 서구 종교 분야에 확실하게 자리잡는다. 이 무렵의 불교는 지적 또는 비교주의적 관심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실존주의적 영적인 재발견의 대상이었다. 그후 약 20년 사이에 서양인들을 위한 수많은 명상소와 수도원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경전과 입문서 등의 책자를 번역하기도 하고, 이른바 서양 출신 불교 성직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저자는 불교가 서구인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로 문예부흥 시대 이후로 서양 사회가 안고 있던 세 가지 억압, 즉 인간 정신이 지닌 상상력 비합리성에 대한 억압·삶의 의미에 대한 개별적인 의문에 대한 억압·외부 세계로의 탐험을 위해 인간 내부의 내면적인 성찰에 대해 가해진 억압에 대해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샘물같은 동자승 이야기

'얼굴' 이지엽 · 정성욱 글 / 최옥수 · 배흥배 사진

고요아침 / 9천9백원

샘물처럼 맑고 천진난만한, 찌든 세상의 일그러진 마음을 훌훌 다 털어 내주는 부처 같은 동자승들의 모습. <얼굴>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다.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축암리 산골마을의 백화도량 해인사에서 주지 무학 스님과 살아가는 일곱 동자승의 일상을 시와 사진으로 담았다. 거짓말을 잘 해 참회 중인 성근스님(8), 띄엄띄엄 한글을 읽는 아기 부처 대한스님(8), 할머니도 호통치고 쫓아버리는 성철스님(6), 얼굴이 유달리 까만 석철스님(7),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떼놓고 간 병기스님(6), 마구 때리고 부수는 성진스님(5),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정성스님(4)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부모와 이별했거나 절에 맡겨진 아이들이 무학 스님을 만나,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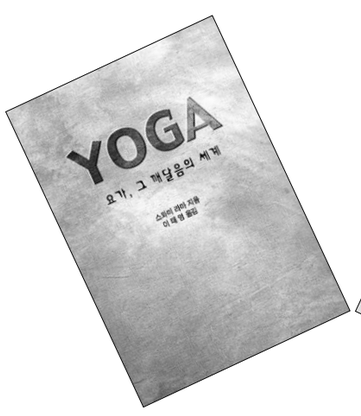
요가책 2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소개

'요가, 그 깨달음의 세계'

스와미 라마 지음 / 이태영 옮김

여래 / 8천원



<요가, 그 깨달음의 세계>는 세계적인 영적 단체인 '요가과학과 철학의 히말라야 연구소'를 세우고 활동 중인 인도의 스와미 라마가 히말라야 요가학회의 세미나 기간에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풀어쓴 책이다.

이 책은 어떤 수행법 또는 영성계발법이 자신에게 좋은지 알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단순히 요가의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수양뿐 아니라 육체까지 함께 수련하는 요가 수행법에 대한 이론서라 할만하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만 수행법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이고, 나머지는 모두 요가의 중요한 수행법을 설명한 것들이다. 자기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의 기호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

수행법에 관한 스와미 라마의 명쾌하고 심오한 강의는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수행자에게 영감을 주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강의한 이 요가 수행법의 자료와 내용은 주로 직접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요가연수원을 운영하며 후진양성과 요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이태영 박사가 번역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수행법

'티벳요가 쿰니(상)'

차르탕 툴구 린포체 지음 / 박지명 옮김

하남출판사 / 1만원



요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자세로 몸을 꼬거나 비틀어서 동작을 취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나온 <티벳요가 쿰니>는 이러한 요가에 대한 일반의 편견을 깨뜨리기는 책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완 마사지, 호흡법, 명상 등 누구나 하기 쉬운 동작들로 이뤄진 티벳 전통 수행법인 티벳요가 쿰니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쿰니(kum nye)는 요가와 기공의 핵심을 표현한 독특한 이완법으로 볼 수 있다. 동작과 호흡을 통해 느낌으로써 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쿰니의 핵심이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 육체의 감각을 재생시켜 집중력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증진시켜 긴장을 제거하는 수행법이다.

이 책의 저자인 타르탕 툴구는 티벳의 가장 크고 오래된 닝마파의 린포체(환생자)이다.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닝마 연구소를 설립해, 서구인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완과 마시지, 그리고 닝마파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독특한 자세들을 현대화 시켜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47개의 동작을 70여 컷의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 시 아 문
2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 광
4	화엄경	법정 스님	동 쪽 나 라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달라이라마	김 영 사
6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 림
7	옷깃을 스치는 인연	정 천 경	동 남 풍
8	아비담마길라잡이	각묵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소
9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 이 화	역사비평사
10	지허스님의 차	지 허 스 님	김 영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동자승 이야기
얼굴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훌훌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지엽 · 정성욱 글
올칼라 | 값 9,900원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텅빈 산, 붓을 잡아도 한 치 걸림도 없이 묻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법이요 시이다.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현역 석 영정 | 값 6,500원

마음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 조선일보 〈편집자 레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금언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 스님 外 | 값 9,500원



◇충남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마을입구에 들어선 장승들. 마을의 수호신이다.

우리 전통 놀이인 투전이 트럼프로 건너가 다시 화투로 돌아왔다면? 미신으로 비하되는 사주팔자, 부작, 장승이 실제 물리적 효과를 가진 신물(神物)이라면? 단군과 고조선이 신화가 아니고 실존하는 역사라면?

<신토불이 우리 문화유산>은 화투에서 부터 우리나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에 이르기까지를 우리 문화유산의 범주에 넣어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깨부수는 독특한 책이다.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페르피냥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와 과학국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종호 씨가 집필했다.



◇도깨비는 절이나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인식되었다. 부여 외리 유적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귀형무늬 전돌.

'신토불이 우리 문화유산'

이종호 지음

한문화 / 1만5천원

아니! 이것도 우리문화 유산?



저자는 풍속과 민속 유산까지 과학이라는 틀에 넣고 독특한 상상력과 과학적 관찰력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재조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것은 무조건 훌륭하다고 과장하거나 치켜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위에서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가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던 유·무형의 우리 문화유산들을 현대의 과학적 접근법을 이용해 그 가치를 역으로 검증해 낸다.

도깨비 등 과학적으로 접근…그 가치 검증

"세종 때 세계 최초 과학영농 '온실'" 밝혀

도깨비, 고스톱, 장승, 산삼, 인삼, 소나무, 뱀장어에 이르기까지 책장을 넘기다보면 "도대체 이것도 문화유산인가?"싶을 정도로 엉뚱한 소재들이 과학속으로 뛰어 들어온다.

인간이 오래동안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던 것이 설령 도깨비일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그럴만한 가치가 남아있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 시각이다. 우리 조상이 믿고 의지하고 보편화 시킨 것이라면 현대 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배격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인들에게 이상하게 비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것으로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외국에서 도입된 새로운 풍습과 문화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정착시킨다면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을 예견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우리 것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는 게 저자의 지론이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 최초의 과학영농 온실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자랑한 금속활자와 측우기에 견줄만한 온실이 세종대왕때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밝히고 있어 앞으로 학계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옛 선조들이 겨울에도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온실을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온실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이 이 책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미스터리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

원작 KBS 역사스페셜

이은령 엮음

효형출판 / 7천5백원

원효가 파계승된 까닭은?

신비 속 역사인물 비사 재조명



<미스터리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숨겨진 역사, 잃어버린 기억들을 여러각도에서 재조명한 새로운 역사 읽기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KBS 역사스페셜 프로그램의 내용 가운데 역사 속 인물들의 숨은 이야기를 책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다룬 것이다.

신비한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비사를 추적하는 형식으로 꾸며진 이 책은 역사 속의 인물들과 그 주변을 다룬 것들 가운데 15편을 골라 묶었다. 방송대본과 녹화 테이프를 토대로 작가 이은령 씨가 전체적인 틀을 재구성하여 새로이 글을 썼고, 방영 당시의 화면 가운데 꼭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화면 및 일반 화면을 참고 도판으로 활용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물군들의 다채로운 모습들과 만나게 된다. 시대를 잘못 만나 뜻을 펴지 못하고 스러져간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상황이 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자질과 비전을 나름대로 현실화한 이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다간 사람들의 애틋한 사랑과 믿음으로 엮인 이야기도 오랜 세월을 뛰어 넘어 감동과 교훈을 준다. 하지만 인물에 대한 전기적 이야기보다는 인물과 그 시대 및 주변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 일반 전기물과 다른 점이다.

'원효는 왜 파계승이 되었나'에서는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고,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진정한 화합의 길을 제시한 위대한 사상가 원효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천년 전의 벤처기업 장보고의 성공비결'에서는 9세기 동아시아 삼국에 흩어져 있던 신라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조직,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실현한 장보고의 시대를 앞서간 도전과 성공을 이야기한다. 이밖에도 '조선왕조 기피인물 1호 허균', '신윤복은 왜 여인을 그렸나?', '임란 포로 체험기 <간양록>의 저자인 선비 강항은 일본에 무엇을 남겼나?'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아로마 – 냄새의 문화사'

콘스탄스 클라센 외 지음 / 김진옥 옮김

현실문화연구 / 1만2천원



냄새의 문화적 역할 처음 밝혀내

몇 해 전 조선후기에 편찬된 <재물보>(1798년)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高麗臭(고려취)'라는 항목을 발견하였다. '고린내'라는 한글 표기와 함께 "세간에 이르기를, 고려인이 씻지 않기 때문에 북경인이 그 냄새를 '고려취'라고 불렀다"고 쓰여 있었다. 흔히 '고린내'라면 발 냄새를 비롯해 향기롭지 못한 냄새의 대명사가 아니던가? 그 고린내가 고려인의 냄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퍽 흥미로웠다. 이어진 주석에 "하지만 발 냄새는 고려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나는 냄새"라고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속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린내가 실제 고려인의 청결이나 냄새보다는, 이민족을 경계하고 우월감을 조장하려는 중국인의 의도가 깔린 표현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록 속에서 냄새가 민족적 경계를 창출하고 강화하는 상징적 수단이 된 사례를 확인한 기회였다. 그 후 냄새는 나의 역사 연구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최근 망각의 저편에 사라졌던 냄새의 향연을 다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아로마 – 냄새의 문화사>라는 책 읽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다. 콘스탄스 클라센을 비롯한 3명의 교수가 쓴 이 책은 서구와 비서구,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냄새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미시사적으로 탐구한 저작이다.

'후각은 야만·광기의 감각' 인식 깨뜨려

냄새, 인간 문화의 본질 이해하는 열쇠

사실 우리는 냄새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숨을 들이쉴 따름이다. 하지만 냄새에는 힘이 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오늘날 냄새는 경시되어 왔다. 동물들과 달리 직립 이후 인간의 후각은 미약하고 퇴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후각이 미개발 됐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냄새의 중요성을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한 저자는 근대 서구의 시각(視覺) 중심주의에 의해 가려진 전근대의 후각 세계를 발굴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삶의 공간 모든 곳에 향료 사용이 풍요로웠다. 향기는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로운 삶을 위해서 뿐 아니라 대중적 오락의 쾌감, 계급의 구분, 치유제, 승리의 기원 등 실로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중세에 들어서도 향료는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예컨대 17세기 베르사유궁전에서는 요일별로 매일 다른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에티켓에 어긋날 정도였다. 그러나 계몽주의와 위생학의 발달로 인해 19세기에 이르러 향기는 종교와 의학의 영역에서 쫓겨나 감정과 관능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그 결과 후각에 대한 무시와 억압이 19세기 문명인이 지닌 결정적인 특성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태도는 곧 현대 서구의 후각관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서구의 향기문화와 달리 비서구 문화권의 냄새를 다양한 풍습을 통해 다룬다.

서구와 비서구 사회에서의 냄새의 문화적 발달을 인식한 저자들은 현대 서구의 후각적 특성을 소개한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냄새는 주변적이며 억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반면에 현대의 권력은 냄새가 없는 무취성이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계급구분의 비밀은 바로 조지 오웰이 지적한 것처럼, '하층계급은 냄새가 난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냄새는 계급 간의 경계 뿐 아니라 민족집단, 남녀 사이의 권력관계를 창출하고 강화하는데도 동원된다.

끝으로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냄새가 새롭게 복원되면서 후각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행로를 살피고 있다. 후각에 대한 관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향기를 이용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아로마테라피' 또는 '아로마콜로지'로 발전한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서구와 다채로운 비서구 사회에서 냄새가 수행했던 문화적 역할을 최초로 밝혀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서도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시각을 이성적인 감각으로 인식한 반면 후각을 광기와 야만의 감각으로 간주한 서구 현대가 만들어낸 '후각의 침묵'을 깨뜨렸다는 사실에 있다. 무엇보다도 냄새는 인간 문화를 이해하는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냄새의 감각을 무의식의 세계으로부터 새로운 사회적·지적 담론의 열린 공간으로 이끌어 내는데, 이 책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심승구/ 한국체육대 교양학부 교수

<아로마-냄새의 문화사>는 향기로 가득한 고대 그리스의 연회에서부터 역사상 최고의 블루베리 항에 이르는 냄새의 비밀스런 역사를 밝혀낸 것이다. 냄새가 강력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룡 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6,000원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 자세, 방황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 도 新禱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 성취 체험담 총 52편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한 부처님의 가피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정초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미타신앙·미타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에서 누리는 행복,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 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히 불교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1독을 권합니다.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풀이 되어 있는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장신앙·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김현준 편역 / 값 5,000원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록–지장보살예찬문

참회·참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무아(無我)이야기(1)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무아론이 있다. 무아(無我)란 한자를 풀이하면 내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범어로 나에 해당하는 용어는 아트만이며, 이것에 부정 접두사인 a를 붙여 이루어진 안아트만을 무아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我)를 의미하는 아트만이란 용어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이미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트만은 우주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땅에도 물에도 공기에도 인간에게도 존재하는 것이다. 전우주를 통일하고 있는 근원적 요소라는 점에서 인도사상의 핵심이다.

아트만은 우주의 통일자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역시 존재할 것이란 점에서는 시간적 초월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아트만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불변의 요소이다. 따라서 아트만이 있기에 인간은 끊없는 윤회를 반복하더라도 자기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트만 이론은 윤회론에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불변의 요소인 아트만이 있기에 인도의 브라만 사회에서는 계급모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브라만, 왕족, 평민, 노예는 이미 각자의 아트만에 의해 결정되어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뀔 수 없다는 사고가 그것이다. 즉 노예의 종성은 노예로, 브라만의 종성은 브라만의 종성으로서 영원한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겁의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그것은 수행을 통해 깨닫는 길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에게 주어진 신분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신분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고, 직업의 폭이 정해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무아설은 이상과 같은 인도사회의 인습과 사고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설된 가르침이다. <잡아함경>1권 103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아(我)가 아니고, 또한 나의 본체도 아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 바라봐야 좋다". 그리고 이어서 감각, 표상, 의지, 의식 등 정신적인 요소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상의 경전뿐만 아니라 많은 경전에서 비슷한 설법을 전개하고 있다.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무아설을 통해 부정한 것은 대략 세 가지라는 사실이다. 아소(我所)의 부정, 아(我)의 부정, 아체(我體)의 부정이다. 여기서 아소란 아소유(我所有) 즉 나의 소유라는 말을 줄인 것이니 '내 것'이라는 정도의 뜻이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 말하는 것은 결국 소유의 고정, 항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난 일이다. 이것은 상식화되어 있는 자기 소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부정한 것이자 소유에 대한 집착을 배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에 대한 부정이란 당시의 사상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던 자아에 대한 사고를 부정한 것이다. 우파니사드의 사상가들은 개인아를 의미하는 아트만을 보편적인 실재자의 위치로까지 격상시켜, 우주의 주체자로 간주되고 있던 브라만(梵)과 같다고 보고 범아일여의 사상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가 아니다"라 말하는 것은 점대적 무체약적인 자아의 관념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소유 등 부정
印 계급사회 인습타파 위한 가르침

아체에 대한 부정이란 자아의 불변하는 본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고에 대한 부정이다. 범어 메아타(me atta)를 중국의 역경승들이 아체라고 번역했는데 자아의 항구불변하는 본체가 내포되었다는 의미를 고찰했기 때문이다. 한 문에서 몸을 의미하는 체(體)란 글자 속에는 불변의 본체, 본성, 본질을 가리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육체가 소멸한 뒤에도 영혼이 남아 영겁을 윤회한다고 말할 때는 불변의 공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귀의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의지하라는 것일까요?

불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성은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낳기도 전의 본래 그 자리, 우주적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중생심을 여읜 곳입니다. 오랜 업장을 통해 형성된 온갖 악습을 훨훨 버리고 가장 청정하고 순진무구한 자연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불 하는 것입니다. 귀의란 자신의 본래자리, 성불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내는데서 시작됩니다.

현실적으로 중생이 귀의 하는 곳은 바로 삼보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의지의 집합체인 승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삼보란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같은 컴퓨터 시대에 비유하자면, 불보는 하드웨어이고 법보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그리고 승보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불보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스승으로서의 자리에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서의 불보는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의지처인 것입니다. 법보는 불보에 이르는 다양한 길, 즉 성불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팔만사천의 경전과 수행법 그리고 방편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하여 법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법보에의 귀의라 할 수 있습니다.

승보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귀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승보는 승가공동체. 수행공동체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행하는 무리로서의 승보는 청정성과 부단한 정진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승보는 스님들의 집단 즉 승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류를 거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보가 중생들의 진정한 귀의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세간인 승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지역에서 살아 보았는데 불교에 대한 인식이 지방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의 깊에서 스님과 재가자가 싸움을 하면 지나 가는 사람들이 재가자를 나무라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스님에게 그러면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 "세상 말세다. 중이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라며 등을 돌립니다.

언뜻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 그 지역 사람들은 귀의심이 있고 뒤의 경우는 귀의심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중생이 스스로 삼보에 귀의하려는 마음이 움트지 않으면 불법인연을 만날 수 없습니다. 스

불보 항상 여여한 하드웨어
법보 지혜 펼쳐진 소프트웨어
승보 불법실천의 운영자
삼보는 우주 순환의 원동력

님과 재가자의 싸움을 눈으로 보느냐 자신의 불성에 반조한 마음으로 보느냐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가자가 귀의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덕의 인연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답게 양심적으로 정각하게 사는 가운데 수시로 귀의의 인연이 다가오고 형성되는 것이니 그 챌라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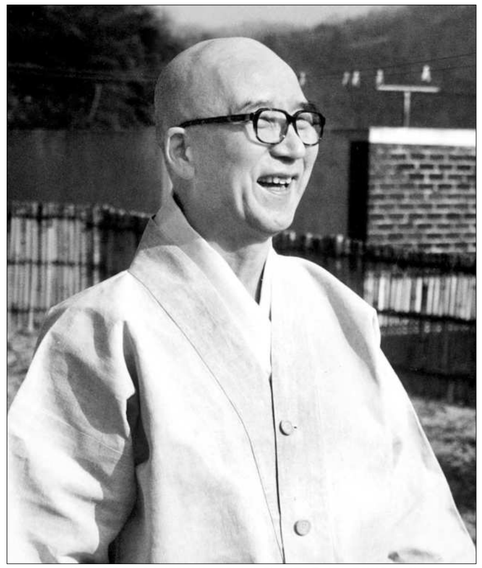
이미 숙세의 인연을 통해 불법에 귀의한 승단은 과연 중생들의 귀의를 받을 자세가 바르게 갖춰져 있는가에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한국불교,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비판을 함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나 틱낫한, 대만의 성운스님 등이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모두 세상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단박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법문을 하거나 친견을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권위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다니고 고통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눈길을 주는데서 세계인들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불론 우리나라에도 세상 속으로 자비를 회향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침보사 조실 석주스님처럼, 평생을 한글대장경불사, 어린이 포교, 복지사업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종단 행정을 할 당시 친한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석주스님에게 '도시 종정'이라는 애칭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도 스스로 출세간의 위의와 정신을 잃지 않는 분이야 말로 이 세상에 힘이되는 큰스님일 것입니다. 그런 스님이 많아야 보다 많은 중생들이 귀의할 곳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스님들이 스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중생들은 귀의할 곳을 잃게 됩니다. 요즘 일부 지식인들이나 직장인 불자들이 스님을 모시지 않고 법회를 하고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모시고 가르침을 받을 스님이 없다는 답답함을 그렇게 항의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귀의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귀의하는 중생에 대한 승가의 한량없는 사랑과 귀의하는 중생의 변함없는 존경심이 어우러질 때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자리, 본래 성품 그대로의 청정으로 돌아가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데서 정토의 새벽은 열리는 것입니다. 승단과 재가자들이 함께 여는 정토의 새벽에 '즉견여래(卽見如來)'의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보와 법보는 3천년전부터 항상 여여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에 그 보배를 쓰는 방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을 가장 잘 쓰는 지혜를 얻기 위한 진정한 귀의가 없다면 세상은 바로 악마의 소굴로 변합니다. 세상과 사람들 의식의 변화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이야말로 승가와 재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어서 승가의 반성과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미 우리는 삼보에 귀의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한번 귀의의 좀 뜻을 되새기고 정진의 고삐를 가다듬으면 누구나 즉견여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 사진=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진철스님은 우주법계의 원동력인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불국토를 이루는 근원임을 강조한다.

지극한 귀의가 성불이르는 첫 걸음

지상 백고좌

진 철 스님

(전 마곡사 주지)

'본래자리' 돌아갈 좋은 인연 만드는 삼 돼야

엄동설한에 활짝 핀 매화 한 그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분재 농원을 하는 분이 매화꽃 같이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지고 왔습니다. 하도 고마워서 차 한 잔을 대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 보살님으로부터 매화꽃 보다 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보살님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각박한 세상살이의 온갖 풍상을 겪으며 두 딸을 키웠는데 그 중 한 명은 출가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고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왜 따님을 출가시키려고 하느냐고. 그 보살님은 5년 쯤 전에 우연히 반야심경을 해설한 책 한 권을 얻게 되었는데 왠지 마음이 끌려 한 번 읽어 본 것이 두 번, 세 번 연거푸 읽게 되었고 나중에는 달달 외울 수 있을만치 그 책을 읽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도 조금씩 이해가 가고 마음이 즐거워 지더랍니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농사꾼이 그토록 간절하게 반야심경을 읽었다는 것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발아(發芽)된 불심이 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두 딸 중 한 명은 비구니가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살님이 가고 난 뒤 나는 매화 향기를 맡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불성이라는 씨앗을 성불의 꽃으로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불심이 싹튼 그 보살님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생들에게 가장 좋은 인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하는 것이야 말로 중생고를 여의고 밝은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귀의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의지하라는 것일까요?

불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성은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낳기도 전의 본래 그 자리, 우주적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중생심을 여읜 곳입니다. 오랜 업장을 통해 형성된 온갖 악습을 훨훨 버리고 가장 청정하고 순진무구한 자연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불 하는 것입니다. 귀의란 자신의 본래자리, 성불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내는데서 시작됩니다.

현실적으로 중생이 귀의 하는 곳은 바로 삼보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의지의 집합체인 승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삼보란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같은 컴퓨터 시대에 비유하자면, 불보는 하드웨어이고 법보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그리고 승보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불보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스승으로서의 자리에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서의 불보는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의지처인 것입니다. 법보는 불보에 이르는 다양한 길, 즉 성불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팔만사천의 경전과 수행법 그리고 방편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하여 법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법보에의 귀의라 할 수 있습니다.

승보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귀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승보는 승가공동체. 수행공동체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행하는 무리로서의 승보는 청정성과 부단한 정진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승보는 스님들의 집단 즉 승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류를 거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보가 중생들의 진정한 귀의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세간인 승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지역에서 살아 보았는데 불교에 대한 인식이 지방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의 깊에서 스님과 재가자가 싸움을 하면 지나 가는 사람들이 재가자를 나무라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스님에게 그러면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 "세상 말세다. 중이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라며 등을 돌립니다.

언뜻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 그 지역 사람들은 귀의심이 있고 뒤의 경우는 귀의심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중생이 스스로 삼보에 귀의하려는 마음이 움트지 않으면 불법인연을 만날 수 없습니다. 스

불보 항상 여여한 하드웨어
법보 지혜 펼쳐진 소프트웨어
승보 불법실천의 운영자
삼보는 우주 순환의 원동력

님과 재가자의 싸움을 눈으로 보느냐 자신의 불성에 반조한 마음으로 보느냐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가자가 귀의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덕의 인연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답게 양심적으로 정각하게 사는 가운데 수시로 귀의의 인연이 다가오고 형성되는 것이니 그 챌라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숙세의 인연을 통해 불법에 귀의한 승단은 과연 중생들의 귀의를 받을 자세가 바르게 갖춰져 있는가에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한국불교,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비판을 함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나 틱낫한, 대만의 성운스님 등이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모두 세상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단박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법문을 하거나 친견을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권위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다니고 고통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눈길을 주는데서 세계인들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불론 우리나라에도 세상 속으로 자비를 회향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침보사 조실 석주스님처럼, 평생을 한글대장경불사, 어린이 포교, 복지사업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종단 행정을 할 당시 친한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석주스님에게 '도시 종정'이라는 애칭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도 스스로 출세간의 위의와 정신을 잃지 않는 분이야 말로 이 세상에 힘이되는 큰스님일 것입니다. 그런 스님이 많아야 보다 많은 중생들이 귀의할 곳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스님들이 스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중생들은 귀의할 곳을 잃게 됩니다. 요즘 일부 지식인들이나 직장인 불자들이 스님을 모시지 않고 법회를 하고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모시고 가르침을 받을 스님이 없다는 답답함을 그렇게 항의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귀의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귀의하는 중생에 대한 승가의 한량없는 사랑과 귀의하는 중생의 변함없는 존경심이 어우러질 때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자리, 본래 성품 그대로의 청정으로 돌아가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데서 정토의 새벽은 열리는 것입니다. 승단과 재가자들이 함께 여는 정토의 새벽에 '즉견여래(卽見如來)'의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보와 법보는 3천년전부터 항상 여여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에 그 보배를 쓰는 방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을 가장 잘 쓰는 지혜를 얻기 위한 진정한 귀의가 없다면 세상은 바로 악마의 소굴로 변합니다. 세상과 사람들 의식의 변화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이야말로 승가와 재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어서 승가의 반성과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미 우리는 삼보에 귀의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한번 귀의의 좀 뜻을 되새기고 정진의 고삐를 가다듬으면 누구나 즉견여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 사진=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기자가 본 진철스님

"놓고 살려고 시골로 도망 온 사람을 왜 찾아 온다는 건지 알 수 없네…"

진철 스님은 기자의 방문을 한사코 거절 했었다. 이제 동분서주하던 시절인연들을 하나씩 놓으려는데 굳이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거처하는 토굴의 위치도 알려주지 않아 오래전부터 스님을 모셔 온 한 불자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새해 인사를 간다기에 따라 붙었던 것. 막상 스님의 거처에 당도하니 의외로 따듯하게 맞아 주었다.

"허허, 기자들이란…"

진철 스님의 방은 다락 하나와 화분대 세 개 그리고 방석 몇장이 전부였다. 방에 들어섰을때 가운데 놓인 방석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셨던 것이다.

행정·복지 두터운 경험…토굴서 '놓는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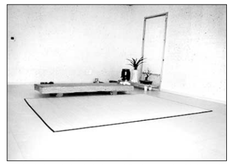
전과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세 차례씩 혼자 죽비를 치고 참선을 한다. 승용차도 처분했다. 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찾아온 손님들도 가급적 짧게 만난다. 스님은 총무원의 국장, 부장을 비롯한 각종 종무행정 경험이 많다. 복지활동도 상당히 빨리 시작해 강릉재원을 열어 10여년 운영했다. 대사회적인 단체에서 이사장이나 고문 등을 맡은 경력도 두텁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기 위해 충남 유성과 조치원 중간 어름의 농촌 마을에 토굴을 짓었다. 이름도 붙이지 않은 토굴이다.

"단칸 집에 무슨 이름이 필요해. 나에게 불였던 많은 이름들을 떼어 내려고 온 곳에 또 무슨 이름표를 붙이란 말인가?"

진철스님이 흙벽돌 집에서 꾸리고 있는 단출한 살림살이가 오히려 커다랗게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비워내려는 노력의 힘 때문일 것이다.

진철스님은 1940년에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사범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를 받아 종단행정과 사회복지 활동의 기반을 닦았다. 1964년 공주 마곡사에서 출가해 마곡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낙산사 주지, 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 한국불교사회교육원 이사장 등도 역임했다.





◇진철스님이 거처하는 단출한 토굴의 겉(사진 위)과 속(아래).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퇴휴스님 (下)



퇴휴스님이 개원 한 법장사는 올해로 12살이 되었다. 법장사는 생활(生活)불교, 실천(實踐)불교, 대중(大衆)불교의 기치를 들고 그동안 대단한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양적인 면에서 보자면 창동역 앞 20여평의 건물 귀퉁이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2년만에 중계동의 요지에 위치한 건물에 200여평을 분양받아 확장 이전했고, 다시 7년만에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단지내에 300여평의 종교부지를 확보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주변의 여러 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한다. 10여년 만에 이루어낸 포교의 성과다.

또 질적인 면으로도 대단하다. 도심포교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산불교대학을 운영하여 일년에 두 기수씩 지금까지 25기 정도를 배출했고,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거사회, 신도회등의 조직과 불교대 동창회, 각 지역의 법등법회등의 신행모임을 갖추어 기도와 수행, 포교와 교육의 역할을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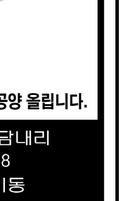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감당해 내고 있다.

또한 스님은 지역 포교의 필요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역량을 보여준다. 도봉경찰서 경승실장, 57사단 향승위원장등을 맡아 원만하게 소임을 보았다.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다. 나도 퇴휴스님 덕분(?)에 스님 뒤에서 경승실, 향승위원회의 총무 소임을 맡았었다. 그리고 많이 배웠고…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스님 포교당의 사업규모와 내용이 가히 본사(本寺급이라고 할 수 있다. 법장사의 이러한 성장까지 스님의 노력은 참으로 대단했을 것이다. 특히 개원 당시의 어려움은 직접 포교당을 운영해 보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그만 포교당을 운영하는 나도 안내전단 배포, 점을 접집게 꾸미기 위한 어머 편의시설 설치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법장사의 규모를 보면 그 어려움이 상상이 간다.

가끔 스님과 만나 점의 여러 문제와 운영등에 관한 담소를 나누며 지난 날의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를 듣는데 기억에 황벽희운(黃檗希運)선사의 매화꽃 이야기가 있다.

"매화꽃은 여러 가지의 꽃 가운데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며,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험겁고 고통스러워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매화는 영하 20도 이하의 강추위를 이겨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낸다. 그리하여 이른 봄에 화사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렇듯이 모든 영광과 기쁨 뒤에는 반드시 수 많은 인고(忍苦)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아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불법을 전등(傳燈)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란다. 전등이란 말은 법의,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전한다는 의미이다.

퇴휴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신도들에게도 항상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정

법장사 창건…눈부신 도심 포교
좋은 절 좋은 불자 가꾸기 헌신

진하자고 말한다. 오히려 희망과 진리의 등불이 꺼질 것을 두려워 하자고 한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함께 하자고 강조한다. 그리고는 몸소 모범이 된다. 또한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일한다. 그럴 때 스님의 목소리는 사자후(獅子吼)에 다름 아니다. 얼마나 힘찬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절 신도들은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 그것은 자신감이고 신념이다.

지금까지 포교당에 살면서 느낀 점이라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님의 말처럼 그저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이다. 이런 고통의 아픔이 밑거름이 되어 다른 어느곳보다 훨씬 성장하고 체계적인 신행생활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새삼 느낀다. 욕심내 필요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길 발원할 뿐이다. 흘륭한 불자가 되기 보다는, 또 흘륭한 절이 되기 보다는 좋은 불자, 좋은 절을 가꾸고 싶다. 나는 이러한 작은 소망을 오늘도 퇴휴스님에게서 배운다.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

기적의 신물질(생체활성화물질) BeautyScan / HealthScan Series

BeautyScan/ HealthScan 이란? 당사연구소의 핵심개발물질 고유명사이며 순수한방생약성분에서 추출한 주요성분을 법제와 구증구폭 처리하여 개발된 신물질(생체활성화물질)로서 BeautyScan은 피부에 HealthScan은 인체내에 작용하여 생체리듬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특성화 물질입니다.

출시품목(화림한방화장품)
- 한방기능성화장품(15종)
- 한방기능성비누(8종)

출시품목(화림한방바이오)
- 한방선식(4종)
- 한방다이어트(2종)
- 건강보조식품(2종)
- 천연향(6종)

♠ 현재 "다음쇼핑몰" http://shop.daum.net/ 입점
전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울25개구, 전국 16개 지구 판매계약
인터넷쇼핑몰 "소호마트" http://www.sohomart.co.kr 입점
2002 국제생활용품박람회 (MBC주최-대구전시컨벤션센터) 참가
2003. 1 일본(도쿄) 수출계획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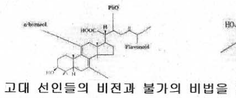
불자로서 화장품/ 건강식품, 다이어트 사업에 참여하실 분(소자본 가능)

HR (주)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주)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 투자자 모집 ♣

업체명	(주)화림한방화장품	(주)화림한방바이오
법인번호	170111-0217712	170111-0182965
사업자등록번호	504-81-45677	504-81-47807
최초설립일	2001. 3. 28	2001. 3. 28
본사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번지	
업종	제조	제조, 도매
총덕	비누, 화장품	향, 농산물, 무역

- BeautyScan/ HealthScan 의 부분 조직도 -



Atractylodes japonica KOIDZ

고대 선인들의 비전과 불가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신개발 생체활성물질을 각종 화장품/비누 및 식품에 응용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써 한방바이오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저희 회사를 알리 고자 합니다. 수입의 재투자로 인한 적극적인 제품개발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사세확장과 자체 영업망 구축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추후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운영되는 회사로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 앞장 서는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국지사 대리점 ◈ 투자자모집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번지 ☎ 053)313-2711~5 FAX : 053)313-2716 http://www.hrcos.com

기쁜소식!



수맥파, 단 30,000원에 말끔히 잡는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바이레이

보이지 않는 홍기, 밤새 괴롭히는 수맥파에서
누구나 해방되는 건강시대가 열렸다!
손쉽게 잘라서 깔면되는 획기적인 바이레이
수맥파는 유해파...
당신의 잠자리는 수맥파로 부터 안전할까요?
수맥파를 흡수하는 바이레이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바이레이는 펼쳐서 깔기만 하면 되는 간편하고도 저렴한 제품으로 침대 매트리스, 카펫트 밑 등등 원하시는 장소 어디나 사용 가능합니다.
바닥장식재 시공 전에도 바이레이를 깔아 건강을 지키십시오.

제조원 : 대원화성주식회사
문의전화 : 02)3158-3351
H·P : 019-281-3850
http : www.bye-ray.co.kr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혈청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괴롭힌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광고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물무은 원장 개발학사(한의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숲,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음파메칼라이프 Co. (구)반도체학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

단청문양 8천여점 디지털화
생활·산업용품 디자인 활용

우리의 5천년 역사와 맥을 함께 해온 불교문화는 분명 세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다. 그래서 문화적 잠재성이 큰 불교문화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런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력 아이디어 부족으로 사실상 불교문화 콘텐츠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개발을 시도했지만 불교라는 종교적 특수성과 상업성의 결여로 이미 실패를 맛본 콘텐츠도 수두룩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미래의 불교문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개발중인 불교문화콘텐츠를 소개한다.

불교문화콘텐츠 부문별 현황 (下)

'오세암' '삼국유사' 등 애니매이션 제작
'탄이의 불교여행모험' 게임 개발중
모바일 서비스 단조로와…다양화 필요

캐릭터 정석규 호남대 인터넷미디어대학 교수는 지난해 2월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제2차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사업자로 선정돼 한국 불화(탱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국적 캐릭터로 개발중이다. 중생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보살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 그리고 보살이나 호법신의 명을 받아 직접 일을 수행하는 판관, 귀와, 사자, 야차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정 교수의 손에 의해 캐릭터화 되고 있다.

포장 디자인 전문회사 (주)엔알케이(사장 정명희)도 올 6월 만봉스님의 단청문양 5백여 작품과 유명사찰의 단청 8천여점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다. 이번 캐릭터는 스님의 그림을 스캔한 후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여성들의 속옷과 손수건, 스카프, 수저, 그릇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 비행기 외부의 디자인, 사무용 가구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번 작업이 끝나면 부처님 전생이야기, 지장보살의 지옥이야기 등에서 소재를 활용해 캐릭터화 할 계획이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도 올해 불국사를 비롯해 신흥사와 해인사, 송광사 등 대표적인 관광사찰과 연계해 해당 사찰의 특성을 살린 사찰통합이미지를 활용해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추진중이다.

애니메이션 아동문학가 정채봉씨의 원작동화를 바탕으로 (주)마고21이 제작한 2D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4월 개봉된다. 앞 못보는 누이와 함께 사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따뜻한 그림구성과 탄탄한 시나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종옥 위덕대 국문과 교수도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 130여편 가운데 설화의 배경이 된 지명이 확인 가능한 50여편을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군신화, 박혁거세, 연화화랑 등 삼국유사 앞부분에 실린 10여편의 설화들을 동화로 각색해 애니메이션작업을 마친 상태며 완성되면 불교유치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게임 게임업체 조이온이 뮤지컬 '해상왕 장보고'를 기반으로 제작한 PC게임 '해상의 빛, 장보고'를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영화, 소설, TV드라마 등이 게임으로 제작돼 인기를 끌자 뮤지컬을 게임으로 개발한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다. PC게임 '해상의 빛, 장보고'는 3차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역사상 실존 인물들의 업적과 복식, 건축양식 등을 고증을 통해 재현할 예정이어서 교육적 효과도 높을 전망이다.

또 적경스님(봉안사 주지)이 현재 불교게임 '탄이의 불교 여행 모험'을 (주)세이생명과학시스템과 함께 제작 중이다. '탄이의 불교 여행 모험'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모습이 없다. 마치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무예와 검법의 재미까지 가미시켰다. 스님은 앞으로 <법화경>과 <화엄경>도 게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캐릭터 개발 등 디자인 전문회사인 투알앤디는 현대적 시각으로 고려시대의 국가의례인 '팔관회'를 게임으로 콘텐츠화하고 있다. 정치와 외교, 문화와 종교, 무역 등 3가지 관점에서의 특성을 시나리오화할 예정이다. 6월경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모바일 음성정보 서비스업체 스타링에서 현재 '반야심경'과 '천수경' 등의 독경소리와 '산회가' 등의 찬불가를 휴대폰의 통화연결음에 서비스하고 있다. 또 성악가 정율 스님의 '노래하는 기도' 등도 함께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요자층이 많지 않아 레퍼토리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화에 있는 지국천왕의 원형을 살린 캐릭터(사진위)와 만봉스님의 단청문양을 버스 외양디자인에 활용한 사례(사진 아래).



돌에 새긴 '반야심경'

이색전시 심무용씨 부산 佛문화원서 전각展

'마하반야바다밀다심경 관자재보살….' 불자들이 늘 외우는 <반야심경>을 돌에 사경한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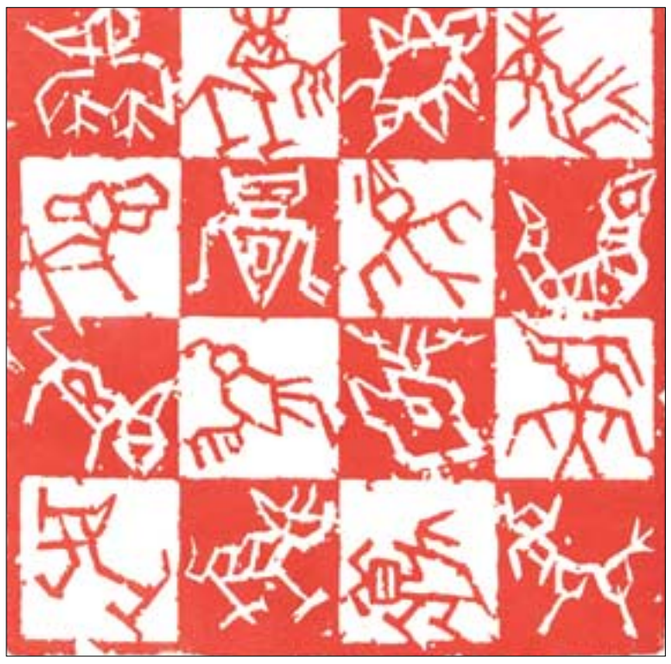
40여년 동안 전각가로 활동해온 심무용씨가 30일까지 부산 초량동 프랑스문화원에서 여는 전각전시회가 바로 그것. 특히 <반야심경>의 경구를 64개의 돌에 이어 새긴 작품이 눈에 띈다.

갑골문·전서·금석문등 글씨체 옛스럽고 다양

각기 다른 도장 모양과 글씨체를 구사해 흥미롭다. 작품마다 느껴지는 인고의 흔적때문일까. 돌에 새겨진 작가의 종교적 심상까지 헤아려 보게 된다.

이번 작품에서는 우선 선(禪)적인 문구가 많다. '월하목계명(月下木鷄鳴)', 달빛 아래서 나무 닭이 운다는 뜻. 문구는 불교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추사 김정희의 다시(茶詩)와 이태백의 시, '도법자연(道法自然)' 같은 도가적 풍모의 문구, '온고이지신(溫古而知新)' 같은 <논어>의 구절도 선보였다.

서예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전각의 글씨체는 다양하며 옛스럽다. 갑골문 전서 금석문 등으로 그림의 멋이 담긴 고졸한 아취의 글씨들이다. 거기에다 가 돌에 새겼기에 나무와는 또 다른 투박하고 강인한 맛이 느껴진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총 30여점. 전시 기간 중 오후 2~7시에는 작가가 상주하며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준다.(051)465-0306. 김주일기자



◇돌에 만다라 문양을 형상화 한 심무용씨의 '전각만다라'.

'10·27법난' 진상은 이렇다

MBC-TV, 16일 '이제는 말할수 있다' 방영



◇10·27법난이 일어난지 23년만에 TV를 통해 법난이 일어난 발단과 내막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프로에서는 지난 1986년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2천여 스님들이 모여 10·27법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습도 방영된다.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정권이 불교계 정화와 용공분자, 범법행위자 색출을 명분으로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 주요사찰에 난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 스님과 재가불자 1백53명을 연행했던 '10.27 법난'의 진실을 규명해보는 프로그램이 TV로 방영된다.

MBC TV의 시사 프로그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16일 밤 11시 30분 '10·27 법난-45계획의 진실' 편을 방송한다. 이 프로에서는 '10·27 법난'을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 유린행위로 규정하고, 의혹 속에 갇힌 법난의 발단과 내막이 속속들이 파헤쳐 진다. 또 법난에 대한 불교계와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며 진상규명 운동을 하는 불교계의 모습도 소개한다. "실증적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가해자들 역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채환규 PD는 "이 프로그램이 의혹 속에 갇힌 10·27 법난의 진실 규명에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달님에게 소망 빌어 봐!!!

민속박물관, 남산한옥마을 등 전통놀이 풍성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3년만에 다시 점화

15일은 정월 대보름날. 조상들은 새해 첫 보름인 이날 동산에 올라 떠오르는 보름달을 맞이하며 소원을 빌었고,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를 하며 한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했다. 대보름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보름달을 맞을 수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가 보는 것은 어떨까. 부모들은 어릴적 추억을 되살리고 자녀들에겐 세시풍속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속박물관회는 16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지 끼우기', '달집 태우기' 등 소원빌기 행사를 펼친다. 대보름날인 15일에는 박물관에서 시작해 광화문을 거쳐 돌아오는 대보름맞이 풍물굿을 열고, 낮 12시에는 엄마와 함께 배우는 풍물마당도 마련했다.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투호,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떡과 부럼 등을 파는 난전도 볼 수 있다.(02)734-1341

국립중앙극장은 15일 예악당에서 대보름맞이 무용극 '놋다리 밟기' 등을 무대에 올리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달집태우기'와 '오곡밥 만들기' 등이 열린다.(02)2266-6937~8 용인 한국민속촌은 15일까지 농악, 널뛰기, 줄타기 등 공연과 가족대항 민속놀이 경연 등을 벌인다.(031)286-2111

지방 자치단체와 문화원 등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지역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해 14~15일 관내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제21회 고싸움 축제'를 연다. 고싸움 놀이는 광주 남구 칠석동 칠석마을에서 대보름날 실시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한편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16일 박물관 광장에서 당산제와 달집 태우기, 민속공연 등으로 구성된 '제8회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연다.(062)651-9020

충북 제천문화원은 15일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 광장 일대에서 지게 목발 걷기, 엿치기, 제기 차기, 널뛰기 등이 펼쳐지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한다.(043)642-3646 또 충북 단양군은 15~16일 단양읍 수변무대와 경비행장 일원에서 '제5회 단양 전통 연날리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회에서는 제기 차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의 전야 행사와 창작 연날리기, 창작연 전시회 등이 펼쳐진다.(043)422-3011

경남 창녕군과 배바우산악회는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인 화왕산 정상의 '억새풀 태우기 행사'를 3년만에 개최한다. 화왕산 축제는 풍년 농사와 사회 안녕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소원성취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 벌이는 행사로, 보름달이 뜨기 전 대형 달집과 둘레 2.7㎞의 화왕산 성내 5만6000평의 마른 억새풀을 태우는 행사다.(055)530-2241

여수령 기자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땅콩 찰떡

찹쌀 5컵, 생땅콩 5컵, 소금 약간

1. 찹쌀은 12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소금을 넣어 곱게 빻아 체에 내린다.
2. 땅콩은 겉껍질만 벗겨 물에 불렸다가 씻어 체에 건진 후 찹쌀가루에 버무린다. 단맛을 좋아한다면 설탕 1컵 정도를 함께 버무린다.
3. 시루에 창호지나 무, 호박잎 등을 깔고 ②를 올린 후 젖은 행주를 덮어 30분 정도 쪄 충분히 뜸을 들인다.

〈자료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분청다기

도예가 임남재 작품 마하몰 한정 판매

'분청다기'는 행천 도예연구원 임남재 원장의 작품으로, 다관 1개, 수구 1개, 찻잔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거칠면서도 질박한 아름다움을 가진 분청다기는 불교전문 쇼핑몰 마하몰에서 40세트 한정 판매하고 있다. 오동나무 상자 포함. 값 9만 8천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수행의 도약

자신의 아들이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난 후,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어 괴롭다고 하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 분은 저와 인사가 끝나자 저를 찾아 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친구를 따라 절에 갔다가 불교와 첫 인연을 맺었으니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25년이 되었군요. 25년 동안 제 신심이 여일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변함없이 부처님 제자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성불을 해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수행도 하려고 애를 썼고, 경전공부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은 물론 제 가족들도 가능한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아들이 대학입시에 실패하자 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삼독심의 덩어리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도 허무해서 선생님과 얘기나 좀 하려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분은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성불이라는 과제를 안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공부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다음엔 기도를 생활화해야겠다는 생각에 금강경독송과 사경을 해오고 있다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하는 그 분은 반야심경 사경을 3천편, 법화경 사경을 10편 한 후, 지금은 금강경 사경 천 번을 목표로 사경을 하고 있다했습니다.

수행을 계속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인 탐·진·치를 어떻게든 자신 안에서 제거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고 합니다. 삼독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탐·진·치가 업을 만들고, 업이 윤회를 만들고, 윤회가 고통을 만들면서 끝없이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않고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그 일을 실천에 옮겨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성취했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의 대학입시를 거치면서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희망한 대학에 낙방했음을 안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격렬한 감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저는 제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희망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고 말입니다. 제 자신한테 솔직하려고 노력하며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 그 '희망'은 '군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군림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명예와 직위

대가없는 결과·발전은 없어

아들이 대학입시에 실패하자 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삼독심의 덩어리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도 허무해서 선생님과 얘기나 좀 하려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분은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성불이라는 과제를 안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공부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다음엔 기도를 생활화해야겠다는 생각에 금강경독송과 사경을 해오고 있다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하는 그 분은 반야심경 사경을 3천편, 법화경 사경을 10편 한 후, 지금은 금강경 사경 천 번을 목표로 사경을 하고 있다했습니다.

수행을 계속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인 탐·진·치를 어떻게든 자신 안에서 제거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고 합니다. 삼독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탐·진·치가 업을 만들고, 업이 윤회를 그리고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 제가 아들한테서 바라고 있던 것은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제 자신한테서 제거 하려고 노력했던 탐심이 그대로 제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안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딸이 대학입시에 합격했음을 알고서도 흔쾌히 축하전화가 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도 괴로워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제 안에 있는 탐심·진심·치심을 없애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들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 자리들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탐·진·치·삼독심 때문에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싶었다면 그것이야 말로 25년 동안 수행을 해 온 결실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아들의 대학입시 실패가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삼독심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다면, 괴롭긴 해도 그건 오히려 그 분에게 내려진 불보살님의 가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중생인 우리들이 수행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化緣 (02)704-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불국토 이룩하는 그날까지

이원규(서울 광진구 자양2동)

우리 가족은 1988년,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하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에 1톤짜리 소형트럭에 기본적인 생필품 몇 가지만을 싣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께선 중동에서 근무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져 귀국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몇 해를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 가계는 점점 궁핍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몇 개 되지 않던 살림살이마저 빚보증으로 다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나서, 예전 직장상사의 부름으로 부천에 일자리를 잡으셨고, 때마침 사업이 잘 되던 작은아버지의 권유로 우리 가족은 상경해 작은집과 함께 살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작은집 식구들의 배려가 마냥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종'이라는 또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자 정신적으로 힘겨울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면 안방(작은집)에서는 찬송가가 동네가 떠나갈 듯 울려퍼졌다. 우리 식구가 있는 방에서는 천수경이 조용히 울려퍼지는 가운데 하루가 시작됐다.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아침기도는 베란다 한쪽에서 향을 사르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다. 소위 동생에게 얹혀산다는 강박감에 아마도 아버지는 더 힘이 들었을 것이다.

종교의 차이라는 또다른 거리감에 우리 가족의 서울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 역시 공장일, 식당일을 가리지 않고 했고, 어린 나와 동생도 서울 아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근처에 네 식구가 눕기에도 빡빡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다. 정말 말 그대로 눕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좁은 방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하기만 했다. 이제는 향도 마음껏 사를 수 있었고, 카세트에 찬불가도 마음껏 틀 수가 있었다. 그렇게 10여년이 흘쩍 지나갔다.

우리 가족이 부처님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대구에 있는 서봉사에서다. 서봉사는 나와 4살 어린 여동생에게는 외가집 같은 곳이다.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지금은 각 처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명순, 명엽, 명연 스님 등은 부처님이라는 가장 아래 서로 보듬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가족과 같은 분들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님에게는 친절한 조언자이셨고, 어린 나와 동생이 마음껏 뛰어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잠자리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갈 때, 내 동생의 꿈에 나타나 우리 가족을 깨워 목숨을 건져준 분도 서봉사 스님들이다. 내가 뛰어놀다가 빈혈로 쓰러졌을 때 보살펴주신 분 역시 서봉사 스님들이다. 이렇게 나는 서봉사에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부처님과 가까워졌고, 학교공부는 물론 모든 불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서울에 처음 와서 인연을 맺은 곳은 봉은사다.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마치 산에 온 듯 웅장한 봉은사의 일요법회에 우리 가족은 빠지지 않고 참석해 불심을 키워갔다. 그 때 안타깝게도 봉은사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일주문 밖에서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열어야 했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기를 반성하며 돌아보고, 또 원을 세워 더 발전된 우리를 만들기 위해 법회를 하는 도량에서 그런 뜻하지 않은 이권다툼이 일어나니 어린 나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봉은사 법당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 어디에나 계시는 법. 안타까운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은 꾸준히 법회에 참석했으며, 얼마 후엔 조계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생활 틈틈이 조계사에서 열리는 교리강좌에 참석했고, 나와 동생은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를 다녔다. 이제 불교는 시나브로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궁핍한 생활에도 법회참석 등 불심 키워
가정형편 더 어려워져 대학진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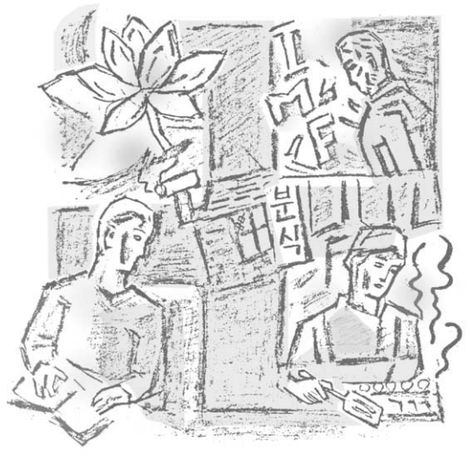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무렵이었다. 그 새 아버지는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조그마한 사업까지 시작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기존의 직장마저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나 역시 사춘기시절 많은 갈등과 방황으로 성적이 떨어졌고,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었다. 사회는 어느 샌가 IMF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와 있었고, 나는 군 입대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어차피 가야할 군대이기에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장 먼저 입대할 수 있는 해군을 지원했다. 수영도 잘 못하던 내가 배를 타는 군 생활을 지원할 때엔 그래도 군대를 다녀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였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군대생활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고, 나는 소위 말해 군대에서 줄을 잘못 선 경우였다. 하지만, 그 힘들게만 여겨지던 군대에서도 부처님이 늘 내 가까이에, 내 마음속에 계셨기에 나는 몸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제대를 해 집에 와 보니 내가 입대할 때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집안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2년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께서 조그맣게 운영하시던 분식가게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제대를 하면 마음 굳게 먹고 공부해서 다시 한 번 대학에 도전해 보겠다던 내 생각은 이미 성인이 된 장남으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계속)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화 룸비니 동산의 기적 ②

사람들은 아쇼카 나무 밑에 장막을 쳤다. 아쇼카 나무는 한역으로 '무우수(無憂樹)'라 쓰며 그 뜻은 '근심없는 나무'이다. 이 나무는 봄을 상징하는 나무로 순백의 꽃을 피우는 상서로운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리하여 마야데비 왕비는 아쇼카(무우수)나무의 그늘에서 부처님이 되실 아기를 생산하게 되니 대체로 보아 기원전 560년경이다. 인도의 기록에 따르면 바이샤카 달의 보름날 왕비가 잉태의 꿈을 꾸었으므로 그로부터 10개월 뒤라면 양력으로 3월 초순이 되고 중국력으로는 3월 보름에 해당한다. 이처럼 날짜가 서로 틀리는 것은 인도에는 서로 날짜를 달리하는 달력들이 서너개 전해오고 있어서 부처님의 탄생을 어느 달력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4월 초파일로 환산하여 부처님의 탄일로 경축해 오고 있다. 바이샤카(Vaisakha)달(月)은 인도달력의 둘째 달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아기성인의 선언이 끝나자 땅에서는 일곱 가지의 기적이 잇따라 일어났으니 갑자기 바람이 멈추었으며 천지가 진동을 했고 새들이 은신처를 찾아 숨었다. 모든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고요와 평화가 온 땅을 지배하였다.

성인의 탄생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설화가 따라 붙기 마련이다.

아기왕자의 탄생소식은 즉각 카필라바스투 성으로 알려졌고 온 백성들은 모두가 왕자의 탄생을 축하였다. 숫도다나 라자도 하던 정무를 접어두고 즉시 말을 달려 룸비니 동산에 도착하였다.



아기 성인은 태어나자마자 즉시 그의 천안(天眼)을 열고 사방을 둘러보며 모든 국토와 온갖 생물들을 살펴보았다 했다. 또한 아기성인은 즉시 유모의 손을 벗어나 동 서 남 북 시방(十方)을 차례로 둘러본 후, 어느 곳에도 지계(持戒)와 선정(禪定), 지혜(智慧), 선근(善根)에 있어서 자기만한 경지에 도달한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기록은 성인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기록이며 윤회사상을 배경에 깔고 있다. 어쨌든 아기성인이 북쪽을 향하여 즉행칠보(卽行七步)하는데 그가 한걸음 한걸음 옮길 때마다 그 자리에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며, 이때 아기성인은 일곱 번째 걸음에서 멈춰서서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이 된다.

장차 샤카족을 이끌고 가게 될 태자를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름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던 숫도다나 라자는 마침내 태자의 이름을 결정하였으니 싯다르타(Siddhartha) 고타마(Gotama)였다.

'Siddhartha의 'Sid'은 '성취하다'는 뜻이고 'Artha'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여서 '모든 것을 성취하다'라는 뜻이 된다.

'싯다르타'의 한문표기는 '의성실다태자(義成悉多太子)'이다. 성씨 '고타마(Gotama)'는 '가장 훌륭한 소'라는 의미이다.

이리하여 싯다르타 고타마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가 그 막을 열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즉행칠보(卽行七步)를 하며 '천상천아 유아독존'을 선언했다는 부처님의 행적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 불전을 처음 대하는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곤혹스럽게 느끼는 대목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회전생(輪廻轉生)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즉 부처님은 중생을 고통속에서 구한다는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미 완성된 인격체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치와 앞으로 인간으로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미리 말한 것 뿐이다.

싯다르타 고타마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고 있을 무렵 히말라야 산맥의 깊숙한 산속에서 수도에만 전념하던 선인(仙人)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시타(Asita)였다. 선인은 '이시(isi)'라 표기되는데 본래는 리그베다 성전을 독송하는 바라문에 대한 호칭이다.

그날 그는 점심 식사후 잠시 잠에 빠져 들었는데 그때 33명의 신들이 꿈에 나타나 즐겁게 춤을 추면서 "샤카족의 땅 룸비니 동산에서 장차 부처님이 되실 성인(聖人)이 태어났다. 그 분은 살아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 중 가장 높은 자이다. 장차 '선인들의 숲'에서 법륜(法輪)을 굴리실 것이다"라며 노래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 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자기 마음의 불을 밝히고 조상의 묵은 빚 갚는 촛불재

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법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데는 시간도 만들어 놓고, 공간도 만들어 놓고, 날짜도 만들어 놓고 해우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고 올해는 더 한층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개선시키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 항상 자기 주처를 밀고, 즉 주처라는 자체가 주장자도 되고 불성도 되고 자부처도 됩니다. 하지만 이름이야 그 중에 어떤 걸 부르면 어떻습니까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천차만별의 생활을 하면서 주장자를 세워서 항상 수레가 구르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레는 중심을 찌어서 그 중심 찌어진 심봉이 바로 수레를 굴리는 거죠. 그 심봉의 힘에 의해서 의지하고 거기서 힘이 배출되기 때문에 바퀴가 이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모두 심봉에 의해서, 육조스님이 말했듯이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모두에게 다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인 주장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자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그 주장자를 통해서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직결이 돼있고 또는 이 세상만사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다 가설이 돼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모르지만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다르지만은 생활이 같고 생명도 같고 모두 차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찌 생활이 다르겠습니까?

그런고로 우리가 새해 정월에 촛불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장신이 들린 해가 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구장신이 내릴 때에 집을 지으면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는 삼재가 들면 액난이 들어서 그 해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체 모든 게 직결이 돼있고 가설이 돼있는 까닭에, 악행이라는 그 자체가 생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말마따나 지수화풍으로 벌어지는 일들, 또 사람이 가다 혹사를 당하는 일들을 말로 입으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각자에게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말입니다. 자기 주인공 주장자가 직결처이기 때문에 삼재든 구장신이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통신이 되면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구장신도 없고 삼재도 없고 고도 없고 집착도 없고 별도(喊道)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더불어 역대조사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습니다. '너의 뿌리를 알고 들어오너라 즐을 알고, 참나찰나 생활을 하고 참나찰나 공해서 없어지는 즐 알아야 들어오너라 여여하게 들어고 낼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자체가 광대하고 무변해서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어도 다 통신이 됩니다. 꽃들이 피어도 다 통신이 됩니다. 하다 못해 돌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하나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들리지 않아도 뜻으로는 같이 다 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갈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을 때 옆에 서있던 돌이 스스로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 하고 마음이 통하니껀 그 마음이 스스로 저리로 가게끔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깥으로 한다면 통신처 근처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각자 내 가정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거기다 모든 걸 다 일일하고 진실히 관한다면 저절로 통해서 일체 한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안해도,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해도 그냥 저절로 통합니다. 이게 공덕이며 공심입니다.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간단하게, 모든 것은 주인공 주장자에다 다 일임해라, 일임하고 굴리는 것은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을 대치해 막아나가는 것을 '글린다'고 합니다. 역대조사들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다들 일심으로 그 구년에다가, 구년도 없고 구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려니까 텁 구년이라 그랬습니다.

차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운전하게 해.' 관하고, 내릴 때에도 '무사히 운전하게 해서 감사해.' 하고 일심으로 언제나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사회를 리드해 나가고, 자기로 인해서 자꾸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가 앉을 새가 어디 있으며 병고가 붙을 새가 어디 있으며, 삼재가 붙을 새가 어디 있으며 구랑신이 붙을 새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만사에 모든 것이 붙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고가 붙을 새가 어디 있구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밭자취를, 즐장 이런 말을 하죠. 발자취를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지고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지는데 무슨 고가 붙습니까?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지고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데….

근데 점가 있습니까? 팔자운명이 있습니까? 구랑신이 붙어 있습니까? 삼재액난이 붙어있습니까? 붙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게 붙어지는 거지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깐 내 몸도 소중하다 하는 것은 그 생명들의 의식들도 몸과 더불어 같이 한 개체로서 옴즉거리게 돼야 상대를 알고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봐도 본 사이가 없어요. 본 데 다른 걸 보게 되요. 들으면 다른 걸 들게 되죠. 여기 가면 저기 가게 되죠. 차를 타면 내려서 또 다른 차를 타게 되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게 되죠?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들어야 하는 거니깐 이거 갖다가 넣고 저거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뿌리를 잘라내다면 나무 싹은 다 죽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기복적인 말을 들어도 옴즉거리지 않는 자기 마음부터 봐야 돼요. 내 마음 주장자가 발동이 돼서 옴즉거리느냐 그 옴즉거리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것이 완벽하다면 바로 앉아도 서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좌선이 되는 겁니다. 좌선을 한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몸통이를 틀고 앉았기만 해서 좌선이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요지부동, 옴즉거리지 않는, 자기 주장자가 옴즉거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은 그것 또한 참선입니다. 어디에도 글하지 않는다. 여북하면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손들을 잘 낳게 해주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그러니깐 내 몸도 소중하다 하는 것은 그 생명들의 의식들도 몸과 더불어 같이 한 개체로서 옴즉거리게 돼야 상대를 알고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봐도 본 사이가 없어요. 본 데 다른 걸 보게 되요. 들으면 다른 걸 들게 되죠. 여기 가면 저기 가게 되죠. 차를 타면 내려서 또 다른 차를 타게 되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게 되죠?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들어야 하는 거니깐 이거 갖다가 넣고 저거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뿌리를 잘라내다면 나무 싹은 다 죽어요.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공한 줄 알아야
둘 아니게 들이고 낼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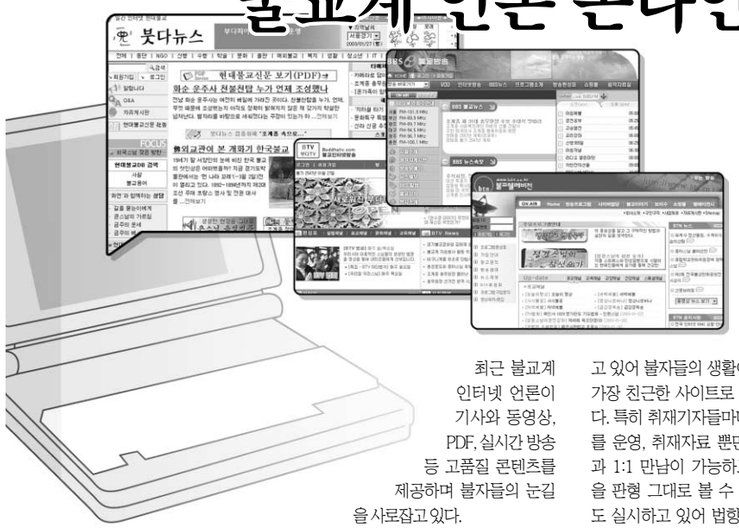
모든 것을 일임하고 진실하게 관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 모르지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도 말을 해서… 하하하. 말하는 것도 저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조사들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 돼서 내 입을 그냥 통하는 겁니다. 모습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세요.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자기 주동자를 항상 주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주시를 안해도 주시한 게 됩니다. 그놈이 육신을 옴즉거리게 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고 오게 해서 옴즉거리는 거니까 자기 주장자가 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동자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이에요. 왜냐하면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옴즉거리지 않는 심봉이 힘을 배출해서 수레바퀴가 돌아가니까요. 자기 몸이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수레바퀴와 같다 이겁니다. 여북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레바퀴 돌아가듯 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동자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이거든요. 왜 선장이라고 하느냐,

불교계 언론 온라인서비스 "UP"



동영상, PDF 등 고급 콘텐츠 제공
다양한 서비스로 신행 · 포교 길잡이

경북 구미 해운사 신도인 김교성(33)씨는 매일 아침 출근과 함께 붓다뉴스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불교뉴스와 큰스님의 법문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주 화요일에는 현대불교신문을 판형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PDF 서비스를 통해 교리와 신행활동의 정보를 얻는다.

최근 불교계 인터넷 언론이 기사와 동영상, PDF, 실시간 방송 등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며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불교계 뉴스사이트로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온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20여명의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뉴스들을 현장감 넘치는 기사 또는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매일 업데이트해 불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또한 큰스님 음성법문, 각종 커뮤니티와 주목받는 인물 인터뷰,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막혀', 만화가 한정우씨의 '아함경에서 건지는 지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불자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친근한 사이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취재기자들마다 개인 커뮤니티를 운영, 취재자료 뿐만 아니라 네티즌과 1:1 만남이 가능하고 현대불교신문을 판형 그대로 볼 수 있는 PDF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 법향이 가득한 '사이버 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오픈한 인터넷 포교방송 부다TV(www.buddhatv.com)는 설법, 포교, 문화, 교육 등 4개 채널을 운영한다. 부다TV는 이 채널을 통해 찬불가 뮤직비디오, 영화전문 부다시네, 청소년 음악프로그램 락엔락, 어린이 구연동화, 기타 초심자와 중급자를 위한 불교강좌 등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불자네티즌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포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을 가청취권으로 하고 있는 불교방송(www.bbsfm.com)은 프로그램 소개, BBS뉴스, 음악자료실, 청취자 게시판 등의 코너에서 불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나간 방송을 불자들이 언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VOD서비스 코너를 신설, 조만간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케이블 채널 32에서 영상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텔레비전(www.btni.co.kr)은 매일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불자들에게 제공하고 만불신문(www.manbulshinmun.com)도 최근 PDF 서비스를 실시,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신문을 판형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정보센터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불교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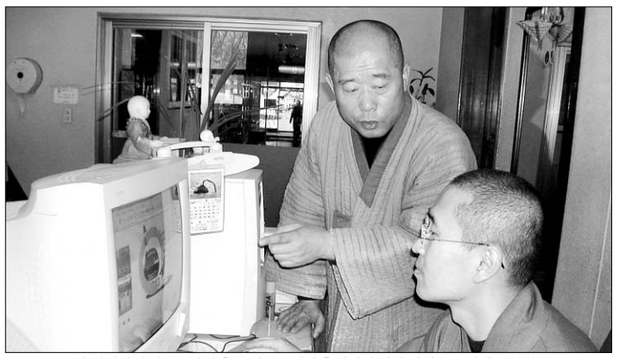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봉원사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년전 인도 영취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실때의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 영산재. 봉원사 홈페이지(www.bongwontemple.or.kr)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된 이 영산재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다. 영산재에 대한 개괄적 설명, 영산재 공연 의식과 식당 작법, 영산재 보존회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2002 한일 월드컵 성공 및 세계평화 기원 영산대재 상설공연 내용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범음대학 등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돼 봉원사의 진면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단지 마우스 클릭 몇 번 만으로도 금방 알수 있다.

봉원사는 1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젊고 활기찬 신세대 사찰이라 불릴 정도로 디지털 불사를 모범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전산담당 광호스님을 비롯해 30~40대 젊은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종무전산화, 영산재 관련 자료 DB화 등 정보사회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찰종무행정의 경우 정보화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10년 전 이미 몇백만원대의 종무관리 프로그램을 구입, DM발송과 신도들의 인적사항, 인등비 등 재정적 부분까지 전산화 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최신 전산 장비를 구입해 사중에서 보관해온 영산재 관련 500여

영산재 DB화, 다국어 제공 눈길
첨단장비 이용 불교문화 전산화 계획



◇전산담당 광호스님과 총무 일운스님이 홈페이지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개의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중에 있고 바라춤, 법고 등 불교문화관련 내용도 전산화를 통해 영구보존할 계획이다.

총무 일운스님은 "신세대 스님들을 중심으로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메일을 서로 교환하는 등 상호 커뮤니테이션이 활발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포교를 봉원사 중점사업으로 추진,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엿보기

9시간 인터넷 대란, '보안 후진국'

바이러스 원인, 쇼핑몰 · 게임업체 타격
정통부 백신설치 등 행동요령 발표
'인재' 재발 않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경 국가의 중추신경망인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9시간동안 한꺼번에 중단되는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다.

이번 인터넷 접속 중단 사태는 신종 웜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PC방,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사고 방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www.microsoft.co.kr)의 데이터 베이스 서버 프로그램인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보안 패치파일 설치, 안철수연구소(www.ahnlab.co.kr) 등 보안회사 홈페이지에서 전용백신을 다운받아 바이러스 검사 등 국민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안의식 부재가 부른 인재라며 항의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젠 MS를 버릴때가 되었습니다. MS 사가 태동한 미국에서조차 MS를 분할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100%의 PC가 MS 제품을 쓰고, 서버의 대부분이 MS-SQL서버를 이용합니다.

우선 서버들부터 UNIX, LINUX로 모두 교체합시다. 그리고 관공서의 서버들, PC들을 모두 리눅스 계열로 바꾸고 국내 벤처나 IT사업자들을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오피스같은 사무환경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인터넷대란은 인재다.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서로 떠넘기식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원인규명을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해야할 것이다.

lee03140, 네이버

정통부란 곳이 정보 통신에 정통 해야 하는데 정통하지 않고 소통 하니 이모양이 아닌가. 앞으론 정통 하고 대통한 정통부가 되길 바란다.

아무개, 정통부 게시판

평일 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직한일이다. 전문가란 넘들이 어제 하루종일 해킹어쩌고 하더니 결론이 바이러스라니. 보안의식이 그렇게도 없고, 대처가 이렇게 늦어서야. 앞으로가 더 걱정되네.

sam03ss, 엠파스

IT단신

앙굴렘만화페스티벌 폐막
한국전, 해외언론 격찬

세계최대 규모의 만화 축제인 '2003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이 1월 23일~26일 프랑스 앙굴렘에서 개최됐다. 30년 전통의 이번 만화페스티벌은 전세계 900여명의 작가를 포함해 총 5800여명 이상의 만화관계자를 비롯해 20여만명의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아 축제를 만끽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은 한국만화특별전. 역사전, 작가전, 모바일 만화전, 학생만화전으로 구성된 한국만화특별전에서는 총 100여편의 만화를 4컷에서 8컷의 형식으로 구성해 휴대폰이나 웹, PDA 등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시연해 해외유수언론의 격찬을 받았다.

스팸대응센터 개설
교육 · 홍보 집중 실시 예정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조휘갑)은 최근 스팸메일이 급격히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팸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불법스팸 대응센터'를 1월 24일 개설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사업자 및 네티즌들이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스팸메일 피해구제 및 상담 등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www.spamcop.or.kr, 02-405-4770)로 연락하면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의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수시접수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또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

불교문화상품 전문 사이버 몰 마하몰(www.mahamall.co.kr)

설날맞이 大 특전 상품전

※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원적외선 찜질팩(10매)을 드립니다.
● 기간 : 2003. 1. 20 ~ 2. 10 (20일간)



www.mahamall.co.kr

불교용품 展

디지털불경 룸비니	35,000
연옥합장주	7,000
교리기도염주	35,000
오분향(목욕용)	20,000
무공해식물성양초(12개입)	48,000
뿌리죽비(大)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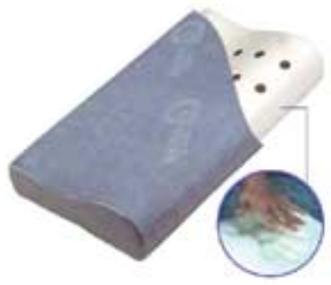
공예문화 展

희담석다기세트	80,000
미륵반가사유상(회향목)	300,000
용무늬 풍경세트	30,000
백자달마쌀독 20kg	68,000
청자5인다기	40,000
월드컵 소종	192,500

마하몰 노마진상품

www.mahamall.co.kr

(30개 한정판매)



37℃氣베개

색상 : 아이보리
사이즈 : 47cm x 29cm x 8cm
~~정상가 : 69,000원~~
할인가 : 39,800원

기베개 – 목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며 원적외선 방사체인 기암석(LIFE SOUL)을 부착하여 숙면을 유도하여 피로를 해소시켜 드립니다.



숯참선명상방석

사이즈 : 39cm x 43cm
~~정상가 : 35,000원~~
할인가 : 25,000원

특 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현상공덕향 세트

~~정상가 : 15,000원~~
할인가 : 10,000원

국내최초로 개발.
"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추천!! 효도상품 하이라이트

희담석 찜질팩
3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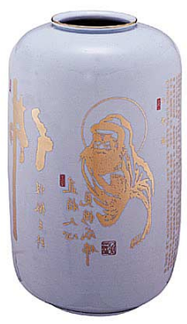
참숯베개
35,000



건강지압봉
16,000



천수경순금 사리백자
230,000



보원향선물세트
60,000



금자석 연옥합장주
150,000



건강향기방석
77,000



연꽃불자시계
99,000



숯 목걸이
19,800



무심정식
105,000



삼보죽염세트 105,000



서울부황 98,000



팬시용품 展

전통창호 차걸이등 세트	18,000
전통창호 열쇠고리 세트	10,000
연꽃연밥차걸이세트	7,000
링목탁 핸드폰 걸이	4,000
연꽃앞치마	5,000
보리수잎 성불인사장	3,500

생활건강 展

대나무수액시트(사은품증정)	90,000
불자용 행운넥타이	38,000
패철(大)-풍수지리기구	200,000
미농6종 혼합세트	47,700
불성차(우전)	90,000
희담석 방석	198,000

음반(CD) 展

불교방송가릉빈가합창단CD	15,000
영산(송암큰스님 유작CD)	70,000
대부모은중경(영인스님비디오)	20,000
관세음보살보문품(영인스님 비디오)	20,000
산사의명상음악 1~6	각 10,000
국악명상음악 1, 2	각 10,000
영검을하루같이-정율스님찬불가모음	10,000
새벽종송(상진스님CD)	10,000
범패와작법무(일초스님)	12,000
선의세계 1~4	각 10,000



10~20% OFF

옛부터 전해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제품이 한자리에..

※ 주문시 종류 및 사이즈를 말씀해 주세요.



한방폴로티 25,000
한방면티 19,000
한방팬티(남성용) 11,000
천연염색이불 150,000
아로마 약초 베개 39,000
천연염색손수건 15,000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주문 전화 : 02)732-1520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